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IOC 위원 겸 GAISF 회장 피선



88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한국은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가
올림픽 운동을 주도하는
IOC의 위원으로 추대됨과 아울러
모든 경기를 치루는 막강한 세계스포츠기구인
GAISF 회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한국스포츠가 국제적인 발언권이 강화됨으로써
88성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태권도가 올림픽정식종목채택의 가능성이 짙어졌다.
태권도인들의 경사는 물론이거니와
한국스포츠계로서도 큰 소득을 올린
김운용 총재의 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김운용세계태권도연맹총재는 10월 1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91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IOC위원에 선출됨과 동시에 10월25일 모나코의 몬테카를로에서 열린 제20차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7년 한국이 IOC에 가입한 이래 이기봉, 이상백, 장기영, 김택수, 박종규씨에 이어 한국인으로서는 여섯번째 IOC위원이 되었으며,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최초로 한국인 회장이 탄생하여 한국스포츠계로서는 큰 영광이자 경사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88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막강한 스포츠기구에서 발언권이 강화됨으로써 큰 소득을 가져오리라는 것과 앞으로 태권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의 가능성을 한발 앞으로 당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한국에서 6번째 IOC위원 피선

IOC위원은 현장에 「IOC가 승인한 NOC(국가올림픽 위원회)의 국민으로서 불어 또는 영어에 능통해야 하며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되어 있다.

IOC위원은 한 NOC에서 한명 이상을 뽑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는 한명 더 선출할 수 있어 한국도 88올림픽 이후 IOC위원이 한명 더 늘 수 있게 되었다.

김운용 IOC위원은 故박종규IOC위원의 후임으로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추천을 받아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IOC 집행위원회에서 승인돼 이날 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출된 것이다.

이밖에도 미국의 Anita de FRANTZ여사, 콩고의 Jean-Claude GANGA씨, 서독의 Charalambos NIKOLAOU씨 등이 선임되어 IOC멤버는 총92명이다.

한편 제91차 IOC총회에서는 올림픽개최지 결정을 투표에 들어가 제25회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제16회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프랑스의 알베르빌이 결정되었다.

세계최대스포츠단체 - GAISF 첫 한국인 회장

정통성을 자랑하는 IOC에 이어 국제스포츠무대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경기를 이끌어가는 GAISF는 지난 67년 창설되었고 태권도는 지난 75년에 가입했다.

GAISF는 국제스포츠기구 중 가장 큰 단체로 하계올림픽 24개 종목 세계연맹과 동계올림픽 6개종목 세계연맹 및 기타 IOC승인 34개 세계연맹 등 모두 69개 국제경기연맹의 연합단체로 세계올림픽연합회(ANOC)와 함께 IOC를 견제하는 비중있는 단체이다.

GAISF는 모든 경기의 기술문제, 장비, 경기운영, 심판관리 등을 관장하는 국제경기연맹의 연합단체이기 때문에 각 경기연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스포츠 외교의 주역으로 세계스포츠계의 사령탑이 된 김운용총재를 축하하는 리셉션이 성대하게 펼쳐졌다.
(태권도 가족추회 리셉션장에서)



한 기구로 김운용총재는 IOC내에서의 발언권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내년에 IOC 집행위원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운용 IOC위원 겸 GAISF 회장 선임 축하 리셉션

김운용세계태권도연맹총재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및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회장선임 축하 리셉션이 11월 5일 프리저던트호텔에서 김종하 대한올림픽위원회(KOC)위원장 주최로 열렸다.

김종하 체육회장은 김운용총재가 1971년 이래 체육계와 인연을 맺어 체육계에 공헌을 지대하였음을 치하하였고 김운용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 스포츠가 국제무대에서 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이세기 체육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김운용총재의 IOC 위원과 GAISF 회장 피선을 축하했다.

이날 리셉션에는 이하우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 사무총장, 김집 태릉훈련원장, 최만립 KOC 부위원장, 김성집 태릉훈련원훈련단장, 박철빈 한체대학장, 이영호 전체육부장관 등 체육계인사들과 손기정, 홍형표씨 등 원로체육인과 태권도협회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태권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가능성

그동안 올림픽의 정식종목채택을 줄기차게 추진해온 국내태권도계는 김운용세계태권도연맹총재가 IOC위원이 되면서 이어 GAISF 회장에 피선되자 태권도의 올림픽종목채택에 대한 가능성을 「시간문제」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다.

IOC 및 GAISF 총회를 마치고 지난 11월 29일 귀국한 김운용 총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기에 앞서 책임의 막중함을 느낀다」고 하며 앞으로 「우선 88올림픽의 성공을 1 차차제로 삼고 IOC를 비롯한 국제스포츠 기구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와의 협조관계를 긴밀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재 세계태권도 연맹에는 1백 12개국이 가입해 있고 6 개대륙에서 매년 공식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이처럼 태권도가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됐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

다. 이는 김운용총재가 IOC위원에 뽑히는데 이어 GAISF 회장에 피선되고 유럽태권도 강국인 스페인이 올림픽개최국으로 확정됨에 따라 최적의 기회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즉 바르셀로나는 제 8 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87년 9월)를 유치,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있고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바르셀로나 출신이므로 점 등은 태권도의 올림픽종목채택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페인에 유럽의 태권도 최강국으로 미국의 8백26명에 이어 1백21명의 한국인 사범이 진출해 있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사범들이 활발하게 태권도를 뿌리내리고 있다.

결국 태권도의 올림픽채택은 시간 문제이고 한국은 88올림픽 시범경기인 태권도를 그 어느대회보다도 훌륭하게 치루어야 하는 것이 첫째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김운용총재는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대비해 「세계인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권도 룰을 개정, 발전시키는 한편 유망선수의 발굴 육성과 기술개발, 체력향상, 과학적 훈련, 대회경험의 축적을 위한 국제대회참가 및 전지훈련으로 올림픽에 대비해 나가야겠다」고 했다.

태권도가족 주최로 축하리셉션

태권도계의 자랑이자 큰 영광이기도 한 김운용 IOC 위원겸 GAISF 회장의 선임축하리셉션이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공동주최로 지난 11월 17일 오후 6시부터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축하 리셉션이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리셉션에는 태권도가족과 각 체육계인사 및 국회의원, 언론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주한외교사절 등 각계에서 500여명이 참가하였다.

김용휘(대한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리셉션에서 김준철(청주대 이사장)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은 태권도 가족을 대표하여 김운용IOC위원 및 GAISF 회장 선임에 대한 축하인사에서 「지난 10여개 성상을 태권도 발전은 물론, 한국체육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김운용 박사가 여러분의 성원으로 IOC 위원과 GAISF 회장으로 선임된대 대하여 저희 태권도가족이 작으나마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인사를 대신한 후 태권도가족은 계속 김운용박사를

중심으로 굳게 단합하여,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김운용회장은 답사를 통해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책임의 막중함을 실감한다며 88올림픽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IOC 및 GAISF와의 관계를 밀접히 하여 세계의 체육무대에서 한국의 치위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세직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IOC 위원과 GAISF 회장의 선임은 김박사의 탁월한 능력과 재질 및 리더쉽에 기인된 것이라고 극찬하며, 또한 김박사는 올림픽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태권도가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정식종목 채택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공헌하였다고 치하했다. 또한 88올림픽의 성공적 완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이 더욱 확실시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한편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펼쳐보인 태권도시범 '약동'은 전세계 스포츠계 인사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고 태권도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했다.

끝으로 「창공을 나르는 새는 두 날개가 튼튼해야 힘껏 날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IOC나 GAISF는 한쪽 날개이고 여러분들의 성원이 또 한쪽의 날개이므로 한국체육발전을 위해 푸른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했다.

한편 이날 축하리셉션에 참가한 각계 인사들은 미리 마련된 색인방명록에 김운용 내외분의 싸인을 필드로 해서 이재환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정계인사들과 박세직 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김종찬 대한체육회장과 최윤철씨를 비롯한 원로체육인, 이현우 장군을 비롯한 군 체육관계자 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세계 스포츠계의 사령탑

김운용세계태권도연맹총재는 지난 71년 대한태권도협회회장직을 맡으며 스포츠에 관여하기 시작하여 73년도에는 세계태권도연맹을 창설하면서 태권도의 세계화에 모든 역량을 쏟으며 국제스포츠무대의 폭넓은 활동으로 국제경기연맹 (ARISF) 회장, 월드컵조직위원장, IOC올림픽위원회운동위원,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SLOOC)부위원장을 거쳐 IOC위원과 GAISF 회장에 피선됨으로써 한국스포츠외교의 주역으로 세계 스포츠계의 사령탑이 되었다.

한편 김운용총재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5개국어에 능통하여 국제스포츠무대에서 탁월한 외교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운용총재의 약력은 아래와 같다.

김운용총재의 약력

▲생년월일: 1931년 3월 19일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 1동 201호

▲학 력:

1956년 미국 텍사스웨스턴대학 졸업

1960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1962년 연세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

1964년 미국 조지 워싱턴대학원 졸업

1976년 미국 매리빌대학 법학박사학위 취득

▲경 력

1961-1963: 국무총리 의전비서관

1962-1963: 동덕여자대학 강사

1963-1965: 주미대사관 참사관

1965-1967: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1967-1968: 주영대사관 참사관

1968-1974: 대통령경호실 보좌관

1971-현재: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1973-현재: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1974-1978: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및 명예총무

대한체육회 부회장

1980-1984: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 (GAISF) 집행위원회 위원

1982-1985: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SLOOC) 집행위원

1982-현재: IOC올림픽운동위원회 위원

1983-현재: IOC승인 국제스포츠연맹 회장

1984-1986: GAISF 부회장

1985-현재: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SLOOC) ·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SAGOC) 부위원장

1986: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

1986: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GAISF) 회장

역사의 현장 · 역사의 인물 시리즈 1

일제(日帝)의 오욕(汚辱)을 민족자존(民族自尊)의 공간으로

창경궁 - 국립중앙박물관, 그 역사의

순종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동물원과 식물원을 짓고라
전각(殿閣)은 물론 조석까지 파헤쳐 놓았으며
민족정신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
1911년에는 그 이름마저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하시키고
일반인들에게 놀이터로 개방...

씻고 회귀(回歸)

현장을 찾아서

—홍보실—

올해 8월 21일과 23일은 해방40
여년만에 일제강점의 총본산이었던
중앙청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일제
에 의해 창경원으로 놀이터화 되었
던 창경궁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그 위용을 드러낸 역사적인 날이
었다.

민족문화유산의 총본산으로 탈바
꿈한 중앙청자리의 새 국립중앙박
물관은 한국문화의 전통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역사의 교육
장인 동시에 민족자존의 광장으로,
일제에 의해 난도질당한 창경원이
왜곡된 부분을 일소하고 우리 옛 왕
실의 높은 기품과 운치를 되살려
500년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문화유
산으로 창경궁이 복원되어 조선조
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자주적
인 역사현장으로 회귀함으로써 현
대의 우리들에게 새로운 역사의 공
간과 문화공간을 갖게 하였다.

그 무엇보다도 창경궁이 일제 36
년의 수난 속에서 우리의 정신적 원
형인 고궁의 500년 역사를 내려오
는 정신적 맥까지 끊어놓은 오욕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과 이를 통치·
지배하던 일제강점의 총본산인 조
선통덕부 건물에 국립중앙박물관이
들어섬으로써 이제야 일제의 잔재
를 털어내고 민족자존의 공간을 찾
은 감개가 무량하지 않을 수 없었
다.

민족문화의 맥을 되살린 창경궁 복원

몇년 전까지만 해도 창경궁은 밤
벗꽃놀이나 유원지로 여겨졌을 뿐
이었다. 그러나 창경궁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역사의 왜곡이었으며 모진 수
난의 현장이었단가를 알 수 있다.

원래 창경궁은 1418년에 세종대
왕이 왕 위에 오르면서 상왕인 태
종을 모시기 위해 지은 것으로 수
강궁(壽康宮)이라 하였다. 태종이
승하한 뒤 방치되었던 것을 제9대
성종대왕이 수강궁 자리에 새로 궁
전을 건립하고 창경궁(昌慶宮)이라
하였는데 이곳에 할머니인 세조비
정희왕후와 어머니인 덕종비 소혜
왕후, 양어머니인 예종의 계비 안
순왕후를 모셨다.

그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복
궁·창덕궁·종묘와 함께 창경궁도
불에 타 소실되었던 것을 광해군 8
년에 다시 중건하였으나 인조반정
(仁祖反正·1623)과 이괄의 난(1624)
순조 30년(純祖, 1830)의 큰 화재
로 여러차례 불타다가 다시 중건 되
기도 한 모진 수난을 겪으며 궁궐
(宮脈)을 이어오며 장조(莊祖·思
悼世子)와 정조(正祖)·헌종(憲宗)
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창경궁은 일제 침략세력
이 강토를 점령하면서 대한제국(大
韓帝國)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純
宗)을 1907년에 창경궁에 유배시키
고 국권의 상징인 궁궐의 말살정책
에 따라 순종을 위로한다는 명분으
로 동물원과 식물원을 짓느라 전각
(殿閣)은 물론 초석까지 파헤쳐 놓
았으며 민족정신을 완전히 말살하
기 위해 1911년에는 그 이름마저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하시키고 일
반인들에게 놀이터로 개방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훼손된 창경궁은
해방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대
로 방치되어 옛 궁궐의 위엄은 자
취도 없이 사라져 간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기만적인 민족말



중건된 행각(行閣)

천연기념물
미선나무



장중하고
우아전려(優雅典麗)한
자태로 이조 500년 역사를
담고 있는 창경궁은
이제 단순히 시각적인
정서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인의 이미지를 대변해주는
전통이며 그 맥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살정책에 의해 원(苑)으로 격하된 것을 궁(宮)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자각이 일기 시작해 복원사업에 들어간 것은 1983년부터였다.

민족문화계승을 통한 자조문화창달의 한 사업으로 애국된 창경원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공사가 시작됨으로써 동식물원을 철거하고 정전(正殿)과 편전(便殿), 침전(寢殿)과 회랑(回廊)을 갖추고 정원에 심겨진 벚꽃나무를 뽑아버리고 우

리의 고유수종인 소나무, 철쭉, 느티나무 등을 심어 고궁의 운치를 되살려 놓았다. 또한 춘당지(春塘池) 주변의 케이볼카와 놀이시설도 완전히 철거하여 고궁의 연못으로 은은한 기품을 풍기고 있다.

우선 홍화문(弘化門)을 들어서면 새로지는 단청빛도 우아한 회랑이 양쪽으로 창경궁의 정전인 명정전(明政殿)까지 연결되어 장중한 아름다움이 한눈에 들어온다.

왕이 거닐던 회랑과 행각은 박석으로 깔아 우아한 정취를 풍기고 일제가 흙으로 매워버린 옥천교(玉川橋)도 돌을 깔아 입구부터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창경궁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옥천교는 두개의 반달모양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간에는 귀면(鬼面)이 조각되어 잡귀를 쫓고 있었다.

영조대왕이 특히 학문을 숭상하고 영재를 양성하며 친히 태학생(太學生)을 접견하여 시험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했던 숭문당(崇文堂),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침전인 통명전(通明殿)이 그 옛날의 영화를 재현하고 있었으며, 이번 중건공사의 핵심이었던 문정전(文政殿)은 임금이 국사를 돌보던 편전으로서의 위용을 완전히 되찾았다.

창경궁 한 모퉁이에 자리잡은 한국자생식물화단에는 민족의 열이 담긴 고궁의 정취 속에 산교육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화단에 한국식물을 심어놓았는데 그 중에는 세계적으로 1속 1과(一屬一科)의 희귀식물인 천연기념물 미선나무를 비롯하여 흰 진달래, 붉은 꽃싸리, 철나무, 박쥐나무, 매자나무, 고로쇠나무, 참회나무, 겹산철쭉, 쏘산초나무, 매자나무, 감국, 땀땀기... 등 모두 225종의 600포기가 겨울을 나고 있었다.

장중하고 우아전려(優雅典麗)한 자태로 이조 500년 역사를 담고 있는 창경궁은 이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정서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인의 이미지를 대변해 주는 전통이며 정신적 원형으로 그 맥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민족문화유산의 총 본산 겨레의 맥박 뛰는 국립중앙박물관

일제의 악독한 식민통치의 본거지였던 옛 중앙청자리에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총 집결된 국립중앙박물관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1916년 일제가 식민통치의 위엄을 보이고 수탈정책을 펴기 위해 총독부를 조선의 상징인 경복궁의 근정전 앞에 세우고 역대 일본 총독들이 이곳에서 한국민족을 수탈했었다. 해방 후에는 군정청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때부터 이 건물을 중앙청이라 불렀다. 정부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되었

고 6·25사변으로 일부가 파괴되어 5·16혁명 후 복구공사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박정희 대통령대에 이곳을 집무실로 사용하지 않자, 이 때부터 국무총리가 건물의 최고 상급자가 되었다.

그러나 일제침략의 상징인 이 건물을 계속하여 국무총리와 주요 정부기관의 집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는 여론에 따라 이 건물에 있던 모든 정부기관을 이전하고 민족박물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작업이 시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우리민족 문화의 뜨거운 맥박이
살아 숨쉬고 있는
뛰어난 증언물들이 지배를 받던
그 자리의 역사를
되돌아 보게 하고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한 교육적
가치를 더 크게 부각시켜……**

작된 것이다.

물론 일제통치의 상징물에 박물관을 세운다는 것을 반대하는 불가론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우리민족문화의 뜨거운 맥박이 살아 숨쉬고 있는 뛰어난 증언물들이 지배를 받던 그 자리의 역사를 되돌아 보게 하고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한 교육적 가치를 더욱 더 크게 부각시켜 놓았다는 것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라 본다.

본관 석조건물을 비롯한 총 1만 천평규모로 세계 어느 박물관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세계적 규모로 11만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우리나라 각종 문화재가 전시되어 한국문화의 전통이 무엇



11만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은 그 민족의 정신이 숨쉬는 정신의 공간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건물이
 일제 식민통치의 본거지였음을 감안할 때
 그 안에 자리잡은 한국민족문화의 증언물들의
 의연하고 빛나는 역할이 더욱 더 절실했을 뿐 아니라
 민족자존의 중추적 역할을 십분 발휘해야 되리라 본다.

이고 그 맥은 어떻게 이어내려 왔
 는지를 알려주는 역사박물관의 성
 격을 띠기도 할 뿐 아니라 중국, 일
 본, 서독 등 외국의 미술과 문화도

전시하여 세계사의 문화적 전통을
 상호 비교해 볼 수 있기도 하다.

박물관은 그 민족의 정신이 숨쉬
 는 정신의 공간이다. 국립중앙博物

관의 건물이 일제 식민통치의 본거
 지였음을 감안할 때 그 안에 자리
 잡은 한국민족문화의 증언물들의
 의연하고 빛나는 역할이 더욱 더
 절실했을 뿐 아니라 민족자존(民
 族自尊)의 중추적 역할을 십분 발
 휘해야 하리라 본다.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자랑스
 럽게 보존하고 가꾸어야 하는 것이
 이제부터 우리모두가 해야 할 몫으
 로 남아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는 똑같이 어리석은 역사를 되풀이 한다」

창경궁과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날 우리민족의 수난의 산실이었던 곳을 민족자존의 광장으로 세시대 역사의 장을 마련했다.

그러나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문화적 전통이 뿌리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국민적 자각, 민족적 자각, 역사적 자각, 사회적 자각으로부터 우리 민족문화 창달이라는 문제로 넘어가야 하리라 본다. 그것은 역사는 바로 전통의 계승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며 전통이란 과거의 습관이나 교훈을 미래로 끌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 8·15해방은 일제의 수난과 그 오욕의 잔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그 오점은 곳곳에 남아 해방 40여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왜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일제의 잔재를 떨쳐 버리려는 자각이 부족했던가? 우리는 해방과 더불어 6·25라는 비극을 겪어야 했고 그 후로는 경제성장을 위한 숨가쁜 행진에 뒤돌아 볼 여유가 없었다고 백번을 양보한다 해도 뿌리없는 나무가 일만 무성히 자라는 것과도 같은 현실을 맞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중앙청 앞을 지나가던 버스

속에서 중학생쯤 되어 보이던 한 학생이 「20년 후 내가 살 집이다」라며 중앙청을 가르키자 한 친구가 「내가 대통령하고 너는 문지기 하면서 같이 살자」라고 했다. 그 아이들의 치기어린 말장난이 웃어넘길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 누구도 우리의 부끄럽던 역사현장에 대해 투철한 자각을 보이지 않고 있었으니 누구를 탓할 수 있었으랴.

창경궁 또한 이땅의 지성인임을 자부하는 대학생들의 「사꾸라미팅」 장소로 제공되는데 그치고 있었으니 역사부재의 현상은 거의 만성적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제 창경궁 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개관이라는 일련의 대사업으로 5천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민족자존, 자주 역사의 장(場)을 열었다.

조선조의 역사를 되살린 창경궁

벚나무를 없애고 소나무로 가꾼 침경궁.

에 들어섰을때 새로심은 소나무나 주춧돌 하나에도 시선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은 바로 역사현장이기 때문이리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깨어진 사기그릇하나에도 우리 조상의 맥이 흐르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도 오히려 그것이 놓여있는 장소가 바로 역사의 현장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는 똑같이 어리석은 역사를 되풀이 한다」고 김은국씨는 이야기했다.

창경궁 개관식날, 조선말기 고종(高宗)의 행차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던 어가 행렬이 86년만에 재현되었다. 임금님의 행차를 알리는 북소리가 등등등 장안에 울려 퍼질 때 그것은 우리의 역사, 그 수난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경종처럼 들렸다. *



특집 제10회아시아 경기대회 태권도경기 총 결산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한국은 종합2위의 위업을 달성했다.
태권도는 아시아경기대회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7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용을 떨쳤다.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화는 꺼졌어도
금메달의 영광은 국민들 가슴에 새겨져 영원히 빛나리라 본다.
이 자리에서는 아시아 경기대회 태권도경기를 총 결산하면서
88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디딤돌을 삼고자 한다.

— 홍 보 실 —

- 아시아경기대회 태권도경기 · 대진표 · 경기결과
- 태권도 참가국에 대한 전력분석/이승국 · 박현종 · 주신규 · 진중의
- 성화는 꺼졌어도 금메달의 영광은 영원하다.
-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과 포상금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나
- 21세기를 향한 약동하는 한국인상을 세계에 심었다/개막식 공개행사
태권도시범 「약동」
- 아시안게임 태권도경기 운영본부
- 우리나라 응원문화의 정착의 시발점/대한민국응원단 태권도응원 시범단
- 부드러운 곡선과 절도있는 동작의 조화/은광여고
- 극기로 분출되는 힘의 아름다움/이두용 감독
- 자원봉사자 인터뷰
- 영광의 한마당서 주는 이야기들

아시아 경기대회 태권도 경기

한국 아시아 2위 - 태권도 7개의 금메달 획득 각국의 태권도 평준화를 직시해 88올림픽 준비해야

9월30일
금메달행진 시작

아시아게임 25개 종목중에 태권도는 8개의 금메달을 석권하여 종합 2위달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핀급과 플라이급에서 2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 첫날 경기가 수월에 있는 상대체육관에서 성대히 막이 올랐다.

정각 10시에 심판입장이 끝나고 곧 경기가 시작되어 핀급과 플라이급의 예선전이 벌어졌다.

「헤드기어」를 착용하고 실시하는 국내 첫 경기로서, 핀급 예선전은 바레인인과 인도네시아의 대결로 시작되어 기술이 한발 앞선 인도네시아 선수가 판정승을 거두며 준준결승에 올랐고, 부탄과 쿠웨이트의 대전에서 유일하게 핀급 한명만이 참가한 부탄선수가 실점으로 판정패를 당함으로써 한판대결로 메달에의 꿈이 좌절되는 안타까운 장면도 보였다. 그밖에 한국의 이종선 선수가 필리핀의 아놀드 바라디선수(1984년도 제6회 아시아태권도대회 1위)를 맞아 탐색과 공격을 병행하여 기선을 잡으며 3득점으로 판정승을 거두어 금메달 고지에 오른 것이나 다름없는 한판이었다

이로서 핀급 준준결승인 8강전에는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한국과 부전승으로 올라온 요르단, 네팔, 카타르, 태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올랐다.

준준결승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요르단 선수를 맞아 뛰어난 기술로 판정승을 거두어 최초로 메달권에 진입하였다. 또한 네팔은 카타르에게 판정승을 거두어 아시아게임 사상 최초의 동메달을 안겨주는 영웅으로 탄생되어 선수 및 네팔팀 코치 신재균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준준결승에서는 경기와 더불어 계속 흥미진진한 화제의 연속이었는데 이어 벌어진 태국과 쿠웨이트의 대전에서는 양 코트의 코치에게 한국인 코치 송재영씨와 주상현씨가 앉아 있어 관중들의 관심을 고조시켰는데 우세한 기량을 발휘한 쿠웨이트 선수가 우세승을 거두었다.

준준결승의 마지막 경기는 이종선 선수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민·무크타르와의 대전이었는데 이종선은 강직 필리핀을 누르고 올라온 탓인지 다소 여유를 갖고 경기에 임했으나 예상치 못한 강격으로 고전한 경기였다. 득점에 있어서 이종선 선수는 4득점이라는 큰 점수차

로 앞질렀으나 중중국 선수로서 고도의 기술과 기량을 멋지게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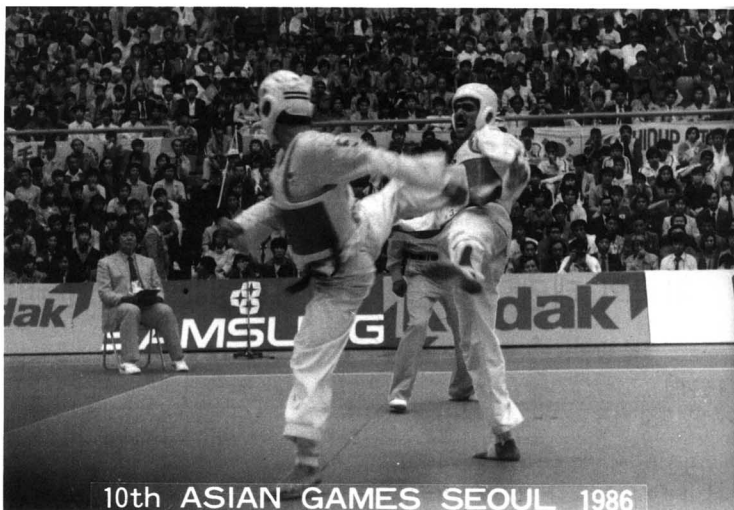
이렇게 하여 메달권에 돌입한 나라는 한국, 인도네시아, 네팔, 쿠웨이트로 좁혀졌다.

한편 플라이급 예선전은 김영식 선수와 일본의 라오시도·이시이선수의 한판 대결로 시작되었다.

김영식 선수는 3회 2분 40초만에 뒤돌아 열차기와 내려찍기 등으로 K.O승을 거두며 스타트에 쾌조를 보였다. 그밖에 카타르를 판정승으로 누른 필리핀과 부전승으로 올라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태국, 요르단,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이 준준결승전에 올랐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첫날 태권도 경기는 12시 30분에 핀급의 준준결승전과 플라이급의 예선전을 마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1시 30분까지 약 1시간가량 성인태권도 시범단의 시범과, 연하나로 기획팀의 응원시범이 흥겹게 펼쳐져 경기로 긴장해 있던 관중들을 흥겨운 속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1시 30분부터 속개된 플라이급 8강전은 한국의 김영식 선수가 키가 큰 사우디아라비아의 선수를 앞돌려차기 등, 기술우위로 판정승을



10th ASIAN GAMES SEOUL 1986

거둠으로써 플라이급의 메달리스트로 진입하였다. 이밖에 태국이 이란에게 우세승을 거두었고, 인도네시아가 요르단을 누르고 메달권을 확보함으로써 핀급과 플라이급 두 체급에서 메달 각축전을 벌이게 되어 새로운 태권도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였고 말레이시아가 네팔을 누르고 동메달을 확보하였다.

이어 벌어진 핀급과 플라이급의 준결승과 결승전은 금메달을 석권하겠다는 한국팀과 하나라도 금메달을 뺏어보겠다는 외국팀들의 각축전으로 장내는 선수 및 관중들의 열기로 가득찼으며 그 어느 종목보다도 금메달 순간의 포인트를 렌즈로 잡으려는 사진기자들과 국내외 취재기자들의 열띤 취재장이기도 했다.

핀급의 준결승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네팔을 판정승으로, 한국의 이종선 선수가 쿠웨이트를 물리치고 각각 결승전에 올랐으며 플라이급

준결승전에서는 한국의 김영식선수가 태국의 아난 맥사완을 맞아 1회에 페인팅모션으로 상대를 유인하여 몰아붙였고 태국선수는 킥복싱의 나라에서 출전한 선수답게 원투공격을 해왔으나 계속해서 김선수의 공격을 당하자 경기에 진것을 확신한 듯 거친 플레이를 펼쳐 경고를 받기도 하는 가운데 결승전에 올랐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준결승전은 말레이시아 선수가 우세승을 거두었다.

핀급과 플라이급 준결승을 마친 후 장내의 열기를 식히려는 듯 은광여고 88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무 시범이 있었는데 태권도를 디스코 음악에 맞춰 현대판으로 각색한「환상의 태권무」는 5천여 관중의 인기를 독차지 하기도 했다.

핀급 결승전

핀급 결승전은 인도네시아의 예피 트라이지 선수와 한국의 이종선

선수가 청·홍 코너로 나뉘어 금메달을 놓고 결전을 벌였다.

한국의 이종선 선수는 예선전서 필리핀의 아놀드·바다리, 준결승전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림·무크타르, 준결승서 쿠웨이트의 압둘라·알·아자미를 각각 물리치고 올라와 마지막 고지에서 인도네시아의 예피 트라이지를 판정으로 누르고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경기에서 이선수는 1회에 탐색전, 2회에 난타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공격을 컷트발로 제압, 2회 종료후 기권승을 거두었다.

플라이급 결승전

플라이급 결승전은 한국의 김영식 선수와 말레이시아의 술바무즈·아마사미 선수의 대결이었다.

금년 아시아선수권대회 3위의 전적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 선수는 검은 피부와 좋은 체력으로 밀고들

**중주국 선수가
컷트 발 사용 등,
태권도 기량의 잔수보다는
특점위주로 막강하게 경기를
운영함은 바람직 못하며…….**

어왔으나 김영식선수는 2회초에 뒤돌려차기와 점프 2단 모듬발차기 등 고도의 기술을 발휘하였고 3회에도 일방적인 공격으로 판정승을 거두어 첫날 핀급과 플라이급에서 금메달을 석권함으로써 힘찬 금메달 행진에 들어갔다.

이날 시상식에는 핀급에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W.T.F)총재가 메달을, 엄운규 협회(K.T.A)부회장이 꽃다발을 수여했으며 플라이급 시상식에서는 네팔올림픽위원회(NOC)위원장겸 아시아올림픽 평의회(OCA)부회장인 샤라드 찬드라 샤하가 메달을, 이종우 W.T.F 부총재가 꽃다발을 수여했다.

10월 1일

**밴텀급 홍종만 탈락
페더급 한재구 동태한 K.O 승**

이틀째 경기는 밴텀급의 홍종만 선수와 페더급의 한재구 선수가 출전하였다. 밴텀급에서 부전승으로 준준결승에 오른 홍종만 선수는 제 6·7회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강호 요르단의 라바비드 타레크 선수와 첫 경기를 펼쳤다.

1회전부터 막상막하의 대결로 장

내는 긴장감이 감돈 가운데 양선수가 펼쳐는 기술발휘에 합성과 박수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1회전을 마치고 전광판은 1:1 동률로 기록이 나오자 2회전에는 더욱 긴장된 가운데 경기가 펼쳐졌으며 3회에 들어 홍선수가 두차례, 요르단이 한차례 주의를 받는 가운데 요르단선수의 앞돌려차기가 성공, 홍종만 선수는 판정패 당했다. 이날 경기중 가장 큰 이변으로 주목된 홍선수의 패배는 전체급 석권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빗나가게 했다.

한편 밴텀급 예선전에서는 쿠웨이트가 인도 선수의 체계실격으로 부전승, 요르단이 카타르의 게임 포기로 부전승, 이란이 태국에 판정승, 일본이 필리핀에 판정승을 거두어 준준결승전에 올랐으며 인도네시아, 한국, 바레인, 네팔 등이 부전승으로 준준결승전에 올랐다.

준준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의 압둘 로자크선수는 쿠웨이트를 판정으로 눌러 단 한번의 게임으로 메달을 확보하는 가운데 첫날에 이어 태권도 강국의 대두를 예고했다. 또한 바레인과 이란전은 이란이 오른발 앞돌려차기 등 시종 우세한 플레이로 판정승을 거두었고, 필리핀과 네팔전은 관중석의 열띤 응원에 힘입어 네팔이 우세승을 거두어 첫날의 동메달에 이어 두번째 동메달권에 진입하였다. 이로써 밴텀급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 이란, 요르단, 네팔이 금메달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게 됨으로써 외국팀들의 열기를 북돋게 되었다.

한편 페더급 예선전에서는 태국이 네팔에게 판정승, 이란이 인도에 판정승을 거두었고 인도네시아, 요르단, 필리핀, 일본, 한국, 카타

르가 부전승으로 준준결승전에 올랐다.

페더급 준준결승전은 인도가 기권함으로써 태국이 부전승으로, 요르단이 필리핀에 판정승을 거둠으로써 각각 메달권에 돌입했다. 이어 한국의 한재구 선수와 일본의 사이토 선수의 대결이 벌어졌다.

매트위의 불어우로 불려질만큼 경기운영이 노련하며 세계대회의 최강자로 군림해온 한재구 선수는 밴텀급의 홍종만 선수의 패배를 설욕이라도 하듯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비며 기량을 발휘하여 가볍게 메달권에 돌입했으며 사이토 선수 또한 한재구 선수를 맞아 드물게 선전하여 많은 박수를 받은 경기였다. 그밖에 카타르가 이란에 판정승을 거두어 동메달권에 진입했다.

이틀째 경기인 밴텀급과 페더급의 준결승전에 오른 나라는 밴텀급에 이란, 인도네시아, 요르단, 네팔 팀이고 페더급은 한국, 요르단, 카타르, 태국으로 요르단이 단연 두각을 드러낸 날이기도 했다.

밴텀급 준결승전은 중주국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각각의 금메달 각축전은 치열했는데 인도네시아가 홍종만선수를 제압하고 올라온 요르단 선수를 제압함으로써 물고 물리는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쳤다. 이어 벌어진 이란과 네팔전은 이란의 간헐적인 공격이 득점과 연결된 반면 네팔은 4차례의 경고를 받는 등 관중석에는 어이없는 폭소가 계속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란이 승리를 거두어 금메달은 인도네시아와 이란의 결전을 기다리게 되었다.

페더급의 준결승전에서는 요르단이 태국을 맞아 3득점으로 판정승을 거두어 결승에 올랐고 카타르 선

수를 맞은 한재구 선수는 1회에 왼 발뒤꿈치, 2회에 오른발 받아치기, 3회에 멋진 뒤돌려차기 성공 등으로 다양한 기술의 발휘로 태권도의 진수를 맛보게한 경기였다.

결승전을 남겨두고 경기장에는 미동국민학교 어린이 태권도시범단의 시범이 펼쳐졌는데 특히 「국군의날」로 공휴일을 이용해 경기장을 찾은 학생들이 같은 또래의 어린이들이 펼치는 묘기와 기상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밴텀급 결승전

인도네시아의 압들로자크와 이란의 예브라힘 가데리 선수가 밴텀급 금메달을 따기 위해 선전분투한 경기였다.

1회전에 키가 큰 이란선수가 뒤돌아 열차기 등을 시도했으나 이에 응전한 인도네시아 선수가 우세, 2회전은 이란이 받아차기 성공, 3회전은 이란의 우세한 경기운영으로 이란이 판정승을 거두어 중주국

에서 금메달 한계를 따내는 기쁨을 누렸다. 가데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경기장을 경충경충 뛰어다니며 관중들의 환호에 답하였고 코치에게는 키스를 보내고 얼싸안는 등 이란팀의 축제 분위기였다.

페더급 결승전

요르단의 사메르 카달 선수와 한국의 한재구 선수의 대결로 전 경기를 통해 가장 시원한 경기를 펼치며 중주국의 위세를 보여주었는데 1회전부터 뒤꿈치기 얼굴공격으로 기선을 잡았고 2회에 결정적인 뒤꿈치기로 오른쪽 얼굴을 강타하여 통쾌한 K.O승을 거두었다.

이날 밴텀급 시상식에서는 이상주 아시아연맹회장이 메달을, 이종우 W.T.F 부총재가 꽃다발을 우승자들에게 수여했으며 페더급 시상식에서는 김종하 K.O.C 위원장 겸 O.C.A 부회장이 메달을, 엄운규 K.T.A 부회장 겸 태권도 운영본부 사무총장이 꽃다발을 수여했다.

10월 2일 라이트급 박봉권, 웰터급 문종국도 금메달 추가

3일째 경기도 오전 10시정각 심판원의 입장으로부터 시작되어 한국은 박봉권, 문종국선수가 출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이트급 예선전 첫 게임은 네팔이 일본에게 판정승을 거두는 것으로 시작하여 한국의 박봉권 선수가 태국에게 일방적인 공격 우세로 승리, 요르단 선수의 체체실격으로 쿠웨이트가 부전승을 거두었고, 카타르와 이란이 박력있는 경기로 판정승으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으나 체력이 좋은 이란이 판정승을 거두어 준준결승에 올라갔으며 그밖에 필리핀, 바레인, 인도네시아, 홍콩이 부전승으로 준준결승에 올랐다.

라이트급 준준결승은 메달권에 진입하는 골목으로 경기에 박진감이 넘쳤고 선수들도 진지하게 그들의 기량을 맘껏 과시했다. 메달권에 진입한 준준결승 우승국은 필리핀이 네팔에게 우세승, 한국의 박봉권이 바레인에게 우세승, 인도네시아가 쿠웨이트에게 판정승, 이란이 홍콩과의 대전에서 우세승을 거둬서 각각 금메달을 놓고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한편 웰터급 예선전은 한국의 문종국 선수가 이란의 자헤디를 받아차기, 앞밀어차기, 뒤꿈치기 등 다양한 공격으로 3득점으로 판정승을 거두었으며 태국선수의 실격으로 카타르가 부전승을 거두며 각각 준준결승에 올랐고 그밖에 필리핀, 일본, 바레인, 네팔, 홍콩, 인도네시아가 부전승으로 준준결승전에 올라 메달권을 노리고 경기를 펼치게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이변으로
전체급 석권에 차질을 빚었던
벨타급 홍종만 선수의 탈락은
상대적으로 각국 태권도의 수준이
평준화 되었다는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되었다.

1시부터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경기장에서는 은광여고 태권도 시범단과 응원시범이 2시까지 1시간 동안 펼쳐진 뒤 웰터급 준준결승부터 게임이 계속되었다.

한국의 문종국 선수는 필리핀 선수를 맞아 확실히 득점을 얻어 판정승을 거두었으나 경기의 소강상태가 많아 운영면에서 소극적인 경기운영으로 태권도인들의 비판의 소리가 있었다. 이어 벌어진 일본과 요르단의 대전은 4:3이라는 득점으로 일본이 판정승을 거두었는데 두선수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함으로써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기량의 발휘로 힘찬 경기운영을 펼쳐 많은 박수를 받았다. 득점 위주의 이기기 위한 경기를 운영하느라 중중국 선수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경기였다. 네팔은 홍콩에게 판정승, 인도네시아는 카타르에게 판정승을 거두어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다.

라이트급 준결승전의 첫 경기는 한국의 박봉권 선수와 필리핀의 벨로사리오와의 대전에서 2회전에 공격해 들어오는 필리핀 선수를 오른발 뒤후려차기로 정확히 안면을 강타하여 1분 10초만에 통쾌한 KO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또한 쿠웨이트와 이란의 준결승전은 둘

려차기, 들어찍기, 지르기 등으로 다양한 공격을 퍼부은 이란의 알·하지·포르 선수가 3회전을 우세승으로 결승에 올랐다.

웰터급 준결승전은 한국, 일본, 네팔, 인도네시아가 올라와 금메달을 향한 마지막 격돌로 경기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으며 응원전 또한 치열했다.

한국의 문종국 선수는 일본을 맞아 받아차기, 들어찍기 등으로 1·2회전을 득점으로 이끌었고 3회전에 들어오는 일본선수의 턱에 뒷차기를 성공시켜 다운을 시킴으로써 판정승을 거두고 5번째의 금메달 고지로 향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네팔을 맞아 우세한 경기운영으로 승리를 거두고 한국과 결승에서 맞붙게 되었다.

라이트급 결승전

한국의 박봉권 선수와 이란의 하지프 선수의 대결은 초반부터 공격으로 맞붙어 1회전에 두차례 받아차며 득점과 연결시켜 나갔고 2·3회에도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쳤으나 운영면에서 노련한 박봉권 선수가 공격을 득점으로 연결시켜 4번째의 금메달을 확보했다. 이날 이란의 하지프 선수는 은메달에 머물렀으나 뒷차기, 들어찍기, 들어차기, 회측, 지르기, 앞돌려차기 등

다양한 기술의 발휘로 저돌적으로 공격해 들어와 멋진 환관승부를 벌임으로써 앞으로 강자로서 대성하리라는 관심을 모았다.

웰터급 결승전

한국의 문종국 선수와 인도네시아의 탕·람 선수의 대전은 문선수가 초반에 기선을 잡기 시작해 다양한 공격으로 판정승을 거둬서 5번째의 금메달을 거두었다.

대체로 이날의 경기는 한국선수와 막상막하의 기량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외국팀들의 선전이 눈에 띄게 괄목한 만한 성장을 거두어 국제화시대의 태권도의 평준화에 한국은 더욱 더 기술개발과 체력연마에 힘을 써야한다는 각오를 새겨야 한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한 날이기도 했다.

이날 라이트급 시상식에서는 김용래 경기도지사가 메달을, 유석보 수원시장이 꽃을 수여했으며 웰터급 시상식에서는 김운용 W.T.F총재가 메달을, 홍종수 국기원 부원장이 꽃을 수여했다.

10월 3일 미들급 이계행, 헤비급 강승우 선수 금메달 중중국 위용 펼치며 막내러

마지막날 태권도 경기가 펼쳐진 성대체육관은 아시안게임의 후반부에 일본을 누르고 2위에 올라서는 당당한 기세로 각 종목마다 금메달이 쏟아지자 이에 가세하려는듯 태권도도 금메달 2개를 더 확보하여 중공을 바짝 뒤쫓는 열전을 벌였다.

한국선수들은 경기가 시작되기에 앞서 승리를 외쳤다.

미들급 예선전은 인도네시아 바레인 선수의 계체불참으로 부전승을 거두었고 카타르가 쿠웨이트에게 우세승을 거두어 준준결승에 올랐다.

준준결승에서 한국의 이계행 선수는 인도네시아의 요아칭 조셉 훈잔 선수에게 4득점으로 압승을 거두어 동메달권에 가깝게 돌입하였다. 그밖에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막상 막하의 대결을 거루는 가운데 일본이 판정승을 거두었고 네팔이 필리핀을 맞아 파이팅이 두각을 나타내 승리, 요르단이 카타르에게 판정승을 거두어 각각 메달권에 진입했다.

해비급은 전부 8개국이 참가하여 예선전에서 한 번만 승리를 거두어도 동메달을 획득하기 때문에 더욱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는데 예선전에서 카타르, 요르단, 한국, 바레인이 각각 승리를 거두어 동메달을 확보하였다.

미들급 준결승전은 한일전이 벌어졌는데 이계행 선수는 각종 태권도 발차기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태권도 진수를 보여주며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요르단은 네팔을 누르고 은메달을 확보하여 이계행 선수와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놓고 겨루게 되었다.

해비급 준결승전은 요르단이 카타르를 누르고 결승전에 올랐고 한국의 강승우 선수는 바레인 선수가 싱가포르와의 대전에서 입은 부상으로 경기를 기권해 경기없이 결승전에 올랐다.

미들급 결승전

한국의 이계행 선수와 요르단의 아하마드 알리 선수와의 대결로 1회전에 이계행 선수는 여유있게 요

르단 선수를 코너에 몰며 앞돌려차기와 두차례 돌려차기로 공격하여 2득점을 얻어내 요르단 선수는 겁을 먹고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는 가운데 2회전에 붙잡고 메달리다 경고를 받았고 3회전에 피해다니는 것으로 일관해 이계행 선수가 일방적으로 압승하는 가운데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다.

해비급 결승전

한국의 강승우 선수가 금메달 마지막 선물을 선사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홍코너에 섰고 이에 맞서 청코너에 요르단의 토피크 누이사 선수와 금메달을 따내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강승우 선수는 1회전에 앞돌려차기로 계속 2득점을 올리고 2·3회전에 돌려차기, 뒷차기 등으로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해 가장 큰 우승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미들급 시상식에서는 이태섭 과학기술처 장관이 메달을, 김진선 국군 체육부대 부대장이 꽃을 수여했고 해비급 시상식에서는 셰이크 파하드 아마드 알사바 OCA 회장이 메달을 배종호 W.T.F 사무총장이 꽃을 수여하며 4일간에 걸친 아시안게임 태권도 경기의 막을 내렸다.

한국은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중주국 태권도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본다. 아시아 종합 2위로서의 디딤돌 역할을 태권도가 전체급 석권으로 이루겠다는 당초의 목표에 금메달 7개를 따냄으로써 성공적으로 아시안게임을 치루었다.

태권도 중주국인 한국이 처음으로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참가하게 된만큼 태권도 관계자나 선수들의 각오 또한 대단한 것이었고 국민들의 관심도도 예상치 못할 만큼 열광적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이변으로 전체급 석권에 차질을 빚게 했던 뱀탐급 홍종만 선수의 탈락은 상대적으로 각국 태권도 수준이 평준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기도 했다.

이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각 체급에서 은메달을 휩쓸었고 네팔, 태국, 쿠웨이트, 카타르, 필리핀, 일본, 바레인 등도 각각 동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메달의 분산이 대부분의 참가국으로 나누어짐으로써 태권도의 국제화가 이제 평준화 수준으로 거개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88올림픽 태권도를 위하여 중주국으로서 중주국의 아성을 지키는 길의 모색은 바로 명예를 걸고 기술향상 및 체력연마에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대회에서 나타난 동남아 특히 중동권 선수들의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 우리 선수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남미 및 유럽 각국 등에서 참가하게 될 88올림픽 때에는 더욱 더 체력의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따라잡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강인한 체력이 급선무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응할 기술개발과 강인한 정신력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앞으로 우리는 중주국 태권도의 위용을 키칠 수 있으리라 본다.

각국 메달 획득순위

순위	국	가	금	은	동
1	한	국	7		
2	이	란	1	1	
3	인도네시아			3	1
3	요르단			3	1
5	말레이시아		1		
6	네	팔			4
7	태	국			2
7	쿠웨이트				2
7	카타르				2
7	일	본			2
11	필리핀				1
11	바레인				1

태권도 경기 참가국 - 참가인원

순번	국	명	임원	선수	계
1	네	팔	2	8	10
2	필리핀		2	8	10
3	카타르		2	8	10
4	사우디		1	2	3
5	싱가폴		1	1	2
6	태	국	2	6	8
7	부	탄	0	1	1
8	바레인		1	6	7
9	홍	콩	1	2	3
10	인도네시아		1	7	8
11	인	도	2	2	4
12	이	란	2	5	7

13	요르단	5	7	12
14	일본	2	6	8
15	쿠웨이트	1	5	6
16	말레이시아	2	2	4
17	한국	4	8	12
계		31	84	115



태권도 경기결과

번호	세부종목	금 메 달		국가	은 메 달		국 가	동 메 달		국 가
		선	수		선	수		선	수	
1	핀 급	이 중 선		한국	Yefi, Triaji		인 도 네시아	Bidhan Lama Abdullah, AL Ajemi		네 팔 쿠웨이트
2	플라이급	김 영 식		한국	Selvamuthu, Ramasamy		말 레 이지아	Budi Setiawan Anan, Meksawan		인도네시아 태 국
3	밴 텡 급	Ebrahim Ghaderi		이란	Abdul Rozak		인 도 네시아	Ram Bahadur Tareq Lababidi		네 팔 요 르 단
4	페 더 급	한 재 구		한국	Samer Kamal		요르단	Rashed AL Owjan Tana Sinprasar		카 타 르 태 국
5	라이트급	박 봉 권		한국	Ali Haji Pour		이 란	Faraj AL Fadhel Manuel III Del Rosario		쿠웨이트 필 리 핀
6	웰 터 급	문 중 국		한국	Ting Lam		인 도 네시아	Raj Kumar Rai Katsuhiro Oki		네 팔 일 본
7	미 들 급	이 계 행		한국	Ahmad Ali		요르단	Raj Kumer Buchhe Hirokazu Shiokawa		네 팔 일 본
8	헤 비 급	강 승 우		한국	Tawfiq Nwaiser		요르단	Rashed Bado Ali Mohammad Salah		바 레 인 카 타 르

21세기를 향한 약동하는 한국인상을 세계에 심었다

개막식 공개행사 태권도시범 「약동」

한국인의 뜨거운 피 용트림하듯 뿜어내던 열기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서막을 여는 개회식이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9월 20일 일제히 「광파레」를 울렸다.

아시아게임 개막행사는 「우리의 것」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었다. 한국의 민족은 전통을 흠뻑 느끼기에 충분했고, 국내외의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난 찬사는 가히 개막식을 준비한 측에서나 이를 관람한 관람객 모두가 오히려 놀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아시아인의 화합과 전진을 다짐하며 30억 아시아인이 하나가 되었던 16일간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많은 감회에 젖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금메달 93개의 영광보다도 개막이전부터 경기를 마치기까지 보여준 그 숨겨진 한국인의 뜨거운 피, 용트림하듯 뿜어내

던 열기…… 아 그것은 아시아가 놀란것보다, 세계가 놀란 것보다 우리가 모르던 스스로의 대견스러움에 놀란 것이다.

이렇게 해냈다. 성공적이고 의미 있게 말이다.

그 무엇보다도 개막식 공개행사 중 「약동」에 대한 찬사는 대단한 것이었다.

개막행사는 제1부에 「서울의 손님맞이」로 「영고(迎鼓)」·「청실홍실」·「꼭두각시」·「손님맞이」 등 네 작품의 공연이 있었고, 제2부에 선수단 입장 등 공식행사를 거쳐 제3부에 「아침의 나라」를 테마로 하여 「신천지」·「겨울꽃」·「봄처럼」·「약동」·「고놀이」·「영원한 전진」 등 6개 작품이 한국인의 역사를 대변해 주듯 화려하고 고요하게 그리고 은근히, 그러나 힘있게 펼쳐져 한민족의 대 서사시와 같았다.

가장 한국적인 주제들이 잠실벌을 통해 세계인의 시각에 멎었고 가슴으로 혼이 흘러들어갔다. 가장 한

국적인 것, 그러면서도 가장 세계적인 태권도의 위용은 프로그램 중 단연 하이라이트였다.

천지를 뒤흔들듯 민족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오천년 역사를 면면히 이어오면서 다져온 민족의 저력은 마침내 자라나는 내일의 주인공들인 소년·소녀의 가슴으로 부터 나왔다. 이 얼마나 힘찬 도약의 울림인 것인가.

「약동」은 태권도 국가대표 어린이 시범단인 미동국민학교 어린이 3백명이 공수특전단의 비호태권단원 7백명과 함께 태권도의 기본동작 시범과 격파시범순으로 진행되었다.

우렁찬 태권합성, 일사분란한 1,000여명의 태권도인의 질서, 둘러차기, 3단전너뛰기, 3단 올려차기 등으로 널널지를 쪼개는 고사리손에서 관중들은 박수와 탄성과 환호를 보냈으며 외국인들은 「원더풀」을 연발했다.

용트림과 같은 약동하는 힘을 보



심화가 타고르고 장엄한 팡파레가 울려 퍼진 침실추경기장

면서 한국인은 스스로 감동했다. 우리의 힘 때문에, 젊은이들 때문에, 아이들의 빛나는 눈동자와 다문 입술의 믿음직스러움과, 터지는 그들의 함성 때문에 약동의 현현이 바로 눈에 들어왔기에.

외국인들은 한국인의 전통과 문화를 받아들였다.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이 이해하는 그 전통과 문화를 하나의 인상으로 가슴에 남기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태권도로 보여주었고 그들의 가슴에 심어주었다.

88대회때도 태권도 시범요청

본래 태권도가 아시아게임 공개행사에 들어가게 된 것은 사마란치 IOC위원장이 지난 84년 9월 국기원에서 미동국민학교 어린이들의 시범을 관람한데 이어 같은 해 9월 잠실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 개장행사 때 시범경기를 참관한 뒤 "아시아게임이나 올림픽 공개행사로 보내도 손색이 없겠다"는 평을 한 뒤 기획됐었다.

이번에도 사마란치 위원장은 개막식 공개행사를 참관하고 지난 10월 13일 박세직 SLOOC위원장이 88대회 준비상황을 보고할 때 박 위원장에게 태권도를 88대회 개막식 행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전두환대통령과 영부인 이순자 여사는 하오 3시 정각 개회선언을 한 뒤 식후행사를 비롯해 대규모 개막행사를 2시간 가까이 참관했는데 미동국민학교 학생들의 일사불란한 태권도가 펼쳐지자 일어나 손뼉을 치며 특히 「학생들을 비롯한 출연진들이 비 속에서 불구하고 훌륭히 연기로 개막식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데 대해 노고를 치하한다」고 했다. 개막식 다음날인 9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두환 대통령과 나카소네 일본 수상, 韓·日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에 앞서 나카소네 수상은 「아시아게임 개회식이 매우 훌륭했고 특히 태권도 시범과 고공낙하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개막식 행사를 치하하며 특히 태권도를 극찬했다. 또한 나카소네

수상은 신라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개막식이 극히 성대하고 훌륭하게 준비된데 감격했으며 지금까지 각종 개막식에 참석해 보았지만 이처럼 성대하고 질서있으며 민족색채가 풍부한 개막식은 없었다」고 극찬하며 「개막식에서 대한민국의 융성한 힘을 많이 느꼈고 아시아가 젊은이들의 우정과 에너지, 21세기를 향한 의지를 읽었다」고 피력했다.

외국인들 "원더풀 코리아"

외국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태권도의 「약동」 시범에 가장 많은 찬사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외국 기자들이 본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공개행사의 형을 모아 정리하면,

▲ 데이비드·존스(UPI통신기자)

태권도 시범자들의 커다란 구호는 부채모양의 아름다운 스타디움을 찌렁찌렁 울리게 하고도 남았다.

▲ 王文錦(홍콩타임스 사진기자)

전체적으로 고대와 현대의 이미지로 잘 조화시켰으며 분위기도 환상적이었다. 특히 인상깊었던 것은 색채연기를 뿜으며 내린 공중낙하와 막력넘친 태권도 시범이었다.

▲胡根康(新華通訊社 외신국 기자) : 식 전·후 공개행사를 통해서 한국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한국의 삶의 양태를 보여 주었다.

태권도 시범은 참으로 의미있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의 전통무술인 太極拳과 유사하나 이보다 한층 세련되고 유연한 동작을 표현했다.

▲島田公博(요미우리 신문 체육부차장) : 태권도는 감명 깊었다. 도약하는 한국인의 기상이 이들 젊은



7개의 금메달획득보다도
더 감명깊게 태권도를 알린
태권도시범 「약동」

천지를 뒤흔들듯 민족의
합성이 울려 퍼졌다.
오천년 역사를 면면히
이어오면서 다져온
민족의 저력은
마침내 자라나는
내일의 주인공들인
소년·소녀의 가슴으로
부터 나왔다.
이 얼마나 힘찬
도약의 울림인 것인가.

이들을 통해서 표현된 것이 아닌가 한다.

성화가 수도 서울에서 타오르고 장엄한 광파제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처럼 「약동」은 세계인들의 가슴에 그들의 느낌을 보고 느낀 그대로 전해줄 기자들에게 한국의 한 상징을 태권도시범에서 보도록 한 것이다.

유고 U대회개막식에 태권도 시범단 초청

9월 23일, 태권도 시범단 「약동」의 열기는 개막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기도 했다.

87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집행위원장인 블라드미르·페조 일행은 9월 23일 이세기 체육부장관을 예방하고, 내년 7월 유고슬라비아의 자그레브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

버시아드 대회에 한국의 참가문제 등을 협의하는 가운데 페조위원장은 「아시안게임 개막행사에서 한국의 전통무용과 태권도 시범에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한국고전무용단과 태권도시범단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초청하고 싶다고 했다.

이처럼 세계각국의 준비위원회가 태권도시범단을 초청하고자 하는 교섭이 이미 여러군데서 들어오고 있다고 이규형 사범은 전했다.

이번 86대회가 88대회의 디딤돌이었고 86아시안게임 개막식이 88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것이라고 볼 때 이번 대회가 너무 잘해 88개막식에 무엇을 더 어떻게 잘 내놓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그러나 늘 자랑스러움은 오래 지키고 가꾸어야만 빛나는 견고한 보석처럼 우리의 것으로 남을 것이다.

태권도 발전에 7개의 금메달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한 것은 역시 「약동」을 연출해낸 관계자(안무:김봉기, 이규형, 강형국, 지도:모영환, 장명수 김성열, 이상덕, 인술 교사:김용환), 어린이들, 비호태권도시범단원이었다. 누구보다도 수고해 준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들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약동」의 주인공들이다. 88년엔 더 크고 더 멋진 태권도를 세계인에게 보여야.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의 태권도 참가국에 대한 전력분석

총 평



이승국코치

태권도가 이제 국제 스포츠로서 아시안게임에 28개국 이상의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국민들의 성원 속에 중주국의 면모를 자랑하면서 마치게 된 것을 태권도인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개막식의 광파르가 울려 퍼지면서 열린 15일은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태권도 중주국으로서 8체급의 금메달을 획득하여야만 일본을 물리치고 2위로 오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된다는 책임감을 안고 시작된 것이다.

개막식의 식전행사로서 태권도의 시범은 박진감이 넘쳐 흘러 태권도 속에 한국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심어 놓은 것이다.

그동안 태권도대표선수팀은 태릉훈련원에 입촌하여 전용체육관이 없이 전문기술훈련 시간이 되면 코칭스텝 4명이 상의하여 한국체대 체육관 또는 육군사관학교 체육관

에서 훈련을 하였다.

체력훈련은 근력, 순발력, 스피드, 유연성을 단계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과 색어킷트 트레이닝의 전문체력에 맞는 항목을 정하여 주 3회 체력단련을 하였고 하루에 한체급씩 경기를 마쳐야 하겠기에 지구력을 필요로 한 크로스 칸쥬리, 오래달리기(400×10회) 등 허들넘기, 언덕트레이닝, 인터벌 트레이닝을 실시하였다. 물론 대표선수들은 장기간 합숙훈련을 통해서 계획적이며 단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았다. 힘든 훈련과정을 통해서 체력과 기술을 숙달시키며 보완, 수정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본다.

훈련원내에서의 생활도 타에 모범이 되어 칭찬을 받는 선수가 되었으며 역시 무도인의 정신이 깃들었다는 태권도인의 모범적 생활을 하였다.

훈련원에 설치된 아시안 게임

전체급 석권을
노렸던 한국은
밴텀급 2차전에서
요르단의 라비비디
선수에게 패함으로써
종주국 태권도의
전력을 재점검해보는
교훈을 남겼다.



알려주는 전광판의 숫자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싸인을 보고는 긴장감이 더욱 더 고조되었고 선수들은 마지막 마무리에 야간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열을 올리려는 자세였다.

선수단의 생각은 8체급 가운데 전체급이라도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코칭스태프에게 돌아 올 것이며 전체급 금메달이면 종주국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코칭스태프들은 더욱더 책임감이 무거웠던 것이다.

현재의 우리는 많은 국제대회에서 종주국으로서 기술이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안일한 생각으로 외국선수들의 기술정보나 명단조차 파악 못하고 또한 상대선수의 장단점을 파악 하지 못한 채 무조건 훈련한 것으로 경험을 토대로한 훈

련방법 밖에 되지 못하였다고 본다. 기술개발은 상대선수의 체격조건, 기술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국내선수들과 연습경기를 통해서는 득점위주와 찬스로밖에 급급한 나머지 기술의 개발은 스피드를 발달 시킬 뿐이다. 자주 국의 친선경기와 전지훈련을 통한 훈련이 필요함을 느꼈다. 또한 협회 전문지도자를 국외경기에 파견하여 외국선수의 기술 정보파악이 시급하고 전임코치제도를 두고 연구하며 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태권도의 국제스포츠로서 종주국의 면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운영에 있어 국제심판의 미숙한 점도 있다. 물론 국제심판이면서 숙련된 심판으로서 모든 경기운영에 대해서는 성숙되었다고 보지만

국제대회 때마다 국제심판이 경기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경기의 흐름을 끊어 놓기 때문에 관중으로 부터 흥미를 잃게 하는 경향이 있다.

기술면



주신규
코치

국제스포츠로 발전한 태권도의 기술은 다양성면과 스피드면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 국제경기를 치루면

외국선수들이
경기운영 기술만 익히면
중주국 선수들과 멀지 않아
비등한 경기의 결과가 될 것으로 본다.
한국대표선수는 꾸준한 기술개발을 하여
도전해 오는 각국 선수들을
월등한 기술로 제압해야 한다.

서 국내선수의 기술이 세계각국 선수들의 본보기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평준화가 되었다고 본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1985년 9월 서울에서 있었던 제7회 세계선수권대회, 1986년 4월 호주 "다윈"에서 있었던 제7회아시아선수권대회로 14년간 국제시합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아프리카 여러지역에서 해마다 열리는 선수권대회를 치루면서 기술향상이 된 것을 증명해 준다. 이것은 외국 선수들의 타고난 체격조건이 기술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선수생활을 했던 코치들이 국외로 파견되어 보급된 것이라 생각된다.

금번 제10회 아시안게임에 태권도가 채택되므로써 각국의 관심도는 세계선수권대회나 아시아선수권대회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아시아 각국에서 태권도의 모든면을 중요시 했으리라 믿는다.

우선 한국팀을 말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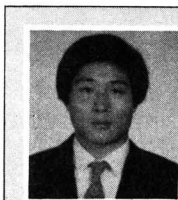
태권도 경기에 있어서 모든 기술동작은 나무랄데가 없었다. 그러나 보완되어야 할점은 첫째로, 단일

공격기술이 아닌 다양한 기술동작으로 과감성있게 공격을 해야겠고 둘째로, 뛰어차는 기술동작의 정확성을 가져야 하며 셋째로, 받아치기에 있어서는 단일공격으로 찬스를 잡아 정확하게 상대방을 받아차 K.O로 시합을 끝낼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야겠다. 그리고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선수들의 체격조건을 보아 훌륭한 기술개발이 되었으리라 생각 됐으나 생활환경이 가져오는 나태함 때문인지 태권도 경기 기술개발이 저조하였다. 이란, 요르단 선수들의 서구적인 체격조건으로 경기기술의 공격과 받아차기 기술이 향상되었으며 스태플동작을 이용한 기술이 더욱 돋보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선수들에 대해서는 낙후된 기술이겠지 하는 생각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정리된 기술은 아니지만 뒷차기 기술과 얼굴공격기술이 우세함을 이끌어 운메달 3개로 좋은 성과를 얻은것 같았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태권도 경기기술은 준결승전에 오른 선수는 상당한 수준의 경기기술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선수와 기술차이는 있지만 계속적인 국제경기를 통해 향상 되리라 본다. 외국 선수들이 경기운영 기술만 익히면 중주국의 선수들과 멀지않아 비등한 경기의 결과가 될것으로 보고한 국제대표선수는 꾸준한 기술개발을 하여 도전해오는 각국 선수들을 월등한 기술로 제압해야 한다. 이것은 태권도인의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나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노력이 없으면 훌륭한 기술개발의 발전이 없으리라 믿는다.

체력면



김중의
코치

체력은 선천적인 체력과 후천적인 체력으로 나눌수 있다고 본다. 선천적인 체력은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며 후천적인 체력은 훈련을 통해서 스피드, 순발력, 근력, 지구력, 유연성 등을 점점 발달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력은 훈련을 시키면 후천적보다 더욱 빨리 발달하여 향상을 빨리 볼수 있다고 본다. 외국선수들은 체력보다 타고난 체격조건이 좋기 때문에 점점 위협을 가하면서 도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선수들은 체력면에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대변천의 흐름에 따라
국제스포츠로서 태권도는
기술위주의 수련으로 변해가고 있다.
꼭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과
우승하면 국가에서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전리품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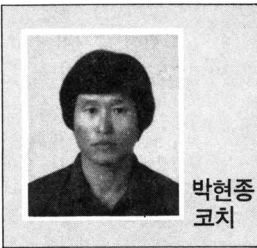
까지는 태권도 중주국의 면모를 과
시하였지만 외국선수들이 한국선수
들의 훈련량 만큼 훈련을 한다면
중주국의 태권도는 일본의 유도처
럼 무너질 것이라고 본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대표선
수들의 체력은 장기간의 합숙훈련
으로 계획된 훈련 프로그램에 의한
훈련을 하였기 때문에 1회전 부터
기술공격을 해도 지구력과 스피드
가 떨어지지 않았으며 안정된 경기
운영속에 착실한 득점 경기를 하였
다 본다.

웰터급의 SEYED HASSAN
ZAHEDI (이란) 선수는 체격, 체력
면에서 훌륭한 선수이다. 경기운영
면에서 숙달만 되면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본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말레이시아,
싱가폴, 필리핀, 태국 등 선수들의
체력은 3회전을 통해서 안배해서
경기를 하지 못하고 1회전에 체력
소모를 너무 하였기에 3회전을 통
한 기술은 체력의 밀반침이 되지 못
하였다. 특히 서구적 스타일에 가
까운 이란, 요르단 선수들의 체력
은 선천적인 체격과 체력으로써 기
술향상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
었다고 본다.

정신면



박현중
코치

본래의 태권도는 무도로서 예의
와 정신면에 바탕을 둔 스포츠이다.
시대 변천의 흐름에 따라 국제스포
츠로서 태권도는 기술위주의 수련
으로 변해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무도정신이 남아 있지만 점점 태권
도의 정신이 사라져 꺼질것같아 걱
정스럽다. 이것은 지도자나 선배들
이 잘 지도함으로 인하여 계승되며
태권도 중주국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다. 한국대표선수들의 경기에 임
하는 태도는 중주국의 선수답게 예
의면에서 잘 지켜나가고 있지만 꼭
이겨야하는 부담감과 우승하면 국
가에서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신을 전리품에 신경을 쓰는 경우
가 많다.

외국선수들의 경우는 한국선수가
아닌 타국선수와의 경기에 임하였
을 때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적극
적이고 책임감있게 공격하며 방어
를 하는데 한국선수와의 경기에서
는 소극적인 경기를 하는 것은 기술
적인 차이도 있지만 먼저 한국선수
에 대한 정신적인 위압감 때문이라
분석 할 수 있다.

제 7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탈
리아의 DI COSTANZO GEREMIA
(플라이)선수는 훌륭한 기술을 가
지고 있고 많은 국제경기를 통하여
경기운영면에서도 뛰어난 선수이지
만 한국선수와 준결승전에서는 자
기의 기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
고 패하는 것을 보았다. 그 선수의
말은 나는 한국사범에게 배웠고 나
의 스승은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한
국선수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는 생각 때문인것 같았다고 하였다.
이 선수는 먼저 정신적인면에서 경
기전에 패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선수들이 한국선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앞으로의
국제경기에서 전체급 석권이란 어
려워 질 것이다.

간략하게 이번 제10회 아시아 경
기대회에 대한 전력분석을 해 보았
으나 중주국으로서 또는 태권도가
국제스포츠로서 지금보다 발전할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본다.

특히 신체조건이 우리보다 유리
한 외국선수들에게 중주국의 태권
도가 우승할 수 있는 길은

○현재의 득점을 차등제로 채택
하는 것.

○지도자의 전문화.

○외국 전지훈련을 통한 기술개
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화는 꺼졌어도 금메달의 영광은 영원하다

제10회서울아시아경기대회의 가장 큰 성과라면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새삼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개의 금메달을 따낸 태권도 선수들은 대표선발전을 거쳐
태릉훈련원에서 의욕과 투지를 불태우며 피와 땀을 쏟았기에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해 낼 수 있었다고 본다.
빛나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진정 국가의 기쁨을 맞본 순간에
선수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금메달 장도의 포문 열어



핀급 이종선

대회 첫날 핀급의 이종선 선수는 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의 에피외·트리야지 선수에게 2회 종료 후, 기권승을 거두고 태권도 금메달의 장도의 포문을 여는 영광을 안았다.

동안(童顔)의 금메달리스트가 손을 흔들자 경기장은 환호와 기쁨의 열기로 가득찼고 태극기가 오르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가슴에는 뜨거운 열기가 솟았다.

이날 경기장에서 아침부터 내내 이선수의 경기를 지켜본 이선수의 할머니는 내내 기쁘다는 말만 할 뿐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대견해 하였다.

이 선수는 무엇이 가장 하고 싶느냐는 질문에 「떡볶기와 라면이 먹고 싶다」고 멋진 미소를 띄우기도 했다.

이 선수가 태권도를 하기 시작한 것은 광희국민학교에 입학해서 전관선 사범의 권유에 의해서였는데 늘 시험에 나가기만 하면 지고 돌아오는 어린시절의 상처(?)를 간직해야 했다고 한다.

이러한 오명은 배명중학교 3학년 때 최재혁 감독과 양승박 코치의 추천으로 최우수 선수상을 탔을 때 말끔히 씻었으나, 1983년도 동대문상고에 입학하여 봄이 가고 여름이 왔을 때 예전부터 아프시던 어

머님의 병이 악화되어 불귀의 객이 되자 아무것도 못하고 운동을 포기하다시피한 시절을 보내어야 했다.

다시 태권도복을 여미고 정신을 가다듬기는 국가대표 코치인 주신규씨를 만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국제대회로는 첫 출전이기도 한 아시안게임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차지한 것이다.

의지의 사나이 영광의 파노라마 장식



플라이급 김영식

아시아체임의 금메달리스트 중엔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역경을 이기고 금메달을 향한 집념으로 의지를 실현한 선수들이 많아 화제를 뿌리며 감동의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 태권도 선수들 중에 특히 김영식 선수는 어려움을 헤치고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건 의지의 사나이.

아버지 김정웅씨와 어머니 이원순씨는 경기를 지켜보다 아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자 기쁨에 앞서 그동안 너무나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도복한벌 사주지 못한 가슴아픔으로 눈시울을 적셔야 했다.

김영식 선수는 국민학교 때 부산 신인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대학 졸업 때까지 부산에서 한번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는 화려한 전적을 갖고 있으나, 그 뒷편에는 가정형편으로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도 진학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어야 했던 때도 있었다.

김선수는 57회와 60회 전국체전에서 일반부 핀급 우승을 차지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으나 국제대회 선발전에서는 4 차례나 최종전에서서는 바람에 2등선수를 면치 못해 「국내파 선수」이기도 했다.

84년도 7월에 군에 입대 한 후 다음해 4월에 세계선수권대회 선발전에서 처음으로 국가대표 1진으로 선발되어 드디어 10년간이나 버텨왔던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고 한없이 울었다고 한다. 그 기쁨은 9월 말 세계선수권대회 우승과 86년 아시아체임대표선발전 우승을 거쳐 5월에 체육훈장 거장상을 탔고 아시아체임 플라이급 우승이라는 영광의 파노라마를 이룩했다.



매트위의 불어우 동쾌한 KO승



한재구선수는 결승전에서 요르단의 사메르·카말 선수를 맞아 2회30초만에 강력한 오른발 뒤후려차기로 안면을 강타, KO승을 거두고 3번째의 금메달을 국민들에게 안겨 주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흰 도복에 검은 띠를 매고 다니는 큰형(한영구)의 품이 멋있다고 생각하던 중형의 권유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때는 남들의 우상이라도 된 듯 했다고……

또한 한재구 선수는 만능선수로서의 재질을 갖고 있어 축구부에 들어 축구를 열심히 했으나 중학교때 축구부가 없고 태권도부가 있어 태권도부에 입단, 오직 한 종목만 열심히 하겠다고 작정, 「남들 공부할 때 나는 운동을 한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운동에만 전념했다. 한 선수의 생활신조 또한 「노력하는 자에게만 영광이 돌아온다」는 것.

한재구 선수의 시합을 보기 위해 경기장에 나온 가족 친지들은 30여 명이나 됐는데 한선수의 어머니는 한선수의 승리에 그동안 뒷바라지는 본인이 하자는 대로 해주었을 뿐이라며, 체중 때문에 고심했던 아들 때문에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는데 이젠 편히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였다.

승리를 거둔 후 소감을 묻자 주성중 때부터 청주대학시절까지 지도해준 정만순코치(현, 청주대학교수)와 소속팀인 체청시청의 감독·코치

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매트 위의 여우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기술이 다양하며 게임운영이 노련한 한선수는 88년까지 선수생활을 계속한 뒤 지도자의 길로 나서 한국의 체육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오기에 찬 신념이 한재구 선수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

10대의 돌풍 88금메달감으로도 기대모아



라이트급 박봉권

· 1968년 2월 20일생, 한국체육대학 1년에 재학 중인 18세의 박봉권 선수는 아시안게임에서 10대의 돌풍을 일으킨 선수 중 한명.

태권도대표선수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리다. 국민학교 1학년 때 주위의 친구들이 태권도장에 다니길래 호기심으로 따라나섰다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여 83년, 84년 대통령배 우승을 비롯, 지난해 9월 제 7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연소(동성고 3년)선수로 출전하여 우승을 차지하면서 신인강자로 떠올랐다. 그러한 여색은 86년으로 이어져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늘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살아 가는 신조라는 박선수는 이러한 여

세를 몰아 88에도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고.

이중발, 뒤후리기가 주특기이나 빠른 스피드가 부족하다는 자신의 단점을 잘 알고 있는 박선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많은 태권도 스타.

코가 너무 잘생겨(?) 박코가 별명인 그는 시합전에는 머리카락·발톱을 자르지 않는다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

경기전후의 버릇은 「침묵」이라고 대답한 박선수는 나이 어린 선수답지 않게 침착하게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 가장 감명깊게 읽은 책이 헤르만헷세의 「지와 사랑」이라는 그는 어찌면 「나르시스」를 닮고 싶어 했는지도 모른다.

운동만 잘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박선수는 하루 스케줄이 거의 운동이지만 시간나는대로 책을 보고 배워 체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과학적인 태권도로 발전시킬 꿈을 키우고 있다.

파란만장한 희비의 쌍곡선 끝에 금메달 끝인



웰터급 문중국

「흔들이」문중국 선수는 웰터급 첫게임에 이란의 S.H. 자헤디 선수를 맞아 어렵게 2차전에 올랐다. 자헤디 선수는 월등한 신체적 조건

과 다듬어진 기량으로 열차기와 뒷차기에 연결 뒤후리기는 가히 놀랄 만큼 위협적인 선수로 제 6회 아시안선수권대회 3위 입상자이기도 하다.

2남 1녀의 막내로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자라 개구쟁이로 소문이 났으며 장난꾸러기 중의 꾸러기이기도 했다.

축구·배구·농구 등도 수준급이며 육상과 배드민턴은 국민학교 때부터 해서 높이뛰기로 국민학교 시절에 전국소년체전대표로 출전할 만큼 운동이라면 뭐든지 잘한다.

태권도는 경북체육중학교에 진학하여 육상을 하다가 2학년때 태권도부가 창설되면서 윤용일 감독과 윤중국 코치의 권유로 태권도로 전향,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파란만장한 태권도의 희비의 쌍곡선을 그렸다.

경북체고에 입학해서 발가락부상을 입어 3개월간 운동을 하지 못했으며 2학년 때 전국체전 2위, 제16·17회 대통령기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한국체대에 입학, 2학년 때 국가대표선수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예선에 탈락, 운동을 포기하기도 한 좌절의 시간을 보내어야 했다. 뼈를 깎는 연습 후 지난 7월 월드게임을 출전하게 되었는데 시합 보름을 앞두고 허리부상으로 5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가운데 월드게임을 우승하였고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그 끈질긴 승부근성으로 오늘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88올림픽까지 참가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문중국선수는 시합 때문에 잠을 못갔으며 「잠잠실겅 자고 싶습니다」-고 한다.



전국체전 4연패의 저력으로 금메달 따낸 「펄프」



미들급 이계형

「부모님께 이 기쁨을 드립니다. 저를 지도해주신 코치, 학교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87cm의 키에 83kg의 몸무게인 거구 이계형이 미들급에서 1회전 부전승 후 2, 3차전에서 바레인 과 일본 선수를 득점에서 4:0으로 판정승을 거둔 후 결승전에서 요르단의 아하마드 알리를 맞아 몸통 앞차기, 옆돌려차기 등으로 연속 득점 판정승을 거두어 금메달을 목에 건 후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울린 소감의 첫마디였다.

국민학교 시절에는 육상과 배구를 했었고, 중학교에 들어가 배구부가 해체되면서 운동생활의 중지부를 고하러던 찰나에 권감수 관장의 권유로 태권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완고한 부모님의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관장이 직접 부모님을 설득하여 그 때부터 태권도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다리 교교시절부터 전국체전에 전남대표로 참가하여 63, 64, 65, 66회 4연패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으며 85년도 월드컵에서 1위, 체 육훈장 기린장을 수상했다.

시합 때는 공격형이라 「펄프」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나 상단(上段) 발이 없는 것이 단점이다.

조선대학교에 재학중인 이 선수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부모님을 꼽고 있으며 체력이 다할 때까지 태권도를 하고 그 후에는 지도자로서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

60만 대군에게 이 영광을



헤비급 강승우

상무팀 소속으로 현재 군인인 강승우 선수는 「60만 대군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부대장님, 감독님,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군인답게(?) 감사를 드렸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으나 다른 국가대표선수들보다 좌절이 많았는데 그것은 시합에 출전할 때마다 번번이 겁을 먹어 그랬는지 발차기 한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퇴진해야 했던 것이다.

지난 해 제 7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7체급 모두 금메달을 땀는데 강선수만이 은메달에 머물러 그때의 좌절감도 굉장했었다고 한다.

군대에 입대한 후 4개월이 지나자 운이 좋아 그랬는지(?) 대표선수로 발탁되어 아시안게임에 출전. 그동안의 패배를 설욕하는 한판을 벌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상무팀에게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하던 된다」는 좌우명을 갖고 태권도에 입해 왔다는 강선수는 10년 후의 자화상을 「유능한 사업가」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다.

87년도에 군대를 제대한 후 사업가의 길을 걸겠다는 강선수는 아시안게임 태권도경기에서 금메달의 대미를 장식함으로써 영광스런 퇴진의 길을 마련했다고 본다.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과 포상금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나

불꽃튀는 각축전을 벌인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의 막이 내렸다. 국가에는 영광을 국민들에게는 놀라운 잠재력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게 해준 이번 대회의 주역은 가난과 허기를 이기고 피와 땀이 얼얼한 인간드라마를 연출해 가슴 뭉클하게 한 선수들이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메달리스트들에게 많은 포상금과 격려금 그리고 경기력향상 연구 연금이 돌아갔다.

육상의 3관왕이란 영광 뒤에 맨 발로 트랙을 돌던 임춘애의 빠른 앙상한 모습 뒤에 숨겨진 가난이 세상에 떠돌씩하고 연민의 환호를 보냈을 때 그녀에게 돌아간 1억 5천만원의 포상금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여겼다.

태권도 선수들도 이번 대회로 은장 1명, 동장2명이 연금을 받게 되었다. 총 1백66명의 연구 수혜자가 경기력향상 연금을 받게 되었으며 연구금외에도 경기단체나 사회 각계에서 주는 포상금, 격려금이 푸짐했다.

지난 83년도부터 실시되기 시작해 경기력향상에 큰 활력소 구실을 해온 체육인복지사업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은 국민체육진흥재단(이사장 金宗河)의 사업 중에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

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여기서 경기력향상 연구연금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의 대상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에게 지급된다.

연금의 등급과 기본 평가수치는 금장 90점, 은장 30점, 동장 20점, 준금장 45점, 준은장 15점, 준동장 10점이다.

국제대회 및 평가수치

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4위	5위	6위
올림픽대회	90점	30점	20점	8점	4점	2점
세계선수권대회	30점	7점	5점	-	-	-
세계대학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10점	2점	1점	-	-	-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지급표

연구구분	금	액	연구구분	금	액
금 장	600,000원		준 금 장	350,000원	
은 장	300,000원		준 은 장	150,000원	
동 장	200,000원		준 동 장	100,000원	

이번 아시아게임에서 태권도종목으로 경기력향상 연금을 받는 수혜자는 은장에 한재구(페더급), 동장에 김영식(플라이급), 박봉린(라이트급) 선수가 해당되어 태권도 선수로 연구수혜를 받는 대상자는 총 11명이 되었다.

연금을 새로이 받게 된 경기력향

상연구연금 수혜자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한재구

본적: 충북 청주시 사창동 248
주소: 청주시 내덕동 송림주택 301
소속: 체천시청
학력: 청주대학교 졸업
과거포상기록:

1983. 10. 체육훈장 기린장

1984. 12. 체육훈장 기린장

1986. 6. 대통령 표창

1986. 10. 체육훈장 맹호장

공적사항:

1983. 10. 제 6회 세계선수권대회 페더급 1위

1985. 9.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페더급 1위

1986. 10.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태권도경기 페더급 1위

김영식

본적·주소: 부산 사하구 장림 2동 341-7

소속: 국군 체육부대

학력: 동아대학교 졸업

과거포상기록:

1986. 6. 체육훈장 거상장

1986. 10. 체육훈장 맹호장

공적사항:

1985. 9.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플라이급 1위

1986. 10.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태권도경기 플라이급 1위

기존연금 수혜자

순번	성명	연금구분	공적사항
1	김종기	은장	1977. 12. 제 3회 세계태권도대회 1위 1980. 3. 제 4회 세계태권도대회 1위 1983. 10. 제 5회 아시아태권도대회 1위
2	정국현	은장	1982. 12. 제 5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위 1984. 12. 제 6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위 1985. 9.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위
3	최정도	동장	1975. 9. 제 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위 1973. 12. 제 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위

4	허송	동장	1975. 9. 제 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위 1977. 12. 제 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위
5	박오성	동장	1980. 3. 제 4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위 1982. 12. 제 5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위
6	김상천	동장	1980. 3. 제 4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위 1982. 12. 제 5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위
7	유영합	동장	1975. 9. 제 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위 1977. 12. 제 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위
8	이동준	동장	1984. 12. 제 6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위 1986. 6.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위

박봉권

본적: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산118

주소: 도봉구 미아5동 416-106

소속 및 학력: 한국체대 1년재학

과거포상기록:

1986. 6. 체육훈장 거상장

1986. 10. 체육훈장 맹호장

공적사항:

1985. 9. 제 7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라이트급 1위

1986. 10. 제 10회 아시아경기 대회 태권도경기 라이트급 1위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외에도 일상장려금 지급규정이 있어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개를 획득하고 평가수치에 의한 연금해당이 되지 아니하는 선수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었는데 연금 및 장려금의 수여식이 10월23일 오후 2시 태릉선수촌 다목적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날 일시금을 받은 선수는 이종선(핀급), 문종국(웰터급), 이계행(미들급), 강승우(헤비급) 등 4명의 금메달리스트였다.

연금 수혜자들에게는 매월 달일 연금이 지급되며 죽는 달까지 받게 된다.

또한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지도한 이승국, 박현중, 주신규, 진중의 코치에게는 경기지도자 연구비가 지급되었다.

10월 23일 연금수여식 마치고 협회 방문

연금수혜자 및 금메달리스트 포상자들과 코치 등 아시아경기대회 영광의 얼굴들이 연금수여식을 마치고 협회를 방문, 엄운규 부회장, 황춘성 전무 등 협회 임직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치하했다.

엄운규 부회장은 「연금수여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앞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길 당부하였다. 황춘성 전무는 「이란, 요르단, 인도네시아 등이 강적으로 부상하였다」고 전제한 뒤 「국제대회에서는 한재구 선수와 같은 경기운 영능력을 길러야 함은 물론 체력보강 및 침착한 자세로 게임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이번 대회를 분석한 뒤 강승우선수에게는 부상당한 다리가 많이 나았는지 선수들에게 동정을 묻기도 하며 내년 5월에

거행되는 핀란드월드컵대회에 대비, 동계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은 선수들이 모처럼 환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은장을 받게된 한재구 선수는 88올림픽 때에도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하며 이번 연금으로는 「장가밑천에 쓰겠다」며 매트위의 불여우가 부끄러움을 타기도 했다.

김영식 선수는 1계급 특진되어 「김하사」가 되었다며 힘나는데까지 선수로 뛰겠다고 했다.

김선수는 연금을 받게되어 어려운 가정형편에 호구지책을 마련해 주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며 웃음을 띠었는데 내년 2월 제대 후 들어갈만한 실업팀이 없는 현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앞날의 진로 문제를 걱정했다. 이에 대해서 김용휘 사무국장은 「태권도선수들의 지속적인 태권도 활동을 위하여 제도적 방안을 협회와 선수 및 지도자가 삼위일체로 합심하여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박봉권 선수는 연금을 부모님께 모두 드리겠다고 태권도와 학업을 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아시안게임 응원시범 우리나라 응원문화 정착의 시발점

태권도 응원시범단

응원을 매개체로
국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
국가 행사에 대한
나라사랑의
한 방식으로
승화시키겠다고…….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응원 시범단은 점선시간을 이용해 또 다른 열기와 흥겨움으로 관중을 사로잡았다.

“함사시오-” 하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뽕가리와 민속춤이 흥겹게 펼쳐졌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응원시범을 기획한 「연 하나로 기획」 팀은 응원을 매개체로 국민대화합의 장을 마련, 국가 행사에 대한 나라사랑의 한 방식으로 승화시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각자 지원하여 연하나의 기획에서 선발, 대한민국응원단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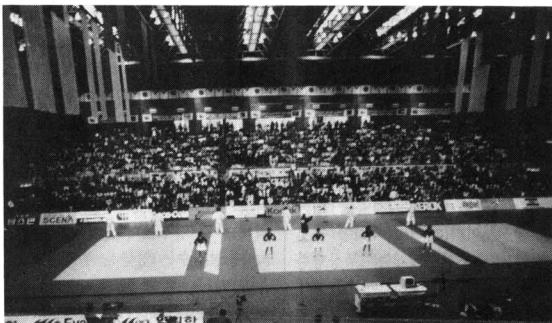
응원소재 선택은 서울, 경인, 성남지역에서 무자격으로 포출한 천

명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응원의 소재를 선택했고 프로그램 내용의 기획은 연하나로 기획에서 전문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기획한 것이라고 한다.

지난 9월 1일에 대한민국응원단 자원봉사자 창단식을 가진 이후 2일부터 15일까지 기획실 연습장에서 세부적인 연습에 돌입하여 16일부터 19일까지 실전적 총 리허설로 들어갔다.

출연자 한중구(26. 연하나로 기획)씨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연하나로 기획에서 인원을 확보하여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웠습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아낌없는 격려를 받은 때가 가장 즐거웠고 보람이 있었읍니다. 또한 태권도는 우리나라가 중주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권도를 응원단이 널리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해 보람을 느꼈읍니다」고 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우리나라의 응원문화정착에 시발점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응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털어 놓았다.



부드러운 곡선과 절도있는 동작의 조화

은광여고생들이 펼친 태권무

태권도경기가 펼쳐진 수원 성군 관대 체육관에서는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70여명으로 구성된 은광여고 88태권 무용시범단의 태권무 시범이 흥겹게 펼쳐져 관중들을 흥미롭게 했다.

우리 고유의 태권도 동작에 에어로빅 디스코풍의 리듬을 흡수하여 리드미컬하게 펼쳐진 태권무, 원래는 태권무용·호국무용이라 했으나 지금은 88올림픽까지 겨냥해 세계에 보급한다는 뜻으로 「88태권무용」으로 명명되어 아시안게임에 선을 보이게 된 것이다.

88태권무용은 그동안 1977년도부터 각종 개막식 행사, 축제행사 등에 200여회 시범을 보여왔는데 특히, 1982년 서울 시민체전에서 1300명이 마스게임을 펼친 것을 선두로 하여 서울시 교육위원회로부터 88태권무용 마스게임 시범학교로 지정됨으로써 태권마스게임의 선구자가 되었다.

88태권무 시범내용은 태권도에 전통탈춤의 춤사위를 가미시켜 힘과 멋, 흥이 함께 어우러지는 「말뚝이 춤」, 일명 태권탈춤과 태권도의 품세 및 기본동작들을 우리민족의 씩씩한 기상과 투지로 보여주는 「변화무」, 태권도만이 갖는 독특한 예



술성을 환상적으로 표현해 현대무용에 가까운 「환상의 태권무」는 부드러운 곡선과 절도있는 동작이 어우러진다. 또한 「3 연속 돌려차기 격파」, 「쇠뚝이 춤」과 「태권댄싱」으로 우리민족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88태권무용시범단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해주 감독과 차용훈 코치가 지도하고 있는데, 시범단 주장인 김영미 (3학년 12반) 양은 하루에 2시간씩 매일 연습을 하였으며, 시범을 앞두고는 토요일, 일

요일에 주로 연습하였다고 2시간의 연습과정을 말하며, 「여자들이 때문에 꼭 겨루기를 해서 메달을 따는 즐거움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뛰고 땀흘리는 것이 좋으며, 학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또한 윤성경 (2학년 3반) 양은 「시범을 하는 날 어린아이들이 싸인해 달라고 몰려오던 일이 가장 재미있고 한편 보람도 느꼈다」고 하며 그동안 준비해오면서 느낀 피로가 몽땅 가셨다고 환한 웃음꽃을 피웠다.

극기로부터 분출되는 힘의 아름다움

태권도공식기록영화제작 이두용감독 인터뷰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했던
이번 대회는 우리 민족의 가슴에 길이 길이 남을
감동의 드라마였음에 틀림없다.
홍분과 감동의 열기로 가득메워진 경기장엔
각 경기종목별로 공식기록영화를 찍는 9명의 감독들이 있었다.
이 자리에선 태권도 경기의 기록영화와 더불어
선수들이 연출하는 강한 힘의 대결에서
뿜어나오는 극기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며
「누구보다도 태권도를 사랑한다」는
이두용 감독을 만나보았다.

태권도 경기가 너무 점수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기(氣)가
펼쳐지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승부에 매달리기 쉽지만
극기로부터 연마한 기술을 발휘한다면
「흥미있고」 「아름다운」 경기가
될 것…….

▲「86아시아드」는 어떻게 제작하게 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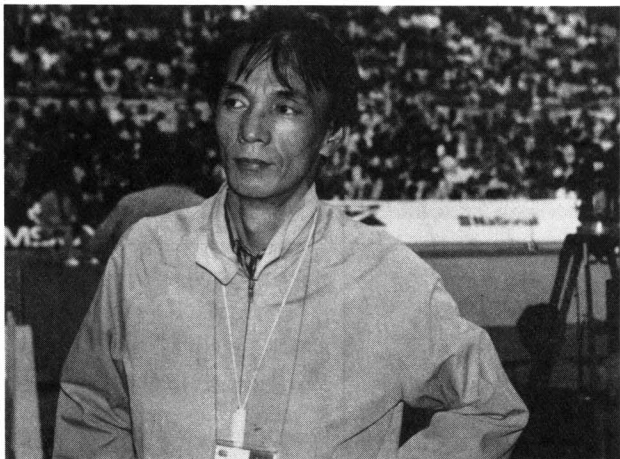
-아시아게임조직위원회에서 국립영화제작소에 아시아게임 기록영화를 의뢰하여 9명의 감독이 경기종목별로 나누어 맡게 되었습니다.

극영화감독으로는 저를 비롯해 임권택, 이장호, 배창호씨 등 4명이 기용되었는데 기록영화에 극영화감독들이 기용된 것은 기록성 못지않게 예술적가치를 추구하고자 한 의도라고 봅니다.

▲25개 아시아게임 경기종목 중에 태권도를 맡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태권도인은 아니나 고등학교때 까지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태권도의 근본정신이 도(道)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극기, 정신의 연마라는 측면을 제자신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동안 태권도가 국기(國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대접(?)을 받아 오지 못한 안타까움이 컸기 때문에 10여년 전부터 우리의 것을 예술화함으로써 태권도의 붐을 조성하고 우리의 진정한 정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아시아경기대회
태권도경기장에서의
이두용감독



태권도를 주제로한 영화를 제작해 왔습니다. 이번에 태권도를 맡게 된 것도 이러한 취지와와 관계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핸드볼과 하키종목을 맡았습니다.

▲특히 태권도의 무엇에 초점을 두고 계신지 제작의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맡은 기록영화의 제목은 「힘의 美」입니다. 기록영화이기 때문에 기록성이 기본이 되어야 겠지만 극기로부터 힘이 분출될 때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힘이 뿜어내는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태권도 경기를 촬영하시면서 느낀 소감은 무엇입니까?

-태권도 경기가 너무 점수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기(氣)가 펼쳐지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승부에 매달리기 쉽지만 극기로부터 연마한 기

술을 발휘한다면 「흥미있고」「아름다운」경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영화의 규모, 예산, 방영계획은 어떻습니까?

-9명의 감독이 각기 종목별로 20분씩의 영상을 맡았습니다. 이번 기록영화는 연말까지 완성되어 내년 초에 극장에서 상영될 계획입니다.

총 제작비는 6억2천만원이 투입되는 대작 다큐멘터리로 35만자의 필름이 사용되는데 일반 극영화 10여편 정도를 찍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일반 극영화를 찍을 때와 기록영화를 촬영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 극영화는 연출자가 의도하는 데로 찍을 수 있으나, 기록영화는 선수들이 연출하는 순간적 힘의 아름다움을 포착해 전체적으로 감동과 감흥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신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의 순간이 렌즈에 잡혔을 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촬영하면서 계속 안타까움과 순간적인 기쁨이 교차되는 감정을 맛보았습니다.

▲이번 「86아시아드」의 촬영이 끝나고 난 뒤의 계획이 어떠하십니까?

-월광무(月光武)라는 작품의 제작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무술이 근간이 되는데 특히 태권도의 혼, 즉 정신을 불어 넣는 작품입니다.

출연진은 무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해서 가을부터 촬영에 들어가 내년 추석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권도의 힘, 정신이 우리 한국인의 힘이자 정신이라는 것을 감동적으로 그려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봉사자 인터뷰

전체적인
운영면에서 볼 때
상당히 낭비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보다 작은 규모로도
알찬 살림을
운영할 수 있듯이
절약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요원이 참가하여
국제적대회를 치루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대회운영요원 3만2천4백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6천5백18명이 참가하여 통역과 번역 등
고급정신노동에서부터 안내·청소·경비·잡무에 이르기까지
온갖 곳은 일을 도맡아 성공적으로 대회운영을 이끈
그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회관계자나 국민들은 아낌없는
칭찬을 보냈다. 태권도대회에서만 전체 운영요원 331명 가운데
163명의 자원봉사요원이 참가했는데 여기서는 이들 중에
의무와 통역안내를 담당한 부녀 조장원씨와 조경미양,
보도석 자원봉사요원으로 일한 전경화양을 만나 보았다.

보도석 자원봉사요원

전경화 (이화여대정치외교과)

▲ 자원봉사를 하게된 동기는?

- 씨클(태권도씨클)에서 단체로
자원을 했습니다. 씨클 선후배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게되면 더욱 재
미있고 동료들간에 친화감도 돈독
해지리라는 매우 개인적인 동기(?)
에서 자원했지만 준비기간 중 많은
교육을 받고 또 실제로 행동하면서
어떤 사명감 비슷한 것을 갖게 되
었습니다.

▲ 특별히 태권도 경기를 담당하
게 된 까닭은?

- 태권도를 좋아해서 태권도를 배
웠고 태권도 씨클에 가입해 이렇게
태권도 경기에 씨클 선후배가 함께
자원봉사자로 참가하였습니다.

▲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개인
적인 보람이나 어려움은 무엇이었
습니까?

- 경기장이 멀어 아침 5시에 일
어나야 겨우 7시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잠이 부족한 것이 제
일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INS는 시력을 혹사시키는 작업이
라 INS화면을 계속 들여다보자면
머리가 아파지고 눈에 피로가 쌓입
니다. 그러나 왕복 5시간의 복잡
한 교통불편은 각 담당관의 배려로
수원시 내무부 연수원에서 경기기
간중에 침식을 제공받았습니다. 또
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기자들
에게 제공하는 제 임무가 다른 무
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란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기자분은 자료를
뿔아 드렸더니 고맙다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떤 기자는 매우 불쾌한 호칭으로
당황하게 만든 적도 있지만.....

▲ 이번 태권도 경기를 보면서느
낀 소감은?

- 우리의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
포츠가 되어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약물감독관 조장원씨와
통역안내 조경미양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너무 경기화에 치우쳐 「도」의 위치를 잊을까 두렵습니다.

▲ 끝으로 아시안게임의 일선에서 똘똘 봉사자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 자원봉사자 중에는 청소년원으로서 자원하신 분들이 많았읍니다. 경기 중 어느곳엘가도 그분들께서 부지런히 쿿은 일을 도맡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감사가 바로 자원봉사자 전체에 대한 저의 평가입니다.

전체적인 운영면에서 볼 때 상당히 능비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보다 작은 규모로도 알찬살림을 운영할 수 있듯이 절약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업면에 있어서 시간을 철저히 지키면서 모든 일을 질서정연하게 진행한 것은 높이 살만하며 조직이 타이트하게 구성되어 각 조직간에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약물감독 · 통역안내

조장원 · 조경미 부녀

태권도 경기에서 태권도 약물 감독관인 조장원씨와 의전요원으로

로얄스텐드에서 VIP를 영접한 조경미양은 스웨덴으로부터 부녀가 함께 자원봉사자를 나온 사람들.

이들이 태권도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아들인 조영오(永梧, 30, 4 단)씨가 태권도를 배우면서였다고 한다. 외과의사인 조장원씨는 물론 직접 태권도를 수련한 것은 아니나 태권도와 의학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며 딸 경미양도 약 2년반 정도 태권도를 배웠다.

현재 조장원씨는 스웨덴 종합 병원에서 일하다 작년에 귀국하여 인천에서 제일의원 원장으로 있다.

세계태권도 연맹의 의무부원장이기도한 조장원씨는 이번 대회에서 첫 약물감독관으로 일하게 되어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약물감독관은 유도와 수영에 각각 1명씩이 있는 실정이라고 하며 의무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톡홀름대학 석사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조경미양은 이번 자원봉사요원으로 참가하기 위해 스웨덴에서 개막전날인 9월 19일 귀국하였다.

작년에 한국에 나왔다가 자원봉사자를 뽑는다는 광고를 보고 88년

올림픽때 참가하고 싶어 참가신청을 냈다가 아시안게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88년에도 참가하게 되리라고 한다. 아버지와 함께 있어 마음 든든하다는 경미양은 “그러나 혼자라도 나왔을 것”이라며 열의를 보였다.

스웨덴어 · 영어 · 중국어를 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인접한 노르웨이 덴마크어도 가능하다는 조양은 특히 어학에 취미가 있어 졸업 후 한국에 나와 법학보다는 통역관제로 일하고 싶다고 한다. 복스러운 얼굴에 지적인 날카로움을 겸비한 조양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친구들을 사귄것도 값진 수확”이라며 즐거워 했다.

한편 아버지 조장원씨는 세계탁구이사로도 활약하고 있으면서 지난 82년도에는 스웨덴 교포자격으로 중공을 방문하였으며, 84년도에는 소련도 방문한 바 있어 정부로부터 체육훈장 백마장을 받기도 했다.

조장원씨는 올림픽 시범종목인 태권도 발전을 위해 의학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각오로 약 2년간의 연구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세계스포츠 의학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영광의 한마당서 주는 이야기들

종주국 선수이긴 요르단 라바비디선수 - 경기장 누비며 기쁨 터트려

벤틀급 준준결승전에서 한국의 홍종만 선수를 누르고 준결승전에 올라간 요르단의 라바비디 선수는 종주국 선수를 이긴 것이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했다.

관정의 순간 손이 높이 쳐들리자 홍종만 선수의 일그러진 얼굴과 정반대로 환호를 지르며 경기장과 관중석 사이의 1m이상의 광고판을 뛰어 넘어 손을 흔들며 흥겨워하며 코치와 일사 안고 선수들과 환호하며 즐거워 하는 바람에 수분간 경기를 속개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전체급 석권의 목표가 무산되는 순간이라 관중들도 처음엔 어리둥절했으나 라바비디 선수의 감격과 환희에 찬 모습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태권도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한개골 양보(?)한 것은 오히려 잘한 일이라며 한마디씩.

스포츠세계에선 영원한 강자가 없음을 여실히 증명해준 이번 대회가 새옹지마(塞翁之馬)로 인식되어 가장 적은 손실로 가장 오랜 이득을 얻은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때...

기자들 감탄사 연발 첨단기술도 금메달감

우리의 국력을 금메달 갯수로 논

하기 쉽지만 그보다 진짜 금메달감은 첨단기술에서 발휘되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INS (종합정보시스템)은 25개 경기종목의 경기내용, 선수명세서는 물론이거니와 스포츠정보, 문화, 관광, 경기행사, 인터뷰, 스케줄, 기온 등 게시판, 일반정보를 망라하고 메시지를 주고 받는 전자사서함의 역할까지 해주어 컴퓨터시스템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우리나라 정보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특히 신속 정확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기자들에게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들었다.

한 게임이 끝나 다음 게임이 시작되기전 이미 모든 기록이 배부되어 편리(?)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 너무 편리하고 신속한 컴퓨터시스템 때문에 정보가 홍수를 이루어 낭비 또한 없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격려의 편지도.....

〈태권도 선수단 안녕하십니까?..저는 대구서부중학교 1학년2반에 재학중인 지봉구라고 합니다〉로 쓰기 시작한 편지가 태권도 선수단 앞으로 보내왔다.

아저씨들처럼 태권도를 배우고 있으며 태권도는 한국 남자로서는 한

번 배울만한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는 이 학생은(태권도는 우리나라의 무예가 아닙니까)로 반문하면서 우리나라의 무예인만큼 금메달을 모두 따시길 바란다며 격려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추신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요 답장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썼다.

금메달 선수들,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작은 꼬마의 희망을 들어주시길.....

(주소 : 대구 직할시 서구 평리 3동
647-6-1 통 2 반 · 지봉구 · 우
편번호 636)

한국대표선수들 관중들 성원에 보답

10월 3일 해비급의 강승우 선수가 7번째의 금메달을 목에 건 뒤 시상식을 마치고 금메달 선수들이 경기장에 모두 나와 그동안의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큰절을 올려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선수단은 그동안 수고하며 지도해온 코치들을 행가례를 치며 자축무드로 경기장을 누볐다. 코치들도 선수들과 어울려 오랜동안 비지땀 흘리며 고생해온 선수들을 위로하며 행가례를 쳐주었다.

중공기자 태권도 심층취재

9월 30일, 메달박스로 기대를 모

은 태권도 경기가 시작되는 날 아침, 경기장은 기대와 설렘으로 속속 입장한 관중과 선수들의 얼굴엔 긴장기를 감추지 못했는데……

내외신기자석에 가장 일찍 자리 잡고 경기가 시작되길 기다리는 기자가 있었는데 오후 4 일간을 그렇게 일찍부터 나와 태권도 경기의 처음과 끝을 취재하여 태권도 관계자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한국계 교포로 중공에서 나온 朱新民(쑤신민)기자였다.

태권도에 중공이 참가하진 않았으나 태권도가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어 있고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입수 및 90년도에 중공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 대비하기 위해 태권도를 취재하고 있다는 朱新民(쑤신민)기자는 중공에선 태권도가 한국계 교포들 사이에 지엽적으로 수련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시간 등에 한국인들이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직은 중공에서 미개척 분야라고 중공의 상황을 전해 주었다.

우리의 태권도가 철의 장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기대는 우리의 노력과 중공의 관심에 합치될 때에야 가능할 듯.

VICTORY ! NEPAL

태권도경기 기간중 유난히 관중의 응원을 많이 받은 나라는 네팔팀.

한국인 코치 신재국 사범의 동안(顔顔)때문에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어필을 한 것인지 히말라야 산맥의 거대함이 신비감을 준 것인지 유난

히 네팔팀을 응원하는 관중이 많은데…….

첫날부터 그라운드에서 네팔선수가 등장하면 수원공고 밴드부도 더 신나게 풍악을 울렸고 수원의 한신체육관 수련생들은 이틀만 계속 40여명씩 나와 네팔팀을 응원했고 10월 2일은 영화군민학교의 4·5학년 85명이「네팔 네팔」을 외치며 VICTORY ! NEPAL」NEPAL WELCOME」등 현수막을 흔들며 네팔팀 응원에 나섰다.

네팔응원석엔 타 종목에서 메달 하나 건지지 못하고 일찌감치 패한 대표선수들이 태권도를 열심히 응원하며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이마 중간에 빨간 점을 붙이면 잡기를 쫓을 수 있다며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그나라 사람들이 붙이는 예쁜 점을 붙여줘 아이들은 더 신나게 응원을 해 주었는데…….

네팔팀은 응원 덕분(?)에 2개의 동메달을 예상하고 나왔다가 4개의 동메달을 안고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영웅」이 되어 돌아갔다.

이란의 가데리 금메달 때나

우리나라의 홍종만 선수가 동진 밴텀급 금메달을 요르단의 라바비디 선수가 잡는가 했는데, 물고 물리는 경기를 치루며 요르단, 인도네시아, 이란, 네팔 팀이 금메달을 놓고 악전고투하다 결국 이란의 가데리에게 안착했다.

이란은 금1, 은1개로 태권도 종합 2위를 달성해 태권도 강국으로 부상했는데 이란대표팀을 이끌고 온 강신철 코치는「더 이상 소원이 없다」고 할 정도로 금메달의 영광을 기대하며 코트로 뛰어 들어가 가데리

선수를 얼싸안고 환희의 함성을 질렀다.

관람석엔 외국인도 눈에 많이 띄어

태권도 경기장엔 외국인들의 관람도 많아 국제스포츠로서의 실상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캐나다인이라는 론 드지웁카(Ron Dziwenka)는 캐나다 알버트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태권도 부에서 84·85년도에 2년간 회장을 맡았으며 태권도 2단이라고 자기 소개.

태권도 경기가 흥미진진하며 경기에 열중했는데 많은 기술을 눈으로 익혔다고 했다. 태권도 경기장에 성인시범단과 미동국민학교 시범단의 다양한 태권도 기술의 구사와 여고생들의 태권무 시범이 좋았다고 했다.

처음 태권도를 배우기는 알버트주 에드먼트에서 6살에 전격기 사범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워 알버트에서 라이트벨트급 챔피언이 되기도 했다는 것.

알버트대학 태권도팀과 연대태권도부가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방문을 결의한 후 3차례 한국을 방문했다는 그는 태권도가 극기를 길러주고 체력증진에 힘을 준다며 무도의 신비함이 흥미롭다고 했다.

한국을 참으로 좋아한다는 그는 특히 설악산을 좋아하고 매운탕, 갈비탕, 잡채밥, 순대, 닭뿔집, 짜장면 등을 좋아한다고 열거하며 기회가 닿으면 한국어자와 결혼할지도 모른다고…….

그는 이번 10월달부터 연대 외국어학당 강사로 출강한다고 한다. *



대진추첨을 하고있는 각국 대표들

대진추첨

아시안게임 태권도 경기대회를 하루 앞둔 29일 상오10시 성균관대 체육관 2층 라운지에서 태권도 대진추첨이 있었다.

대진추첨에 참가한 17개국 대표들은 도자기병 안에 들어있는 번호가 적힌 동전크기의 표를 돌려가며 뽑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시종 한국과 대전하게 되거나 다행히 피해갈 때마다 터지는 환호와 안타까운 표정 속에서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8세대에 17개국에서 출전한 84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각 체급별로 8~12명이 대전을 치루기 때문에 1차전에서 한국을 비켜가면 메달권 진입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중주국 한국의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한국과 붙지 않은 나라는 행운이라고 잡은듯 안도의 빛을 띠우기도 했다.

핀급의 대진추첨에서 1차전에

한국과 필리핀이 맞붙게 되자 필리핀대표로 참석한 한국인 코치 홍성천씨는 테이블을 치며 낙담하는 표정을 지어 장내를 웃음으로 가득 채웠다.

플라이급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승부를별이게 되자 일본문무상의 망언으로 반일감정이 고조되던 당시라 "좋다"며 한국팀에서는 싸워이겼다고 베푸는 모습.

이날 가장 낙담한 대표팀은 핀급과 플라이급에 단 2명만이 참가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이 두 선수다 한국과 맞붙게 되어 초반에 떨어져 나가게 될 운명에 처하자 싸워볼 필요도 없다는 낙담의 표정을 지어 주위의 동정을 사기도 했다.

이날 대진운이 가장 좋았던 팀은 요르단으로 1차전에서 한번도 한국과 맞붙지 않자 요르단 대표 메킬·아사프씨는 「이제 우리는 최소한 동메달 3~4개는 확보한 셈」이라며 가장 기뻐했다.

한국대표팀의 이승국 헤드코치는

대진 추첨이 끝난 뒤 웰터급에서 1차전에 맞붙은 이란선수가 지난해 7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위 입상자이기 때문에 거의 결승전과 다름없는 경기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담당관회의 및 평가회

아시안게임 경기기간 중 운영본부에서는 엄운규부회장 주재로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담당관회의가 있었다.

매일매일 담당관별 업무사항을 점검하였고 전날의 문제점 해결에 만반을 기울이게 하여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토의하였다. 또한 그날의 경기를 마친 후 경기평가 및 결과보고 평가회의를 가져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치밀하고 성공적인 대회운영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였다.

태권도경기를 참관한 VIP

의전요원으로는 의전담당관 노우중(협회 운영부장)과 이봉(협회 총무부장), 이현숙, 김정숙, 노병희, 전홍숙, 강병권, 윤승환, 김창주, 박인규, 윤행섭, 신봉운, 최성이, 김미애, 허명숙, 김명주, 박현영, 진성원, 이병규, 김단석, 강훈식, 신유철, 강미숙, 김유미, 조경미, 배미화, 김덕진 등이 수고했다.

일정별 경기장을 찾은 VIP는 다음과 같다.

9월30일

한국 : 김운용(W.T.F총재), 이상주(ATU회장), 이규석(ATU 사무총장), 김용래(경기도지사), 김진선(상무단장)외

요르단 : Awwad Mufaddi Haddad(NOC대표).

이란 : Dr. Hassan Ghafoorifard(NOC위원장), S. Nasrollah Sadjady(NOC대표).

네팔 : Sharad Chandra Shaha(NOC위원장), Keshar Bahadur Bista(문교부장관 부처)외의 다수

10월 1일

한국 : 이태섭(과학기술처 장관), 유석보(수원시장), 박세직(SAGOC조직위원장), 김용래(경기도지사), 이하우(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조좌호(성균관대 총장 및 부총장), 서상달(체조협회 부회장), 김성집(한국대표팀 부단장), 김운용(W.T.F총재부처), 이상주(ATU회장), 이상훈(국가비상기획위원장), 정영희(국가비상기획실장), 김집(한국선수단 단장).

태국 : Homsettee Tem(태국 선수단장) 등

네팔 : Sharad Chandra Shara(OCA부회장) 등

쿠웨이트 : Abdul(선수단장)

일본 : Makoto(J.T.A회장부처)

홍콩 : Lai Yu Wing(OCA위원)

10월 2일

한국 : 유석보(수원시장), 이상주(ATU총재), 이종우(W.T.F부총재), 이세기(체육부장관), 김용래(경기도지사), 정성만(민정당정책위원회위원장), 최세창(3군사령관), 김상봉(부장검사).

일본 : Anjai minoru(선수단장) 등

홍콩 : A. de O. Saleo(OCA명예부회장)

이탈리아 : Sidney Romeo, Thea Romeo(F.I.E펜싱기술대표)

프랑스 : Henri Pierre Courtine(I.J.F유도기술대표)

네팔 : Sharad Chandra Shara(OCA부회장)

10월 3일

한국 : 유석보(수원시장), 이진연(신민당국회의원), 이상주(ATU회장), 김성집(한국대표팀부단장), 김진선(상무단장부처), 김용모(대한체육회사무총장), 장주호(SAGOC사무차장), 조동원(협회이사), 김운용(W.T.F총재), 홍종수(국가원부위원장), 이태섭(과학기술처장관) 외
요르단 : Fawaz muunfrk(NOC사무총장) 및 NOC대표 등

25개 종목 중 제일 먼저 입장권 매진

전국의 외환은행 창구를 통해 지난 8월 11일부터 입장권 예매가 시작되었는데 태권도가 25개 종목 중 가장 먼저 팔려 태권도 중주국

의 위용을 과시했는데.

태권도 경기가 수원증심지에서 7km나 떨어진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 체육관에서 개최돼 교통이 불



편하고 외지인 관계로 혹시라도 자리가 차지 않을까 걱정한 사람도 없지 않았는데 8월 27일경에 45%, 9월 12일에 80% 이상이 나가고 9월 19일에 완전히 매진되어 뒤늦게 입장권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발을 굴렀다. 성대 체육관은 금년 6월에 개관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2900 석의 현대식 체육관으로 총 9천 1백92장이 판매되었다.

이번 입장객들은 주로 체육관의 수련생들이나 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구입해 관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종주국 태권도의 면모를 보고자 몰려든 비태권도인의 호응까지 합세되었는데 협회 김용휘 사

무국장은 「우리나라에 전국 13개시도의 등록된 태권도장은 총 2천4백82개로 일반수련인구는 20만명에 이르고 이밖에 30개대학, 초·중·고교에 2백20개의 태권도 팀을 육성하고 있다고 불태 1천장의 입장권이 팔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백찬감격, 새로운 출발

86아시아 경기대회 폐막 후 행사

출전 선수단 만찬

아시아게임에서 영광스런 역사적 업적을 이룩한 한국선수단을 축하하는 만찬이 10월 7일 하오 6시부터 셰라톤 워커히ل 무궁화 그랜드볼룸에서 이세기 체육부장관 주최로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선수단 전원과 체육계 원로, 전임 체육부장관인 노태우, 이원경, 박세직씨 등과 경기단체 회장단이 참석, 선수단을 위로하며 자축했다.

86대회 성공 국민 축제

- 범국민올림픽추진위 -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가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대회로 치루어 진 것을 축하하는 '국민축제'가 백찬감격, 새로운 출발을 슬로건으로 펼쳐졌다. 이는 힘차게 뻗어가는 국민

기상과 화합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국민의 긍지를 다시한번 보여주고자 1986년 10월 8일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펼쳐졌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박세직)와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의장 남덕우) 주최로 열린 이번 대 축제는 그동안 대표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선에서 수고해준 자원봉사자 및 격려와 성원을 보내준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취지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너무 많은 초청장을 발급하여 주경기장을 찾은 초대받은 국민들이 되돌아가는 불상사가 발생해 많은 비난을 받아 좋은 잔치에 재뿌리는 격으로 운영하는 처사는 고쳐야할 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본다.

이날 축제에서는 개폐회식 공식행사 가운데 주요내용을 다시 펼쳐보였고 공개행사 때와 마찬가지로 미동국민학교 시범단과 비호 태권단원이 펼친 태권도 마스게임은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태권도 경기

'86년도 전국우수선수 선발대회

일시: 1986년 11월 4 일
~ 6 일 (3 일간)

장소: 국 기 원

서 경 무
(경기분과 부위원장)

금년도 남녀 각 체급별 최우수 선수선발을 위한 이번대회는 1986년도에 대한태권도협회나 각 연맹이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이 참가함으로써 최우수선수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수준높은 경기가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는 여자부가 신설되어 경기가 치루어졌으며 남자 1백96명, 여자 72명 등 총 2백68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4일 오전 11시부터 거행된 개회식에서 협회 김운용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금년은 86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로 체육한국의 면모를 색인한 한해로 선배들의 뒤를 이어 국위선양에 앞장 설 후진들이 본 대회를 통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선전을 당부」하였고, 이어서 상무소속의 임재익 선수가 선수대표선서를 하였다.

한편 오전 7시부터 실시된 첫날 대전 선수 총 194명의 체계에서 남자 10명 여자 6명 총 16명의 실격자가 나왔으며 9시부터 진행된 경기에서는 매제임마다 월등한 기량에 의한 백중지세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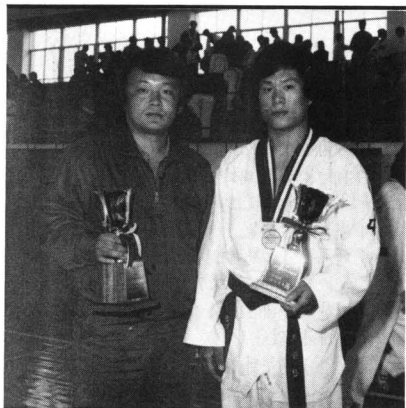
첫날 경기는 남녀 각체급 1차전과 남자플라이급 2차전까지의 경기가 펼쳐졌다. 이날 경기중의 하이라이트는 남자부 플라이급 2차전에서 금년 7월에 미국에서 열린 제 1회 월드컵태권도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인해진(한체대·2)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주체급인 핀급보다 한체급 올린 플라이급으로 출전한 이종선(한체대·1)을 노련한 기술로 공격하여 판정승을 거둠으로써 플라이급의 강력한 우승후보가 되었다. 그밖에 플라이급 2차전에서 서울체고의 양정선선수는 1차전에서 동성고의 임승일을 누르고 올라온 풍생고의 봉인섭과의 대결은 봉인섭선수가 득점승을 거두어 8강전에 진출하게 되면서 신인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한 플라이급에서 강종원(경남체고·2)선수는 홍익대의 이진우를 맞아 1·2회전을 우세하게 이끌었고 3회에 득점을 올림으로써 8강전에 진출하였다.

밴텀급경기에서는 85년도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이선장(한국체대)선수가 동성고의 송효석 선수를 맞아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판정승을 거두고 2차전에 올랐다.



서경무 경기분과 부위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표창패를 받았다.

페더급 경기에서는 유망주로 기대를 모은 서울체고



지도상을 수상한 동성고의 김세혁코치와 최우수선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박봉권선수.

의 장형선수가 86춘계종별 2위를 차지한 김종업(군산 중앙고)선수를 누르고 2차전에 오르는 개가를 올렸다.

여자부 경기에서는 전국가대표선수들이 대거 참가하여 무난히 2차전에 오르는 가운데 첫날 예선경기를 마쳤다.

10월 5일 이틀째 경기는 남녀 각 체급별 8강전 경기를 가졌다.

핀급의 경기에서는 동성고의 송인환 선수와 권태호 선수가 4강전에 올랐으며 플라이급에서 동성고의 강참모, 서울체고의 양정식, 밴텀급에서 동성고의 심우현, 정홍주, 성동고의 최효석, 페더급에서 성동고의 이종은, 풍성고의 이재범, 라이트급에서 동대문상고의 박대성, 동성고의 조광천, 미들급에서 송실고의 신우철 선수 등이 4강에 올라 경량급에서 고등학교 선수들이 대거 진출함으로써 유망주들의 선수층이 두터워지고 체력 및 기술향상이 두드러진 현상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여자부에서는 청산여상이 라이트급을 제외한 7체급의 4강에 골고루 진출해 여자부 강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날 경기 중 핀급의 준준결승전에서는 동성고의 권태호와 서울체고의 하태경 선수와의 대결은 막상막하의 경기로 1·2회전을 각각 우세로 경기를 진행하였고 3회전에 격렬한 접전 끝에 득점 한개씩을 얻어 동점을 이루었으나 권태호 선수가 우세판정을 받음으로써 4강전에 올랐다.

페더급 준준결승전에서는 이종선선수를 누르고 2차전에 올라온 인해진 선수가 성동고의 이종현을 가볍게 누르고 4강에 올랐으며 밴텀급에서는 동성고의 정홍주 선수가 전국가대표선수급 선수인 한국체대의 유명식 선수를 판정승으로 누르고 4강에 진출하였는데 순발력이 대단히 좋고 기술도 다양해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한편 이선장 선수는 준준결승전에서 약관 동성고의 심우현 선수에게 판정패를 당하여 재기의 꿈이 좌절되기도 했다.

페더급 준준결승전에서도 전 국가대표선수인 정승환이 풍성고의 이재범에게 패하였다.

한편 그전에 벌어진 페더급 3차 예선전에서 동성고의 이광로와 상무의 오상은과의 대전은 시종 열전을 거듭했으나 1·2회전에서 득점이 없는 가운데 상무가 우세한 판정을 받았고 3회에 들어가 이광로 선수가 득점을 올리며 선전했으나 주먹공격 등으로 경고와 감점을 받아 결국 득점이 무위로 돌아가 석패하고 말았다. 이에 동성고 코치는 감점선고에 대해 어필을 하는 등 판정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틀째 경기중 가장 기대와 관심을 모은 하이라이트는 웰터급 준준결승전에서 아시안게임에서 라이트급 금메달리스트인 박봉권 선수와 5·6·7회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의 전적을 자랑하는 전 국가대표급의 태권도의 간판스타 정국현의 대전이었다.

박봉권 선수는 한체대 1년생으로 문무대를 갔다 오느라 체중조절을 못해 주체급인 라이트급보다 한체급 올려 웰터급에 출전하여 한체대 6년 선배인 정국현 선수를 맞았다. 코트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시작된 경기는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관계로 시원스럽게 경기가 펼쳐지지는 않았으나 유명선수의 대결이라 관심의 초점을 이룬가운데 1회에 정선수의 노련한 경기운영에 주도권을 내 주었으나 2·3회전 상호득점이 없는 가운데 투지넘친 공격으로 박봉권선수가 우세판정을 받음으로써 판정승을 거두고 준결승전에 올라 경희대의 박용웅 선수와 맞붙게 되었다. 이어 벌어진 한국체대의 정용석 선수는 낙성고의 김대환 선수를 판정승으로 누르고 4강에 진출하였고 경희대의 최상진도 유도대의 민찬기 선수를 누르고 4강전에 올랐다.

미들급에서는 전국가대표선수인 경희대의 윤순철이 성동고의 성필용을 판정승으로 누르고 4강에 진출했고

전 국가대표선수인 상무의 정 철환과 유도대의 연기호는 무 명선수인 연기호선수가 1·2회에 득점 하나와 우세를 기록하였고 3회에는 두선수가 다양한 기술의 발휘로 각 2득점씩을 올리는 가운데 선전분투, 총득점 3 : 2로 유도대의 연기호선수가 준결승전에서 경희대의 윤순철선수와 대전을 벌이게 되었고, 그밖에 경성대의 신용욱선수와 숭실고의 신우철 선수가 4강에 올랐다.

헤비급경기에서는 예선전에서 청주대의 추교일이 동아대의 박종일을 맞아 1·2회전에 우세한 경기를 벌였고 3회전에 앞돌려 몸통차기와 점프 뒤틀기 등 체격(118kg, 190cm)에 비해 빠른 몸놀림으로 일방적 경기운영을 펼쳐 판정승을 거두었고 준결승전에서 인덕공고의 최정근을 맞아 1회에 각기 1득점씩 올린 가운데 우세를 기록, 2·3회전에도 우세한 판정을 받아 4강에 진출했다. 그밖에 상무의 김병수, 경희대의 노신, 상무의 임재익이 4강에 진출했다.

여자부 경기에서는 대체로 청산여상이 경량급에, 성신여대가 중량급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며 대거 4강에 진출하였다.

6일날, 대회 3일째 경기에서는 메달권에서 상위입상을 노리는 선수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핀급의 준결승에서는 동성고의 송인환과 권태호가 대결하여 권태호가 판정승을 거두었고 한국체대의 김철호는 경희대의 강철우를 판정승으로 이기고 각각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었다. 동성고의 권태호는 이번 대회에서 떠오르는 샛별로 기대를 모았는데 결승전에서 1회에 노련한 김철호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1점을 내주었으나 2회에 우세, 3회에 1득점으로 판정승을 거두고 핀급의 왕자가 되었다.

플라이급 준결승전에는 한국체대의 인해진 선수가 경희대의 이인재를 2 : 1득점으로 판정승을 거두어 결승에 올랐고 동성고의 강창모가 양정석을 맞아 1·2회를 강창모선수가 우세로 이끌고 3회에 득점하여 결승전에 올랐다.

핀급에서와 마찬가지로 플라이급 결승전에서도 동성고와 한체대가 결승전에 만나 고교의 최강팀과 대학부 최강팀의 한판 대결을 벌였다.

인해진선수는 이종선, 이인재 선수를 차례로 누르고 결승에 올라와 강창모 선수를 맞아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플라이급의 패권을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체급별 최우수선수의 고지를 점령하고자 선수들이 높은 기량을 펼쳐 판정상의 어려움을 겪을 만큼 실력 편중화 현상을 보였다. 특히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대거 탈락하고 고등학생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세계 선수권대회나 올림픽을 대비한 후진양성에 밝은 전망을 보여 주었다.

밴텀급 준결승전은 성동고의 최효석이 동성고의 정홍주를 판정승으로, 동성고의 심우 현이 성관판대의 전용환을 판정승으로 각각 결승전에 올라 한판 대결을 벌였는데 동성고의 심우현이 2 : 1득점으로 판정승을 거두어 밴텀급 1위를 차지하였다.

페더급 준결승전은 풍생고의 이재범이 한국체대의 하계수에게 막상막하의 공방전을 벌였으나 하계수가 우세한 판정으로 결승에 진출했고, 성동고의 이종은도 상무의 이상은과의 대결에서 우세한 판정으로 결승에 오르는 등 실력면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만큼 막상막하의 경기진행으로 배심석에서는 판정에 신중을 기하는 경유가 잦았다.

하계수와 이종은의 대결은 1회전에 각기 1득점씩 올리는 개가를 거두며 본전을 거듭했으나 하계수가 1회에 동점인 가운데 우세판정, 2회에 1득점, 3회에도 1득점을 올리며 페더급의 패권을 차지하였다.

라이트급 준결승전 경기에서는 동대문상고의 박대성과 경희대의 박호상이 대전을 벌여 1회전에 박호상이 1득점을 올리며 유리한 경기를 펼쳤으나 2회에 들어 다리부상을 입어 박대성선수가 RSC(주심직권승)승을 거두고 결승전에 올라갔다. 또한 동성고의 조광천과 상무의 김찬구의 준결승전은 1회전에 막상막하로 조광천이 우세했으나 2회전에 얼굴의 급소를 맞아 한차례 다운을 당함으로써 3회전에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 도 득점면에서 패해 김찬구가 결승전에 올랐다.

박대성과 김찬구의 결승전에서는 김찬구가 시종 우세한 경기와 득점으로 판정승, 라이트급 1위에 올랐다.

웰터급 경기에서는 박봉권 선수가 박용웅의 대결에서 우세승을 거두었고, 한국체대의 정용석선수는 경희

대의 최상진을 판정승으로 누르고 결승전에 올랐으나 정용석 선수가 부상으로 1회전에 기권함으로써 박봉권선수는 웰터급 패권을 차지하였다. 이로써 박봉권선수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의 우승이후, 아시안게임 라이트급 1위에 이어 이번 대회에도 우승, 최우수선수로 뽑힘으로써 태권도선수로서의 영광을 한몸에 받았다.

미들급 준결승에서는 새롭게 떠오른 무명 선수인 유도대의 연기호가 경희대의 윤순철에게 판정승을 거두어 결승에 올랐고, 송실고의 신우철이 경상대의 신용욱에게 판정승으로 결승전에 올랐으나 연기호 선수가 1회에 1득점, 2회에 5득점 등 완전 승패를 잡자 2회를 마치고 기권함으로써 연기호선수는 이번 대회에 새로운 왕자로 면모를 보이며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헤비급 준결승전에서는 상무의 김병수가 청주대의 주교일에게 판정승, 경희대의 노신이 상무의 임재익에게 판정승으로 결승에 올라와 각기 2득점씩을 올리고「경고」도 각기 2개를 기록해 판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노신선수에게 우세판결을 내림으로써 노신선수가 헤비급 최강자가 되었다.

한편 마지막날 벌어진 여자부 준결승과 결승전에서는 국가대표급선수들이 우승해 남자부 경기에서 현·



이번 대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박봉권선수와 정국현선수의 대결에서 박봉권선수가 판정승을 거두고 있다.

前국가대표급 선수들이 탈락한 경우와는 반대현상을 보임으로써 신인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도 했다.

청산여상이 금 4, 은 3, 동 2개를 차지하였고 '성신여대'가 금 4, 은 1개를 차지함으로써 청산여상선후배 동문이 여자부 태권도의 독무대를 차지하였다.

핀급의 결승전에서 청산여상의 장이숙선수는 충남대의 김경숙에게 1회전에 주도권을 빼앗겼으나 2·3회전에 다량득점을 얻어내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핀급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으며, 플라이급에서는 청산여상의 신숙이 주체급인 핀급에서 한체급 올라 출전, 86년도 핀급 여자국가대표선수에서 플라이급 최강자가 되었다. 밴텀급의 박선영선수도 패권을 유지했으며, 페더급에서는 성신여대의 김정임, 라이트급에서는 성신여대의 김소영이 4득점을 올림으로써 완봉승을 거두었다. 웰터급에서는 성신여대의 김유숙이 1위를 차지했고 헤비급에서는 청산여상의 정원숙이 헤비급 여왕이 되었다. 마지막 경기를 펼친 미들급 결승전에서 청산여상의 방경애가 선배인 성신여대의 정영숙을 맞아 패기와 투지를 앞세워 선전함으로써 판정승을 거두었다.

시상식에서는 협회 엄윤급 부회장이 우승자들에게 각기 메달과 상장을 수여했으며 1위를 입상한 선수중에 선정되는 '86년도 최우수선수상의 영광은 웰터급의 우승자인 박봉권선수에게 돌아갔고, 우수한 선수를 많이 배출시키고 공로가 많은 동성고의 김세혁 코치에게 지도상을 수여했다. 또한 경기운영에 참가한 운영자들 중에 서경무 경기분과부위원장, 김정식 경기분과위원, 장용갑 심판분과위원, 유충선 심판분과위원에게 각각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대체로 수준높은 경기기량을 펼침으로써 막강막하의 대결로 판정상 어려운내용이 속출하여 심판원들이 자주 배심석에 모여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신중함을 많이 엿볼 수 있었는데 특히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대거 탈락하고 고등학교생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선수간의 실력평교화 현상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경량급에서 고등학교선수들이 패권을 잡는 등 크게 부각하고 있어 앞으로 세계선수권대회나 올림픽을 대비한 후진양성에 밝은 전망을 보였다. *

입상자 명단 (남자부)

체	급	등	위	성	명	소	속
핀	급	1	위	권	태 호	동성고등학교	
		2	위	김	철 호	한국체육대학	
		3	위	송	인 한	동성고등학교	
		3	위	강	철 우	경희대학교	
플라이	급	1	위	인	해 진	한국체대	
		2	위	강	창 모	동성고등학교	
		3	위	이	인 재	경희대학교	
		3	위	양	정 석	서울체고	
밴	급	1	위	심	우 현	동성고등학교	
		2	위	최	효 석	성동고등학교	
		3	위	정	홍 주	동성고등학교	
		3	위	전	웅 환	성균관대학교	
페더	급	1	위	하	계 수	한국체육대학	
		2	위	이	종 은	성동고등학교	
		3	위	이	제 범	풍생고등학교	
		3	위	오	상 운	상 무	
라이트	급	1	위	김	찬 구	상 무	
		2	위	박	대 성	동대문상업고등학교	
		3	위	박	호 상	경희대학교	
		3	위	조	광 천	동성고등학교	
웰터	급	1	위	박	봉 권	한국체육대학	
		2	위	정	용 석	한국체육대학	
		3	위	박	용 웅	경희대학교	
		3	위	최	상 진	경희대학교	
미들	급	1	위	연	기 호	유도대학	
		2	위	신	우 철	숭실고등학교	
		3	위	윤	순 철	경희대학교	
		3	위	신	용 욱	경상대학교	
헤비	급	1	위	노	신	경희대학교	
		2	위	김	병 수	상 무	
		3	위	추	교 일	청주대학교	
		3	위	임	재 익	상 무	

입상자 명단 (여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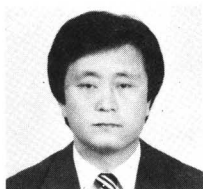
체	급	등	위	성	명	소	속
핀	급	1	위	장	이 숙	청산여상	
		2	위	김	경 숙	충남대학교	
		3	위	정	영 란	인천체고	
		3	위	성	진 영	부천동여중	
플라이	급	1	위	신	숙	청산여상	
		2	위	김	순 정	영북종고	
		3	위	권	혁 실	상인천여자중학교	
		3	위	강	경 숙	청산여상	
밴	급	1	위	박	선 영	청산여상	
		2	위	배	은 정	청산여상	
		3	위	안	희 정	유도대학	
		3	위	양	승 회	영북종합고등학교	
페더	급	1	위	김	정 임	성신여대	
		2	위	권	란 회	청산여상	
		3	위	이	현 화	청산여상	
		3	위	박	현 순	영북종고	
라이트	급	1	위	김	소 영	성신여대	
		2	위	석	소 정	배성여상	
		3	위	안	경 숙	인천체육고등학교	
		3	위	박	진 경	인천체육고등학교	
웰터	급	1	위	김	유 숙	성신여대	
		2	위	정	현 숙	청산여상	
		3	위	이	미 라	배성여상	
		3	위				
미들	급	1	위	방	경 애	청산여상	
		2	위	정	영 숙	성신여대	
		3	위	백	미 라	부천동여중	
		3	위	김	은 정	배성여상	
헤비	급	1	위	정	완 숙	성신여대	
		2	위	고	현 정	청산여상	
		3	위	김	지 연	배성여상	
		3	위	백	영 미	인천체고	



태권도 경기

'86년도 전국추계종별 선수권대회

일시 : 1986년 10월 14일
~ 18일 (5일간)
장소 : 국 기 원



김 봉 기
경기분과위원장

그동안 종별선수권대회는 봄에 실시되어 왔으나 올해부터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등으로 인한 태권도 경기활성화와 신인발굴의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아래 추계종별선수권대회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중등부 171명, 고등부 475명, 대학부 24명, 일반부 41명 등 총 711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10월 14일 오전 11시에 거행된 개회식에서 협회 업무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디딤돌로 삼아 88서울 올림픽을 향하여 재출발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출전한 선수 전원이 갈고 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태권도 내일의 근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몇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첫째, 「스포츠맨십」에 입각하여 정정당당하게 기량을 발휘할 것과 둘째,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태권도 정신에 역행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셋째, 이번 대회는 태권도 선수의 동용문이니만큼 국가대표로 성장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지니고 출전수범해주길 당부했다.

이어, 선수대표선서에서 한성고등학교의 심상일 선수는 경기규정을 준수하여 선전분투할 것을 선서했다.

개회식에 앞서 오전 7시부터 첫날 경기가 있는 선수들의 체력향 실시가 있었는데 32명의 체력실격선수가 나와 체중관리의 헛점이 노출되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경기는 오후 5시 30분까지 고등부 플라이급 2차전 대진번호 156번까지의 경기중 135번까지의 경기를 마쳤다.

첫날 경기 중 고등부 핀급 2차전 경기 중 대진번호 101번이 청코너의 동성고 임석원 선수 대 홍코너의 영광종고 박철홍 선수의 경기는 1회 1분 30초만에 홍코너의 박철홍 선수가 주먹으로 얼굴을 공격하여 청코너 동성고의 임석원 선수가 부상을 당하여 의사가 경기불능판정을 내려 임석원 선수가 RSC승을 거두게 되었다.

대회 이튿날 경기가 계속된 15일의 고등부 체력향 실시에서는 20명의 실격자수가 나왔으며, 여체에 이어 고등부 경량급 예선전이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기록이 전광판에 표시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경기운영이 순조로와 심판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민방위 훈련으로 경기장 밖의 출입을 통제, 모든 선수 및 관계자들



중등부 각체급 우승자

이 경기장내에 대기하면서 계속적인 경기진행으로 오후 6시 30분 대진번호 284번까지의 경기를 마쳤다.

고등부 핀급 대진번호 257번 경기에 참가한 임석원(동성고)선수와 박재규(성동상고)의 대전에서는 전날 경기부상으로 경기중단을 당하며 2차전에 올라온 임선수가 언제 부상을 당하였느냐는듯이 강한 공격으로 1회 우세, 2회는 1득점씩 주고 받는 가운데 우세, 3회 중반 앞돌려차기 성공으로 승리하여 박수를 받았다.

이여 벌어진 대진번호 258번 동성고의 박기찬 대 한성고의 유망주 노철호 선수의 대전은 동성고의 승리로 돌아갔고, 계속해서 벌어진 정진태 선수 대 한성고의 최예기 선수의 대전은 코치가 코너를 바꾸어 재대결이 벌어졌는데 '화이팅'이 좋고 원발앞돌려차기 등으로 동성고가 승리를 안아 동성고가 한성고를 누르는 일전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회 3일째를 맞은 16일은 고등부 16강에 오른 각체급 선수들이 8강 진출을 위한 선전이 계속되었으며 오전 9시부터 A코트에서는 중등부 예선 1차전 경기가 치루어져 오후 2시 30분까지 대진번호 83번까지의 경기를 마쳤다.

이보다 앞서 오전 7시부터 실시된 제체량에서는 중등부 27명, 고등부 17명 등 총 44명의 선수가 실격되었으며 특히 중등부에서 체제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못해 실격처리된 선수들이 있어 코치들의 선수관리에 좀더 확실히 기해야 할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중등부 예선에 이어 계속된 고등부 선수들이 '화이팅' 넘치는 경기가 계속되어 오후 6시 45분 대진번호 388

번까지의 경기를 마쳤다.

중등부 핀급에 출전한 한성중학교의 서상범 선수와 서상우 선수는 쌍둥이 형제로 관중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두선수다 판정승을 거두어 2차전에 올랐다. 쌍둥이 형제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 박래전 사범에게서 태권도 지도를 받아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선수생활을 시작, 서울시 소년체육대회에서 동생 상우가 핀급 3위에 입상한 경력을 갖고 있다. 남규식 감독은 체력보강에 힘쓰면 중3 정도에서는 꿈나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중등부 핀급에 출전한 서상범·서상우선수(한성중)는 쌍둥이 형제로 나란히 2차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고등부 대진번호 305번 페더급 경기에서 경상공고의 김한진 선수대 복지고의 권용식 선수의 경기는 2회 20초에 김한진 선수가 주먹으로 얼굴 공격을 가해 상대선수가 경기불능으로 인정되어 권용식 선수는 주심 직권승(RSC승)을 거두었다.

대진번호 348번의 미들급 경기에서는 향도실고의 도전진 선수가 1회 40초만에 앞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하여 청코너의 대원외국어고등학교의 서정원 선수를 KO시키고 8강전에 진출했다.

대회 4일째를 맞은 17일은 오전 9시부터 일반부와

계체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못해 실격처리된 선수들이 많아 선수관리에 문제점 드러나

대학부의 예선 및 준결승 경기가 치루어졌으며 이어서 중등부 역시 각체급별로 결승전만을 남겨둔채 오후 2시 반경 고등부 웰터급 경기를 시작으로 메달권 진입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연속되어 오후 5시 반경 대전번호 443번까지의 경기를 마쳤다.

이 날도 계체에서는 중등부 4명, 고등부 9명, 대학부 및 일반부 5명 등 18명의 계체실격자가 나왔다.

대학부 페더급 경기에서 대전번호 2번 청코너의 유도대학 이규정 선수가 3회전 1분 37초경에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하여 홍코너의 동맹전문대 신경식 선수의 코뼈가 부상하는 반칙을 범해 감점패를 당하였다.

일반부 경기에서는 지하철 공사에서 9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이를 응원하러 나온 지하철공사 직원들이 관중석을 메웠다.

일반부 라이트급에 출전한 조한기(송산체육관)와 최성식(지하철공사)의 대전은 기량은 뒤졌으나 패기로 맞서 이긴 최선수의 자세가 돋보인 경기였다.

또한 한효민(청호체육관)과 장용모(지하철공사)의 대전은 1회에 장선수가 앞돌려차기로 얼굴을 두번 맞아 왼쪽 뺨이 붉어졌고 2회 30초에 또 한번 맞아 40초에 수건을 던져 기권패했다. 이어 벌어진 대전번호 20번 논산체육관의 김정수 선수와 지하철공사의 이어



고등부 각체급 우승자

철 선수의 대전에서도 이어철 선수가 1회 점프 뒤텔기를 적중시켜 다운을 뺏어 기선을 제압, 2회 2분3초에 뒤무리기로 얼굴을 강타하여 다시 카운트를 하는 등 일반부는 지하철공사의 독무대인양 화려하게 경기를 펼쳤다.

대회 마지막날인 18일에는 중등부에서 결승에 오른 선수와 고등부 준결승, 그리고 대학부 및 일반부의 결승에 진출한 선수들이 오전 7시30분부터 실시한 계체량을 전원 통과하였다.

오전 9시 A·B 양쪽 코트에서 고등부 준결승전의 경기를 시작으로 우승을 향한 치열한 격전의 연속으로 각급 체급별 순위가 결정된 가운데 곧바로 시상식에 들어갔다.

중등부 핀급에 올라온 김근석(태성중)과 박정휘(풍생중)선수의 대전은 1득점으로 김근석 선수가 판정승을 거두었으며, 플라이급은 박병준(풍생중)과 김재수(신홍중)의 대결로 1회에 김재수 우세, 2회에 박병준이 우세를 거둔 가운데 3회에 접어들어 열전을 벌여 박병준선수가 앞발들어차기로 1득점을 올려 판정승을 거두었다.

밴텀급 결승전은 김정수(한양중)와 장대진(풍생중)의 대전으로 장대진이 우세한 경기를 펼치며 1득점으로 판정승, 페더급은 신승철(한성중)과 조영근(구월중)의 대전으로 1회에 1점씩 주고받는 가운데 신선수 우세, 2회에 신선수 경고 1개와 2득점, 3회에 1득점씩 주고받는 혼전가운데 신승철선수가 우승하였다. 라이트급 결승전에 올라온 진동환(서울체중)과 추대식(구월중)의 대전은 열전의 한판이었다. 1회에 두 선수가 2득점씩 올리는 가운데 진선수 우세, 2회에 진선수 1득점, 추선수 2득점으로 3:4를 이룬 가운데 3회에 2득점씩 올려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쳐 5:6의 득점으로 추대식 선수가 우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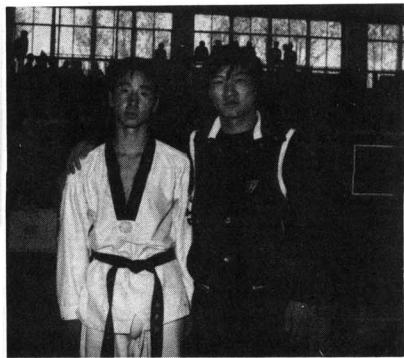
라이트웰터급의 채영석(구월중)과 이시웅(배명중)의 대결도 열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4:3득점으로 채영석 선수가 우승을 거두었다.

웰터급은 박영부(서울체중)과 이정호(한성중)가 결승에 올라와 박선수가 우승했고, 라이트급은 최준근(칠곡중)이 송충연(구월중)을 맞아 우승했다. 미들급은 김수(동성중)가 조만호(칠곡중)를 맞아 1회55초 만에 뒤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하여 KO승을 거두었다.

라이트헤비급은 이종덕(병천중)과 황혁모(풍생중)의 대전으로 황선수의 우세한 경기진행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헤비급은 이 호(배명중)선수가 심경영(영북중)을 맞아 3득점으로 판정승을 거두었다.

고등부 결승전에서는 핀급에 양현석(동성고)과 유준열(풍생고)선수가 붙어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쳤으나 유선수가 결국 우세승을 거두었다.

플라이급 결승전에는 경남체고의 장종원선수가 이철(풍생고)선수를 가까스로 제압해 우승을 거두었다. 경남체고에 태권도부가 생긴지 2년만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장선수와 김영국 코치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값진 승리였다고 본다.



경남체고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장종원 선수와 김영국 코치.

밴텀급 결승전은 장정석(동성고)선수와 배종임(성동상고)선수의 대전으로 배선수가 금메달을 안았고, 페더급 결승전에서는 안진성(한성고)선수가 이재화(향도실고)선수를 누르고 우승. 라이트급은 오세운(병천고)이 김윤길(동래상고)를 누르고 우승, 웰터급은 임진남(향도실고)이 장영태(부산체고)를 1득점으로 눌렀다. 미들급은 김홍재(인덕공고)가 김용귀(병천고)를 맞아 2득점으로 판정승, 헤비급은 허정호(풍생고)가 정경수(광영고)를 맞아 팽팽한 대결을 벌이는 가운데 우세승을 거두었다.

대학부는 플라이급에 최영일(유도대학), 밴텀급에 박용수(유도대학), 페더급에 신정식(동명전문대), 라이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추계종별선수권대회가 신인발굴이라는 측면과 태권도선수들의 진학에 크게 기여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 및 일반부 우승자.

트급에 민병율(유도대학)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일반부에서는 플라이급에 남용삼(양지체육관), 밴텀급의 오영철(청무체육관), 페더급의 김우태(한광OB), 라이트급의 유병창(성동중앙체육관), 웰터급의 박종성(지하철공사), 미들급의 정운복(광동체육관)선수 등이 각각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는 지방선수들이 대거 참가하여 입상을 함으로써 태권도의 평준화 현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고등부 입상자 32명중 18명이 지방 선수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입상으로 대학입학에 혜택을 받게 되는 선수는 32명중 21명으로 나타나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86년도 추계종별선수권대회가 신인발굴이라는 측면과 태권도선수들의 진학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운영상에서 볼 때 감독이나 코치가 대표자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대회운영의 원활한 협의로 선수관리에도 원활히 대처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제세량 실시 등에 참가하지 못해 실격자 등이 나오는 결과를 빚기도 한 점은 관계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와 참가자들의 큰 관심이 합치되어야 할 점이라고 본다.

입상자 명단 (중등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 속	학 년
핀 급	1위	김근석	태 성 중 학 교	1학년
	2위	박정휘	풍 생 중 학 교	1학년
	3위	이승범	풍 생 중 학 교	1학년
	3위	오양석	구 월 중 학 교	1학년
플라이급	1위	박병준	풍 생 중 학 교	1학년
	2위	김재수	신 흥 중 학 교	2학년
	3위	정경훈	구 월 중 학 교	1학년
벤 텀 급	3위	김태욱	내 성 중 학 교	3학년
	1위	장대진	풍 생 중 학 교	2학년
	2위	김점수	한 양 중 학 교	2학년
	3위	박관빈	한 성 중 학 교	1학년
페 더 급	3위	정현호	풍 생 중 학 교	2학년
	1위	신승철	한 성 중 학 교	2학년
	2위	조영근	구 월 중 학 교	2학년
	3위	오창룡	배 명 중 학 교	3학년
라이트급	3위	김대중	쌍 문 중 학 교	3학년
	1위	추대식	구 월 중 학 교	2학년
	2위	진동한	서울체육중학교	2학년
	3위	김부진	강 남 중 학 교	2학년
라 이 트 웰 터 급	3위	유창덕	구 월 중 학 교	2학년
	1위	채영석	구 월 중 학 교	2학년
	2위	이시용	배 명 중 학 교	3학년
	3위	이동원	칠 곡 중 학 교	3학년
웰 터 급	3위	조성민	용 산 중 학 교	3학년
	1위	박영부	서울체육중학교	3학년
	2위	이정호	한 성 중 학 교	2학년
	3위	박원철	안 성 중 학 교	3학년
라 이 트 미 들 급	3위	김재덕	구 월 중 학 교	1학년
	1위	최종근	칠 곡 중 학 교	3학년
	2위	송충영	구 월 중 학 교	2학년
	3위	최원영	문 산 중 학 교	2학년
	3위	양홍민	평 택 동 중 학 교	3학년

미 들 급	1위	김 수	동 성 중 학 교	3학년
	2위	조만호	칠 곡 중 학 교	3학년
	3위	정봉홍	환 일 중 학 교	3학년
	3위	양준호	강 남 중 학 교	3학년
라 이 트 헤 비 급	1위	황혁모	풍 생 중 학 교	1학년
	2위	이종덕	병 천 중 학 교	3학년
	3위	이은풍	풍 생 중 학 교	3학년
	3위	현광빈	구 월 중 학 교	3학년
헤 비 급	1위	이 호	배 명 중 학 교	3학년
	2위	심경영	영 북 중 학 교	2학년
	3위	모진석	풍 생 중 학 교	2학년
	3위	정태권	한 성 중 학 교	2학년

입상자 명단 (고등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 속	학 년
핀 급	1위	권태성	성 동 고 등 학 교	2학년
	2위	양현석	동 성 고 등 학 교	2학년
	3위	정진태	동 성 고 등 학 교	2학년
	3위	유준열	풍 생 고 등 학 교	2학년
플라이급	1위	장종원	경남체육고등학교	2학년
	2위	이 철	풍 생 고 등 학 교	2학년
	3위	심기석	경상공업고등학교	1학년
	3위	임승일	동 성 고 등 학 교	1학년
벤 텀 급	1위	배종임	성동상업고등학교	3학년
	2위	장정석	동 성 고 등 학 교	3학년
	3위	박정우	남해상업고등학교	3학년
	3위	오희근	병 천 고 등 학 교	2학년
페 더 급	1위	안진성	한 성 고 등 학 교	3학년
	2위	이재화	항도실업고등학교	1학년
	3위	박해성	풍 생 고 등 학 교	3학년
	3위	이종은	성 동 고 등 학 교	2학년
라이트급	1위	오세운	병 천 고 등 학 교	2학년
	2위	김윤길	동래상업고등학교	3학년

라이트급	3위	김 중	전북체육고등학교	3학년
	3위	김동복	송 실 고 등 학 교	2학년
웰 터 급	1위	임진남	항도실업고등학교	2학년
	2위	장영태	부산체육고등학교	1학년
	3위	최 신	동대문상업고등학교	3학년
	3위	김대환	낙 생 고 등 학 교	3학년
미 들 급	1위	김홍재	인덕공업고등학교	2학년
	2위	김용귀	병 천 고 등 학 교	1학년
	3위	이홍배	익산종합고등학교	3학년
	3위	도한진	항도실업고등학교	2학년
헤 비 급	1위	허정호	풍 생 고 등 학 교	2학년
	2위	정경수	광 영 고 등 학 교	2학년
	3위	전용진	환 일 고 등 학 교	3학년
	3위	김정열	안 중 고 등 학 교	3학년

입상자 명단 (대학부)

체 급	등 위	성 명 소	속	학년
플라이급	1 위	최 영 일	유 도 대 학	1 년
	2 위	김 성 근	세종대학교	1년
	3 위	고 재 용	유 도 대 학	2년
	3 위			
벤 텀 급	1 위	박 용 수	유 도 대 학	2년
	2 위	우 광 원	유 도 대 학	1년
	3 위	김 경 태	한국체육대학	1년
	3 위	김 영 기	유 도 대 학	1년
페 더 급	1 위	신 청 식	동명전문대	1년
	2 위	최 광 민	한국체육대학	1년
	3 위	이 창 옥	한양대학교	
	3 위	양 영 명	경희대학교	1년
라이트급	1 위	민 병 율	유 도 대 학	1년
	2 위	김 기 홍	유 도 대 학	1년
	3 위	이 호 용	동명전문대	1년
	3 위	신 용 호	유 도 대 학	1년

입상자 명단 (일반부)

체 급	등 위	성 명 소	속
핀 급	1 위		
	2 위		
	3 위		
	3 위		
플라이급	1 위	남 용 삼	양 지 체 육 관
	2 위	이 여 철	지 하 철 공 사
	3 위	김 상 태	양 지 체 육 관
	3 위	김 정 수	논 산 체 육 관
벤 텀 급	1 위	오 영 철	청 무 체 육 관
	2 위	박 행 록	중 앙 체 육 관
	3 위	최 기 영	지 하 철 공 사
	3 위	이 상 우	양 지 체 육 관
페 더 급	1 위	김 우 태	한 광 O B
	2 위	임 정 수	강 호 체 육 관
	3 위	황 기 수	문 경 체 육 관
	3 위	김 성 일	청 도 회 체 육 관
라이트급	1 위	유 병 창	성 동 중 앙 체 육 관
	2 위	최 성 삼	지 하 철 공 사
	3 위	허 석 무	지 하 철 공 사
	3 위	한 효 민	청 호 체 육 관
웰 터 급	1 위	박 종 성	지 하 철 공 사
	2 위	이 상 선	전 곡 체 육 관
	3 위	정 우 창	남 문 체 육 관
	3 위	최 용 석	밀 양 군 체 육 회
미 들 급	1 위	정 윤 복	광 동 체 육 관
	2 위	박 종 열	지 하 철 공 사
	3 위	박 완 일	지 하 철 공 사
헤 비 급	1 위		
	2 위		
	3 위		
	3 위		



태권도 경기

제12회 연맹회장기타기 전국국민학교 태권도대회

장소: 국 기 원
일시: 11월2일~3일



주 상 일

(한국국민학교태권도연맹전무이사)

한국국민학교 태권도연맹 주최로 11월 2일에서 3일까지 양일간 국기원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35개 국민학교에서 390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겨루기, 품세, 발차기, 이론 등 태권도의 전 영역에 걸쳐 실력을 겨룬 종합대회였다.

입동을 불과 며칠밖에 앞두지 않아서인지 기온까지 예년보다 낮아 퍽 쌀쌀하게 느껴진 날씨였지만 국기원에 모인 어린 선수들에게서는 추위에 웅크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86년도를 총 결산하는 마지막 대회라는 것을 의식한 탓인지 모두들 엄숙하면서도 결의에 찬 늠름한 모습이었다.

연맹의 이상빈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86아시아경기 대회에서 7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중주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한 태권도 국가대표선수들을 치하하면서 「머지않아 올림픽대회에서도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실시될 것이기에 태권도 가족은 물론, 온 국민이 여러 분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므로 이번 대회를 통해 태권도 수련에 가일층 진력해 줄 것은 물론 공부에도 더욱 힘써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개회식에 이어 이규형 사범의 지도로 서울 미동국민학교 어린이들의 태권도 시범이 펼쳐져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번 대회부터는 지난 11회 대회까지 겨루기 부문과 품세 및 이론 부문의 성적을 합쳐 단체순위를 결정하던 것을 두 부문으로 분리하여 단체시상을 했으며 우승기는 겨루기부문 우승교에 수여됐다.

품세 및 발차기의 심사와 이론 시험은 개회식 전에 있었는데 필기시험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에 관한 시사 문제가 몇 문항씩 출제되었고 그밖의 범위와 난이도면에서는 예년과 비슷했고 성적분포 또한 비슷한 수준이었다.

품세와 발차기의 기량면에 있어서는 화를 거듭할수록 향상되고 있는 추세로 품세대회를 처음 개최한 초창기에 학교간 또는 선수간의 우열의 차가 심하여 심사의 어려움이 없었는데 반해, 이제는 심사위원들의 세심한 관찰이라는 정확하게 평가할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평준화되었다고 본다.

개회식 후에 진행된 겨루기 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승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느팀이 우승하게 될



품세와 발차기의 기량면에 있어서는 회를 거듭할수록 향상되고 있는 추세로 품세대회를 처음 개최한 초창기에 학교간 또는 선수간의 우열의 차가 심하여 심사의 어려움이 없었는데 반해, 이제는 심사위원들의 세심한 관찰없이는 정확하게 평가할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평준화 되었다.

지, 각 체급별 우승자는 누가 될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선수들의 기량이 두드러지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느 특정한 학교의 독불장군시대 는 지나고 많은 팀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춘추전국시대에 돌입했음을 예고해 준 것으로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본다.

기량의 현상과 아울러 코치와 선수들의 태도또한 크게 발전된 것을 엿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승패에 구애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돌아온 선수에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려를 보내는 코치들과 진 선수가 이긴 선수의 코치에게로 가서 정중히 인사하고 돌아오는 예의바른 태도 등은 태권도의 밝은 내일을 한 눈에 보여준 장한 모습이라 하겠다.

성적 및 입상자명단

단체 성적표

순위	구분	거 루 기	품세 및 이론
우 승	청 주 주 성 국 교	서 울 선 곡 국 교	
준 우 승	경 기 성 남 제 2 국 교	서 울 남 산 국 교	
3 위	서 울 개 포 국 교	서 울 화 계 국 교	
장 려	서 울 한 강 국 교	서 울 미 동 국 교	
	서 울 교 동 국 교	서 울 개 포 국 교	
감 투	서 울 면 목 국 교		

개인특별상

최우수 선수상	김 동 민	청주주성국교
미기상	고 민 경	성남중앙국교
인기상	박 성 호	서울교동국교

이론 및 품세 부문

학년	금 상	은 상	동 상
1	서울화계 (김한준)	서울개포 (조상현) 서울선곡 (강남수)	서울선곡 (한상연) 서울개포 (신지훈) 서울한강 (김영란)
2	서울남산 (유현모)	서울개포 (이정현) 서울개포 (이은수)	서울선곡 (최병국) 서울선곡 (이철용) 서울한강 (이창근)
3	서울선곡 (이재용)	서울선곡 (정수현) 서울잠원 (김동준)	서울개포 (오현석) 서울개포 (임상민) 서울화계 (김옥포)
4	서울선곡 (황진철)	서울남산 (김재준) 서울한강 (강명성)	서울미동 (김성후) 서울한강 (조경자) 서울화계 (김민호)
5	서울미동 (김평일)	서울선곡 (이상욱) 서울화계 (이충현)	서울남산 (이일영) 서울미동 (이대우) 서울선곡 (조기수)
6	서울남산 (이제우)	서울잠원 (황보명) 서울미동 (김성곤)	서울선곡 (이상우) 서울미동 (권대구) 서울선곡 (정지상)

개인 입상자 명단

겨루기 부문

체급	등위	성명	학교	학년
핀	1위	임수영	성남제2국교	6년
	2위	소병관	서울한강국교	5년
	3위	강일구	서울용인국교	5년
	3위	이재호	경기문산국교	5년
플라이	1위	황인서	서울개포국교	6년
	2위	장대호	성남제2국교	
	3위	강봉서	서울개포국교	5년
	3위	윤종일	성남제2국교	
밴텀	1위	원종석	서울면목국교	6년
	2위	이승의	청주주성국교	6년
	3위	박준철	경기문산국교	6년
	3위	정종석	성남대대국교	6년
페더	1위	박성호	서울고동국교	6년
	2위	김명곤	서울신석국교	5년
	3위	최영석	경기상원국교	6년
	3위	안호영	경기하원국교	5년

체급	등위	성명	학교	학년
라이트	1위	김봉석	서울개포국교	6년
	2위	최상동	서울옥수국교	6년
	3위	서동성	경기문산국교	6년
	3위	김용재	서울중마국교	6년
웰터	1위	김형모	서울한강국교	5년
	2위	이재성	성남제2국교	6년
	3위	금의석	서울장곡국교	6년
	3위	이진형	청주주성국교	6년
미들	1위	김동민	청주주성국교	6년
	3위	천창영	서울고동국교	6년
	3위	박상현	청주주성국교	5년
	3위	정광호	경기용인국교	6년
헤비	1위	임종일	청주주성국교	6년
	2위	김선호	서울면목국교	6년
	3위	정해성	경기성주국교	6년
	3위	정지상	서울선곡국교	6년

20만원으로 관광역권을!

본사부담 180만원과 고객부담 20만원으로
예치금을 해결하는 편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족방문 시 여권, 비자수속 대행 무료

(상용, 문화, 유학, 동거목적포함)

TEL 777-7891~8

위치 무교동대한체육회관
건너편남강BLD 1602호

대민항공

대표이사 : 고일동
(현야구협회전무이사)
담 당 : 김진수

여성태권도의 꿈나무

미기상(美技賞) 수상한 고민경선수
(성남중앙국민학교 6학년)



전국국민학교 태권도대회에서 많은 남학생 선수를 제치고 정확하고 바른 태권도 경기기술로 미기상을 수상한 귀여운 소녀 고민경 선수가 화제의 꽃을 피웠다.

5살 때부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성남 청도체육관(관장 최국환)에 다니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여 7년

이 지난 지금은 3품. 국민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6시부터 운동을 한 부지런하고 꾸준한 선수이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에 나가 입상하기도 했다.

고민경선수를 지도한 권태구 사범은 민경이를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으나 일단 도복을 입으면 승부욕이 강하고 결단성이 있어 새로운 민경이가 된다」며 꾸준히 운동을 하면 여자국가대표선수로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있다.

경기장마다 그림자처럼 늘 같이하며 딸의 경기를 지켜보는 어머니 김정희 여사는 딸에 관한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우리 민경이는 전교에서 상위권 다름을 할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며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계속 선수생활을 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부모의 바램은 지금처럼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여 여성태권도 지도자로 커 나가는 것이며 대학교육을 마친 후에는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훌륭한 외교관으로 키우는 것이 꿈이라며 지금까지 잘 자라준 민경이를 대견스러워 했다.

민경이의 동생인 상원이도 5살 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하기 시작해 남매가 함께 태권도를 하고 있는데 남매에게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배우도록 한 아버지 고재혁(세종주백 대표이사)씨와 늘 경기장을 따라다니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것을 대견스러워 하는 어머니의 정성이 이 아이들의 앞날을 밝게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다.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태권도경기 참가국 한국인코치 좌담회

한국의 태권도가 세계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지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초창기에 세계속의 태권도를 심기 시작한
선배 사범들의 노고에 힘입어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유능한 한국의 사범들이 대표선수들을 키우고 있다.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7개국이 참가하는 태권도경기에 한국인이 코치로
각국의 대표팀을 이끌고 태권도의 종주국을 찾았다.
한국인코치가 각국 대표팀을 이끌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종주국의 위용을 과시한 표본이 되고도 남는다고 본다.
고국을 찾은 각국 코치들이 어떻게 지도했고
이번 대회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88올림픽을 향해 태권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일시: 9월28일 오전 11시

장소: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체육관 회의실

참석자: 강신철 (이란대표팀 코치)

나종열 (카타르대표팀 코치)

신재균 (네팔대표팀 코치)

주상현 (쿠웨이트대표팀 코치)

허영 (인도네시아대표팀 코치)

홍성천 (필리핀대표팀 코치)

김현덕 (바레인대표팀 코치·불참)

송기영 (태국대표팀 코치·불참)

임종선 (사우디아라비아대표팀 코치·불참)

사 회: 한규인 (협회 홍보실장)

▲ **사회**: 이렇게 각국의 태권도 대표팀을 이끌고 귀국한 여러 코치 분들을 뵙게 되니 세계속에 뿌리내린 중주국태권도의 위용을 눈으로 확인이라도 한듯 실감이 납니다. 그동안 어떻게 코치 여러분들께서 각국에 진출하게 되셨는지 그 경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신재균**: 네팔정부의 초청으로 1977년 3월에 출국하였습니다. 네팔엔 일본의 가라데가 1971년도부터 소개되기 시작해 그때만해도 가라데 유단자가 200여명이 넘게 배출되던 당시이기 때문에 태권도의 보급에 많은 방해를 받았읍니다. 발벗고 뛰지 않으면 안될 양담합이 용기를 가져다 주더군요. 그래서 올림픽 위원장, 문교장관, 현직 국회의원, 육군장성들을 찾아다니며 개인적으로 태권도를 알리고 시범을 보였읍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힘을 주시는 분들이 한 둘 늘 어났고 육군 무술종목 중에 유도,

킥복싱, 쿡후, 가라데 등과의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태권도가 채택되어 군인들이 태권도를 필수적으로 배우게 되었읍니다. 1984년부터는 네팔의 전국체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태권도의 보급은 이제 성공한 셈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보급이 아닌 기술습득으로 한 차원 높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 **홍성천**: 1976년 9월 17일에 필리핀 협회 초청으로 출국하였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풍습과 언어장벽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읍니다.

▲ **허영**: 전 지난 2월부터 대한민국정부과견사범으로 인도네시아로 건너갔읍니다. 저도 홍사범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차이나 풍습의 상이함 때문에 적응이 어려웠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맡은 대공업무수행 및 태권도 보급의 세계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개인적 자부심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크기 보다는 보람이 더 크다고나 할까요.....

▲ **강신철**: 처음엔 이란정부의 초청으로 출국하였다가 1년 후 한 국정부과견으로 바뀌었읍니다. 태권도 보급이 첫발을 내딛을 때는 누구나가 겪는 일이지만 기존의 다른 스포츠 단체로부터의 압박 및 방해를 받아야 했고 특히 북괴측에서는 제가 없어진다면 이란정부가 원하는 날까지 무보수로 복귀사범이 수련시키겠다며 압력을 가하기도 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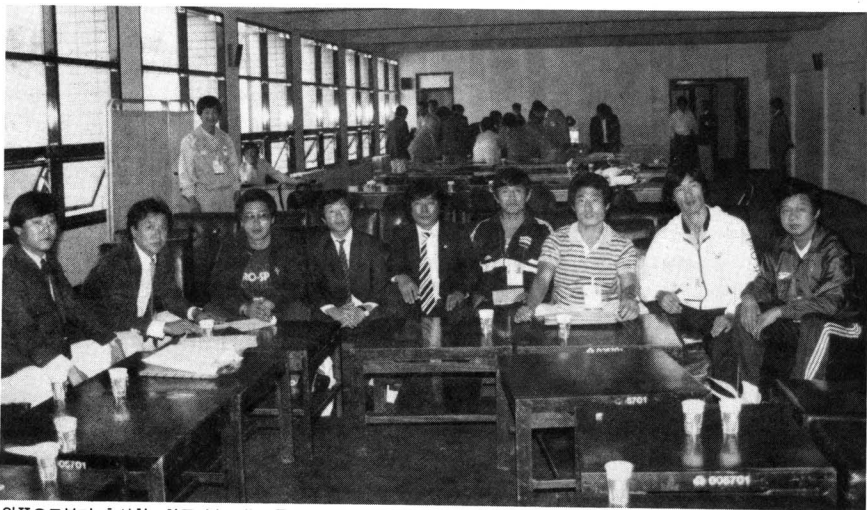
▲ **사회**: 강신철 코치께서는 북한의 압력까지 받았다니 누구보다도 더 어렵게 태권도를 보급시킨 선증인이라 같습니다. 지금은 이라크와 전쟁 중이라 정국이 어수선할 것 같은데 태권도 수련 현황은 어떻습니까?

▲ **강신철**: 전쟁에서는 무엇보다도 군인들에게 튼튼한 체력과 불굴의 투쟁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란 정부에서는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군인들에게 부족한 전신예산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수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태권도 수련뿐만 아니라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태권도 붐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르친 제자들 중 2백50여명이 사범으로 이란 곳곳에 흩어져 태권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전엔 전선에 나간 제자 2명이 전사했다는 비보를 들어 가슴이 아픡니다.

2년전에는 4만명 정도가 태권도 수련에 임했는데 현재 15만명 정도로 늘어났으니 어마어마한 급



필리핀 홍성천코치



왼쪽으로부터 홍성천, 한규인(사회), 주상현, 신재균, 임종선, 송기영, 김현덕, 강신철, 나종열코치.

이번 대회는 한국이 아랑있는 경기를 펼쳐
전체메달 석권에 매달리기 보다는 각국에 메달을
분산시켜 각국의 NOC로부터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앞으로 88올림픽과 90년도 중공에서 개최될
아시안게임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길을 모색해야 하리라 봅니다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신재균**: 네팔에는 14개의 도
장에 군·경 약 4만명이 수련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육군과 경찰대학
생이 대부분이며 약간의 일반인들
이 배우고 있습니다.

▲ **홍성천**: 필리핀에는 약 110개
의 도장이 있고 21개의 체육관이
있습니다. 수련인구는 약 4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 **허영**: 인도네시아는 나라가
큰만큼 280여개의 태권도장과 약
70만의 수련생들이 있습니다. 학생
이 대부분이며 군인과 일반인들도
체력보강을 위해 배우고 있습니다.

▲ **나종열**: 카타르는 30만 인구
에 면적은 한국의 8분의 1 가량되
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70년대
초 중동건설붐이 일기 시작할 때 한
국의 태권도도 진출하게 되어 약

300여명 정도가 현재 배우고 있습
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의 가라데
가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제
는 태권도의 위세를 앞지를 수 없
다고 봅니다.

▲ **사회**: 태권도 중주국의 위세
를 펼치는데 있어서는 나코치에서
카타르대표팀을 훈련시키는 방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련시키고 있기에 '군기'
를 단단히 잡았다고 소문이 났는
지 직접 말씀해 주시지요.

▲ **나종열**: 태권도의 기본은 예
시에종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정
신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둡니다.
그리고 중주국 국기에 대한 경례로
부터 수련에 임하며 태권도의 기본
용어를 한국어로 사용합니다.

▲ **사회**: 태권도 중주국의 자부

심을, 저 또한 지난 기회에 카타르 팀의 연습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 심어진 태권도의 정신이 바로 한국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아시안게임 참가국 중 태권도팀을 이끌고 귀국한 나중열코치가 입국 1호를 기록했는데 이번 대회를 대비해 어떻게 지도해왔으며 어떻게 경기를 전망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내일부터는 실력 발휘만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정당한 해답을 내려줄 것이지만 각국의 유망주로 누굴 꼽고 계신지 소개도 해주십시오 바랍니다.

▲ 나중열: 전 선수들에게 지구력과 순발력을 최대로 이용해 공격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태권도인으로서 예시에종의 귀감이 되도록 주시시켰습니다.

금메달을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은메달 정도는 웰터급의 훗세인 선수(제 6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위)가 기량면에서 수준급이며 앞차기와 뒷차기 연결동작이나 발차기가 일품이라 기대해 볼만합니다. 또한 헤비급의 아에드선수(제 6회 아시아선수권대회 2위)도 우수한 기량으로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선수들의 체력조건이 좋아 의외로 강세를 보여줄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국가의 태권도 육성책이 카타르태권도 발전에 무엇보다 큰 힘이었습니다.

▲ 홍성천: 필리핀팀은 금 2, 은 3, 동 3개를 목표로 하고 나왔습니다. 핀급의 아놀드바라디 선수와 페더급의 가데리, 라이트급의 아리

태권도 기본은 예시에종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정신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둡니다.

그리고 중주국 국기에 대한

경례로부터 수련에 임하며

태권도 기본용어를 한국어로 사용합니다.

하지또 코스차리, 웰터급의 자헤디 등이 메달리스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 주상현: 쿠웨이트팀은 8월초에 입국하여 동성고등학교와 국기원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쌓았습니다. 헤비급의 와하드 살레 선수에게 금메달을 걸고있습니다.

▲ 허영: 이렇게 조국에 돌아와 우리나라 선수들과 제가 가르친 대표팀이 대전을 벌이게 되니 무엇보다 감개무량합니다. 7체급에 출전하여 은 3, 동 3개의 메달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 신재균: 네팔팀은 재정난으로 인해 시합대비용이 전무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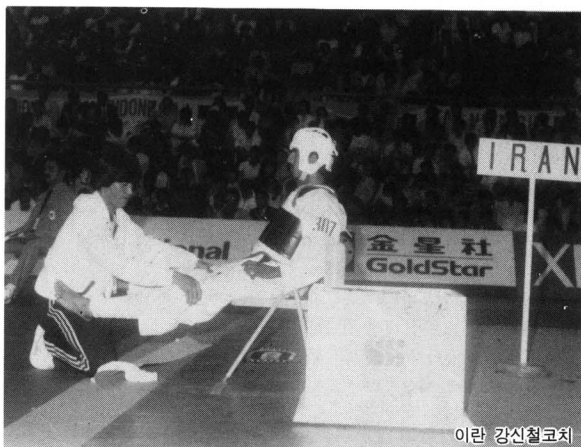


카타르 나중열코치

니다. 이번대회에서 동메달 2개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태권도에서 메달을 따게되면 네팔은 아시아 경기대회사상 첫 메달의 영광을 안게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영웅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태권도가 전지역으로 보급되는데 국민들과 정부로부터 많은 호응과 지원이 뒤따라리라 기대합니다.

▲ **강신철**: 이란측과 「태권도 종합 2위」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 대비, 키가 큰 이란선수들에게 발차기 공격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으며 두뇌플레이에도 역점을 두어 경기를 풀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이 중주국으로서 태권도 전체급을 석권하여 일본을 누르고 종합 2위를 차지한다는 목표를 들었을 때는 한편 태권도로 보선 야속하기 이룰데 없는 처사라 여겨지면서 또 한편으로 일본을 누르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 고국의 국민들 기



이란 강신철코치

대가 너무 커 이를 감히 약속하게 여길 수 없어 기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볼 뿐입니다.

▲ **사회**: 아시아게임이 아시아인의 화합과 전진을 다짐하고 가꾸는 한마당이듯이 태권도 경기도 세계 태권도인들이 태권도를 통해 우의와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아시아 게임과 88년도의 서울올림픽을 대비해 태권도인 모두가 그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봅니다.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것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 봅니다. 이와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도 결부시켜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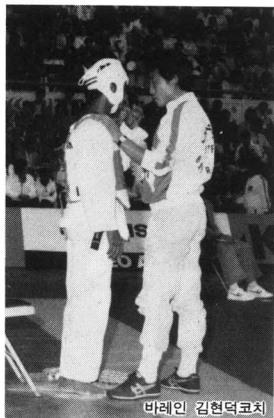
▲ **홍성천**: 끝없는 노력과 시련의 극복이 태권도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

니다. 전 세계에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부터 착용하게된 헤드기어는 선수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환영할만하나 너무 작아 선수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필리핀에 세계대회를 유치하여 태권도 최강국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꿈입니다.

▲ **신재균**: 태권도 경기장 시설 및 운영이 너무도 잘된 것에 놀랐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이 아량있는 경기를 펼쳐 전체메달 석권에 매달리기 보다는 각국에 메달을 분산시켜 각국의 NOC로부터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앞으로 88올림픽과 90년도 중공에서 개최될 아시아게임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길을 모



바레인 김현덕코치

색해야 되리라 봅니다.

▲ **나종열**: 앞으로도 계속 카타르 선수들에게 맞는 기술과 지구력 및 정신력을 보완하도록 힘써 세계대회에 나아가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술 개발에 힘쓰는 코치가 되도록 하는 것을 소명의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 **허영**: 저도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의 태권도 보급 및 대공업무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 **강신철**: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태권도의 정신철학 및 기술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병행할 수 있도록 태권도 전문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꿈이고 계획입니다.

▲ **신재균**: 네팔왕국은 이번 아시안게임에 태권도팀이 출전함에 따라 태권도가 널리 보급되었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기량이 뛰어난 선

한국이 종주국으로서

태권도 전체급을 석권하여 일본을 누르고 종합 2위를 차지한다는 목표를 들었을 때는 한편 태권도로 봐선 야속하기 이룰데 없는 처사라 여겨지면서 또 한편으론 일본을 누르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 고국의 국민들 기대가 너무 커 이를 감히 야속하게 여길 수 없어 기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볼 뿐입니다.

수들을 발굴, 지도하여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수련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나는대로 부탄왕국에도 네팔과 같이 태권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 쓸 계획입니다.

▲ **사회**: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치여러분들의 노력과 각오를 들으니 종주국의 아성을 위협(?)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치루게 될 태권도경기에서 그동안 누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기술을 연마했으며 체력을 단련시켰는가에 따라 공평하게 금메달이 주어질 것이라 봅니다. 좋은 성과 거두시고 돌아가시길 빌며 이렇게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88년에 다시 만나뵈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쿠웨이트 주상현코치

다 같이

아시안게임기간에 수원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한 태권도경기에서 노랑머리, 파란눈 등 각양각색의 외국인 심판원들이 차렷! 경례! 준비 일회전, 시작 등의 우리말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을 4천만 국민이 TV를 통해 지켜보며 중주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졌다. 개막식 행사에서의 태권도시범은 약진하는 한국을 일사분란한 기상으로 펼쳐보여 30억 아시아인들 모두가 감탄하였다고 「메스콤」들은 극찬을 하였다.

이는 무에 태권도의 진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본보기이다.

이제 우리 태권도는 스포츠로서 경기화하여 세계속에 확고히 자리를 잡았고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 약진을 하고 있다.

이 모두는 국내외 일선도장에서 땀흘리며 태권도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범들이 근간이 되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외국에서 태권도 보급을 하고 있는 사범들이 고국에 와서 태권도장을 두루 살펴본 후, 한결같이 수련생들의 유치원화에 염려를 금치 못한다.

외국에서 성인들이 체력단련과 정신건강을 위해 태권도를 배우며, 어른들이 수련을 해보니 효과가 좋음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권하여 남녀노소가 같이하는 태권도로 보급되어가고 있는데 반해, 중주국인 한국내의 태권도는 왜 이렇게 유치원처럼 되었느냐고 반문을 한다.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일선도장에 성인수련생은 없고 유치원생의 전용처럼 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사회여건이 변하여서 성인들이 운동에 시간을 낼 수 없다고 그냥 넘겨버릴 수 밖에 없는 일일까?

최근 10여년간 급변하는 산업사회 속에서 다양화된 조기교육에 부모들의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각종교육기관의 출현으로 이에 대처하여 도장을 운영하자니 유치원화(?)밖에 될 수 없었음일까?

우리나라 교육여건상 학교에서 정적(情的), 도덕적



홍보실장 한 규 인

생각해봅시다

(道德的)인 면과 운동기능적인 면을 고루 담당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올바른 태권도 교육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된다.

어떤 학교에서는 태권도를 교기로 설정하여 전교생에게 지도함으로써 교내외의 학생지도에 좋은 성과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국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경기전적이 우수한 선수 10명미만을 「스카웃」하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서 장학혜택 등을 부여하며 학교명예를 위함은 물론, 상급학교 진학의 가교역할을 하며, 이들을 경기인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경기장에서 시합을 하는 대부분이 학교에서 육성되는 선수들로 구성되며, 일선도장에서는 국교생이상을 보기가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고학력시대(?)에 돌입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풍조 속에서 성장기에 한껏 발달하고 힘차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지나거나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학교교육 풍토속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기란 극히 어려운 상황이 일선도장 유치원화에 부채질을 하는 큰 변수가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보조사범들이 되어가고 있다.

그럼, 일선도장의 수련생 성인화의 문제는 차제하고, 유년화된 현상화를 교육기관으로써 어떻게 적응하며 이끌어 나가야 하는가를 검토해 봐야 하겠다.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에서는 사범지도자 교육과 2급경기지도자교육등, 체육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1회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교육은 일선도장에서 유치부 어린이나 국교저학년생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교육보다는 일반체육지도자의 교육이므로, 아동들을 지도하는데 보다 구체적이고 정리된 지식을 갖추도록 현실성있는 보수교육제도를 만들어 태권도 사범들이 현실화된 조기교육에 앞장서도록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국기원 통계로는 승단, 승품심사 인원이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곧 태권도가 활성화되어 보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나, 거시적인 안목으로는

수련생 유년화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유년부 어린이들이 모여서 유희와 노래로 가득한 태권도장이나, 군인과 경찰이 의무적으로 태권도 수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국기 태권도의 체면(?)이 서겠는가?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축구, 야구, 배구, 농구등은 태권도에 비하면 시각적인 단체운동이다. 그러나 태권도는 개인운동으로 건강증진과 정신수양을 위한 도(道)의 차원과 승패를 가름하는 격기로서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맨손운동으로 연령에 구애됨없이 누구나 할수 있으며, 신체의 무리가 없는 운동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운동이 되었으리라. 그러나, 태권도장에서 운동은 어린이들만 하는 것이고, 태권도 경기는 국교고학년, 중·고·대학의 재학생들과 일반부는 선수출신들 일부가 참여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 문제이다.

혹여, 도장운영에 급급하여 성인부 활성화에 등한시하지는 않았는지-

귀찮고 게을러서 성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인 새벽과 저녁(밤)운동을 기피하지는 않았는지-

도장운영자인 사범(관장)이 도복을 입기를 기피하면서 다른 일반성인들이 도복입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태권도를 직업으로 생활하는 사범들이 술선해서 도복을 입고 땀을 흘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성인태권도 활성화의 표본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유치부가 활성화 됨으로써 태권도 수련을 통해 건강하고 씩씩하게 성장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태권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문무를 겸비한 성인태권도의 육성이 더욱 중요함을 인지하고, 이제부터라도 성인수련생 확보에 전력하기를 당부하며, 국기원이나 태권도에 종사하는 각 부처의 임원들도 무예추진단의 태권도종합연무(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성인태권도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것을 건의해 본다. *

사마란치 IOC위원장 김운용 총재에게 친서전달



환·안토니오·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장은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식에
참석하고 IOC집행위원회를
주재하고 출국한 후
김운용 총재에게 친서를
전달하여 제10회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리에 마친것을 축하하며
서울에서 거행된
집행위원회의 회의가
88년 서울 올림픽대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한국의 국민과 SLOOC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특별히 친필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식에서
태권도 시범이 훌륭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CITIUS ALTIUS FORTIUS

THE PRESIDENT

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
CHÂTEAU DE VÉLY 1007 LAUSANNE SUISSE

Dr. Un-Yong KIM
Vice-President
Seoul Olympic Organising Committee
SEOUL / Republic of Korea

Seoul, 21st September 1986
Ref. No. 7189 /86/dol

Dear Dr. Kim,

May I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thanks and appreciation for the kind hospitality which has been extended to all members of the Olympic Family during our stay in your country.

Our meetings here have been highly successful and have, I am sure, greatly contributed to the preparation for the Games of the XXIVth Olympiad in 1988.

May I also congratulate you on the outstanding success of the 10th Asian Games.

I should be most grateful if you would convey our thanks to the members of the SLOOC.

Yours sincerely,

Juan Antonio Samaranch
Juan Antonio SAMARANCH

*Taekwondo in the Op. Ceremony
was superb*

Neil

제1회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대표팀 파견



세계대학스포츠연맹(FISU)와 세계태권도연맹(W.T.F)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세계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거행된다.

이번 대회는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관장하는 FISU가 지난 7월 태권도를 공식종목으로 승인한 후 세계태권도연맹과 함께 주최하는 첫 대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3년도에 서울에서 당시 15개국에서 120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참가한 국제대학생태권도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번 대회에는 임원 6명, 선수 16명, 국제심판 2명 등 전체 24명이 출전하여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대회에 파견할 대표선수단 결단식이 지난 11월 20일 11시 30분부터 국기원에서 거행되었는데 김운용 총재는 이영기 단장에게 단기를 수여하며 선전을 당부했다.

〈대표팀 명단〉

- ▲단장 : 이영기 (대학연맹부회장, 신태양사 대표)
- ▲감독 : 최인범 (대학연맹전무이사, 경기대 교수)
- ▲코치 : 최영렬 (대학연맹실행사, 경희대 교수)
- ▲트레이너 : 하용성 (한국체대 조교)
- ▲남자선수 : 김철호 (한국체대 1년)
인해진 (한국체대 3년)
서정현 (경기대 2년)

제1회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대표팀.

- 최 운 (유도대 2년)
- 김용수 (동아대 2년)
- 김운태 (한국체대 4년)
- 박상식 (한국체대 4년)

- ▲여자선수 : 도재선 (성신여대 3년)
- 오명화 (경희대 4년)
- 임신자 (경희대 4년)
- 이운영 (경희대 1년)
- 김지숙 (경희대 2년)
- 전오순 (경희대 4년)
- 김현희 (경희대 1년)
- 장운정 (명지대 3년)

- ▲회의대표 : 엄석오 (대학연맹부회장, 양우당 출판사 대표)

- ▲국제심판 : 김영삼
조 동

- ▲섭 외 : 전영중 (대학체육회)

88대회에 아프리카지역 참가 확대계기

아비장 국제 태권도 경기대회 대표팀 파견

태권도 국제화의 취약지구인 아프리카지역의 태권도 보급확산을 위해 개최되는 아비장국제태권도경기대회가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코트디브와르 아비장 스포츠센터에서 거행된다.

아프리카지역에서 태권도는 지난 1983년도에 올아프리카게임에 채택된바 있는데 이번 대회 개최지인 코트디브와르는 아프리카주에서 가장 태권도 보급이 활발한 나라로 아프리카지역의 태권도 확산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85년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 7 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종합 2위에 입상한 바 있는 태권도 강국이다.

이번 대회에는 8 개국이 참가하는데 한국대표팀은 종합우승을 목표로 금메달 4 개 이상을 획득함으로써 국위선양은 물론 중주국 대표로서 경기기술교류 및 태권도보급심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이번대회 참가를 통해 아프리카지역의 올림픽 참가를 확

대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아비장국제태권도경기대회에 파견된 대표단은 임원 3명, 선수 8명으로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표팀 명단〉

- ▲단장: 엄운규 (협회 부회장)
- ▲감독: 이승규 (한국체대 교수)
- ▲코치: 주신규 (전 국가대표코치)
- ▲선수: 이종선 (한국체대)
김영식 (국군 제8688부대)
홍종만 (대한유도학교)
한재구 (제천시청)
박봉권 (한국체대)
문종국 (포항상공회의소)
이계행 (조선대)
강승우 (국군 제8688부대)



아프리카 지역순회 시범단 파견

태권도 보급 및 국위선양에 일익담당

태권도의 기수로 세계에 태권도를 알리는 시범단이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됐다.

이종우 단장을 비롯한 임원 3명, 선수 14명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시범단은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에집트, 이디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가나, 코트디부아르 등 6개국에 파견되어 태권도 시범을 보이며, 태권도 보급의 가교역할을 함은 물론 국위를 선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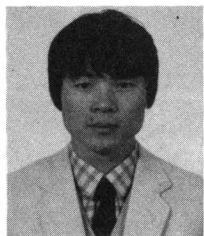
파견단은 다음과 같다.

▲단장 : 이종우 (세계연맹 부총재)

▲감독 : 송상근 (세계연맹 사무차장)

▲총무 : 조희석 (세계연맹 국제부장)

▲시범단원 : 김영작, 박덕규, 이규형, 이종관, 최봉호, 구정회, 김현성, 김충석, 최광근, 이상현, 윤준철, 이재봉, 표낙선, 조성철.



인사동정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교학과장 : 양진방
1986년 11월 1일부로 발령

1957년 10월 9일생 · 영남대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 학원 체육학과 졸업 · 현 서울대학원 체육학과 박사과정 수학중.

체육인선교회 태권도 사범 선교훈련 세미나

「구원의 확신과 세계선교사명 고취」라는 제목으로 지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의정부소재 동신교회 청소년 훈련원에서 세계 체육인 선교회(회장:이광훈목사) 주최로 태권도사범 선교훈련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의 목적은 전 세계에 진출하려는 국내의 태권도 사범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하고 선교훈련을 시켜서 체육을 통한 복음의 사도로 세계 각국에 파송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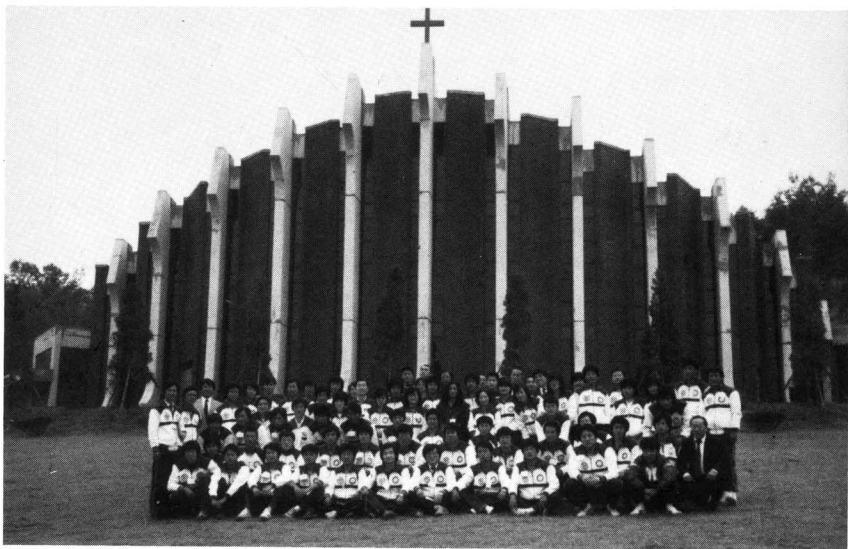
이러한 목적하에 세계 체육인 선교회에서는 관련기관인 충현교회 북한선교원에서 추리닝 150벌과 식비 130만원, 동신교회에서 수련장 제공, 운전기사 선교회

에서 택시 13대, 극동방송국에서 홍보를 담당하는등 협조가 있었다.

10월 8일 오후 3시 체육인교회(화양동 소재)에서 등록을 마치고 의정부소재 동신교회 기도원에 도착하였다.

이날 이광훈목사는「태권도사범님들은 해외에 파송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느님께 헌신되어지는 자세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격려의 기도를 하였다. 이어 찬양, 설교, 영화상영등의 프로그램으로 첫날 저녁을 보냈다.

9일 기상과 동시에 정학봉(대한신학교 교수)목사는



의정부소재 동신교회 청소년훈련원에서 세미나에 참석한 사범들.



초청간사 정학봉
(대한신학교 교수)
목사가 열강하고 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자세를 강의하였고, 에어로빅 체조시간으로 운동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박형서(전, 중등 선교사)목사는 「땅 끝 최후까지」란 제목의 강의로 참가자들에게 선교적 도전을 주었고, 임경섭(극동방송 부사장)장로는 「한국과 한민족」이라는 제목으로 개인 간증설교와 함께 우리민족의 생존과 번영은 기독교 신앙에 달려 있으며, 우리민족이 독립하고 발전한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임을 강조하였다.

훈련원(기도원)을 제공한 한기원(동신교회 당의장)는 기독교의 교회발전과정에 있었던 야사를 흥미롭게 강의하였고, 82년도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리스트인 김남숙선수의 간증, 임마누엘 선교 중창단의 찬양등으로 진행되었다. 저녁 예배시간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하는 시간이었다.

이광훈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범 33명의 결신자가 났으며, 기도설정자가 47명, 십일조생활 결신자 26명 등 풍성한 성령의 결실이 맺어졌다. 또한 전체 개인 간증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과 선교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귀침하였다.

10일 새벽예배를 폐회로 준비된 버스편으로 서울을 향하여 2박 3일의 선교훈련 세미나를 마쳤다.

이번 훈련세미나를 통하여 얻은 효과는 첫째 예수그

리스도를 모르던 사범들에게 복음을 영접시켰고,

둘째, 기독교태권도인에게는 선교의 사명을 일깨워 새로운 자극을 주었고,

셋째, 각층의 태권도인이 기독교를 구심점으로 하나가 되었으며,

넷째, 태권도 선교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또한 개인 간증시간을 통하여 목사님의 안수로 2명이 병을 치료받는등, 자극과 도전으로 달구어진 용광로였다.

세미나에 동참하였던 합기도사범들도 합기도계에 이러한 세미나 개최를 원하여 각 체육계에 이러한 유형의 세미나가 확산 될 전망이다.

세계 체육인 선교회에서는 공산권과 제3세계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어 태권도 시범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세계 체육인 선교회에서는 1987년 1월 중순에 제2회 태권도사범 선교훈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독교 태권도사범은 물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뜻 있는 사범들의 많은 참여를 환영하고 있다.

제5기 2급지도자교육

제5기 2급지도자교육이 태권도지도자 연수원에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태권도 지도자의 자질향상은 물론 스포츠에 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통하여 태권도 발전과 한국체육발전을 기하고자 마련되는 태권도지도자 2급과정 중에 총 100명이 강의를 받고 전원이 수료했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주동현	이 연	최정만	이 진	서범식	고명안
오기성	김이진	안호율	오정관	강영옥	윤덕영
하현우	최종숙	민준원	양인옥	정명식	이효덕
손용덕	김길호	정철훈	김유복	이문식	윤종식

조성운	임준형	송종욱	박종천	이상달	김정술
조성시	배진복	김광현	김석태	최은정	유병훈
정장열	박재용	지용범	강석한	김학근	오홍균
최운기	이운세	김경호	김갑동	황봉하	박정옥
김영재	조기훈	신승하	박기양	강태종	여대현
윤재수	설선기	연규현	안명일	장용갑	송동식
지용태	김경일	이준호	김진섭	권영내	최병열
이상언	박형규	박형두	이윤중	박완규	신병현
이용영	조영선	이용우	박종일	정보화	유병운
이수관	김용곤	이종철	오형석	오명근	오수곤
허의식	김정대	이봉학	박용국	양영모	서동현
김경배	이덕수	이춘우	김익환	유석찬	이신길
이성용	임운택	최상구	신상은	(이상 100명)	

선수용품 기증 프로스펙스 심재영 사장

프로-스펙스(주식회사 국제상사)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 거행되는 제1회 세계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에게 선수용품을 기증하였다. 프로-스펙스는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등 각종 태권도 국제대회에 선수용품 스폰서로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지난 11월 17일 특판과 황용수씨가 심재영 사장을 대신하여 전달한 선수용품은 본 대회를 위해 특별제작한 대형가방 23조외에 10여종(시가 500만원 상당)의 기증품을 전달하였다.

제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선수로 출전, 우승한 메달리스트인 황용수씨는 프로스펙스에서 태권도경기용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태권도화 헤드기어 호구·도복등을 새롭게 개발 제작할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국내 태권도용구 생산업체의 영세성에서 벗어나 대기업에서 참여함으로써 태권도 세계화의 촉진제가 되리라 기대된다.

기증품목 :가방(대) 1개, 가방(소) 1개
(1명당) 주레닝 2벌, 도복 2벌,
담 북 1벌, 파카 1벌,
T셔스 1개, 태권도화 1족,
런닝화 1족, 양말 2족
기타 판촉물 다수.



제52기 지도자교육

제52기 지도자교육이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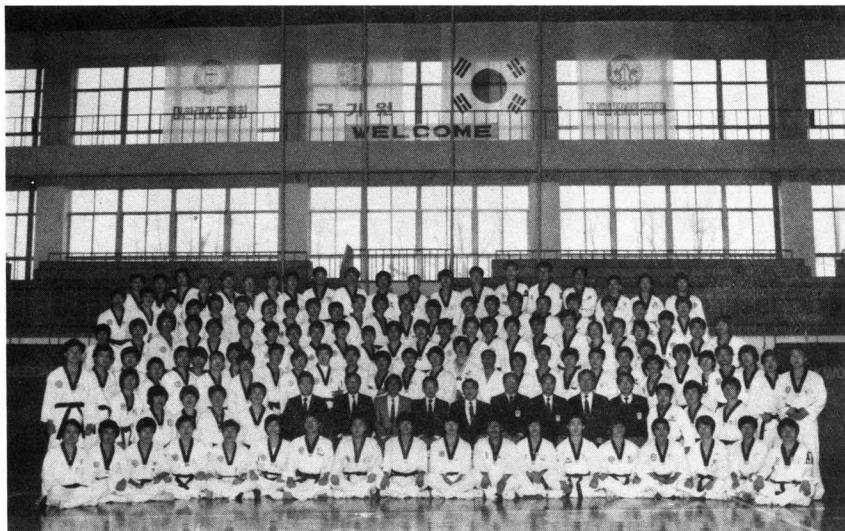
3급 경가지도자의 길을 걷게되는 관문인 이번 지도자교육에는 총 172명이 등록하였고 그중 124명이 수강하였다.

총 28개 과목에 해당하는 다양한 교육이 70시간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지도자교육 수료식에서는 조기승, 임재수, 최종대, 김화영, 박종실 등 5명이 우등상을 받았고, 안정웅, 이종영, 이경상, 송석중 등 4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그밖에 제52기 지도자교육의 관문을 통과한 수료자는 다음과 같다.

주민호	강규섭	강성태	조기승	김대호	김선호
김학열	남경태	이진혁	이병도	김봉순	전성한
김연수	임선택	강경래	유효열	이동우	박병순
전갑길	정삼언	심재완	한기광	홍의섭	정규철
조종훈	강완희	박종실	김현권	박만규	김문수

신현식	양명은	김진영	박근원	조용환	임영길
임승재	이철민	강성환	추해광	나일성	이구삼
조의장	임재수	한철원	지화수	김춘기	고억만
김기호	이경상	권영삼	박철호	박민서	김종화
유서춘	안두연	현석환	윤원근	한철규	강권구
장현식	신정수	김용기	김기조	이상호	이종현
최오암	임홍택	최종대	정상식	백철종	이종영
한광욱	박종은	김재혁	배용섭	장세순	김봉도
정우선	좌민경	노재관	최선진	강재진	이창희
문석주	조혈재	송석중	박상호	최경식	김지화
장양수	김충열	송인안	김영면	김영환	김기철
이윤호	정성우	최충순	이재욱	위무식	홍순일
고석우	이병희	이인배	이경호	김선일	박태봉
안정웅	김원규	김대복	김성태	배상수	구용준
강문성	임재순	구재현	이동호	김지연	박건배
박홍구	이재봉	홍춘식	문현도	김화영	박태현

(134명)



서울 대성 중·고등학교

전국 제일의
유단자 배출
학교

서울 대성 중·고등학교에서는 86년도 11월에 실시된 승품 및 승단심사대회에 826명이 응심하여 개교 이래 가장 많은 유단자가 배출되었다.

대성 중·고등학교는 1969년 개교 이래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 태권도를 교기로 삼아 매년 수백명의 유단자를 배출하여 현재까지 그 수는 수천명에 달한다.

이는 대성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3년 동안의 교육 과정 중에 태권도를 수련하게 되어 졸업 시에는 졸업장과 함께 태권도의 단증을 보유허게 됨으로써 학교의 자량이기도 했다.

대성 중·고등학교에서는 “심신 단련, 상부상조, 애국충성”을 목표로 하여 강석규 이사장(제2대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 연맹회장)과 박기상(중)·강석재(고) 교장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전교생이 체육 시간에 태권도 수련에 임하고 있다.

매년 1회씩 거행되는 승품 및 승단 심사는 학교 자체에서 엄중한 승급 심사를 거쳐 실시되고 있는데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서울시 태권도 협회에서 나온 심사위원들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대체로 실력의 향상을 보여주어 심사위원들로부터 칭찬과 격려가 있었다.





10월10일~11일, 국기원에서 개최

서울특별시 교육감기쟁탈 초중고 단체대항 및 개인 선수권대회가 지난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년중 4~5회의 경기를 치르는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의 올해를 마무리 짓는 비중있는 경기로 서울특별시협회의 엄운근 회장을 비롯한 태권도 관계자와 교육위원회 최열근 교육감 및 임직원, 태권도 선수 및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대회를 치루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안홍고등학교와 대원의국어고등학교 선수들이 지도코치없이 자체적으로 수련하여 대회에 출전, 안홍고등학교는 종합 3위의 영광을 안았고 대원의국어고등학교는 개인 3위입상자를 3명이나 배출해 눈길을 끌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그동안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던 중등부 경수중학교가 동성중학교에 1위를 넘겨주고 한영중에 이어 3위로 밀려났으며 고등부에서는 작년에 이어 서울체고가 2연패를 달성했다.

이번대회의 단체종합성적과 개인 체급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단체종합성적

부별	입상순위	1 위	2 위	3 위
국민학교부		한강국교	개포국교	장곡국교
중 등 부		동 성 중	한 영 중	경 수 중
고 등 부		서울체고	성 동 고	안 홍 고

개인체급별 우승자

체 급 별	초 등 부	중 등 부	고 등 부
권 급	양현호 (경희국)	김진일 (동성중)	조기현 (성 동 고)
플 라 이 급	황인석 (개포국)	박만석 (경수중)	양정석 (체 육 고)
페 더 급	이철규 (장곡국)	서덕수 (경수중)	양준열 (체 육 고)
벤 텀 급	강창석 (한강국)	김인경 (한영중)	김병갑 (성 동 고)
라 이 트 급	김봉석 (개포국)	국찬호 (동성중)	이종은 (성 동 고)
라이트페더급		김성진 (배명중)	
웰 더 급	김형모 (한강국)	심기훈 (동성중)	양대승 (서울체고)
라이트미들급		조창현 (신림중)	
미 들 급	천창영 (교동국)	박진석 (경수중)	신경옥 (서울체고)
라이트헤비급		이현석 (동성중)	
헤 비 급	김선호 (면목국)	홍종철 (배명중)	박희석 (성 동 고)



전남 태권도 협회 신임 집행부 구성

전남 광주시가 11월 1일자로 직할시로 승격함에 따라 전남태권도협회의 임원 중 10여명의 이사가 광주직할시 협회로 분리되어 나가게 됨으로써 전남태권도협회는 지난 9월 6일 전라남도체육회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 임원을 선임하였다.

이날 대의원총회에는 22개의 시·군지회중 20개 시·군지회 대의원이 참석하여 임형연이사를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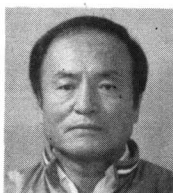
지난 84년부터 전남태권도협회 이사로 일해온 임형연회장은 목포시 태권도협회의 창립 등 지역태권도 발전을 위해 일해온 공로로 이번에 전남태권도협회 회장으로 추대되었는데 그는 태권도 고단자(7단)임과 동시에 목포시 삼화조선공사와 신한여객 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기업인이기도 하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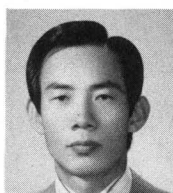
- ▲회 장: 임형연
- ▲부 회 장: 강형대, 김정록, 조영기, 권갑수
- ▲전무이사: 박창웅
- ▲총무이사: 방진욱
- ▲경기이사: 김현수
- ▲감 사: 이정남, 김이현
- ▲이 사: 김영일, 양일모, 강진산, 이천석, 임기남, 김순식, 이명섭, 장수남, 박봉선, 김원규, 고경일, 강성호, 이창규, 임동길, 조철현, 박재수, 최경양, 이용우, (이상 28명)



회 장: 임 형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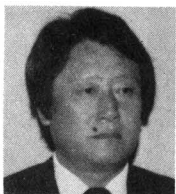
부 회 장: 강 형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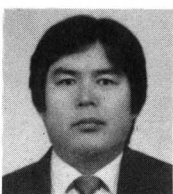
부 회 장: 김 정 록



부 회 장: 조 영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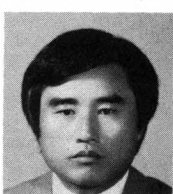
부 회 장: 권 갑 수



전무이사: 박 창 웅



총무이사: 방 진 욱



경기이사: 김 현 수

제 1 회 주독 대한민국 대사 배 국제 태권도대회 개최

— 재독대한태권도협회 —

독일 태권도 및 유럽지역에서 효율적인 협회운영 및 대회개최로 태권도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독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제 1회 주독 대한민국 특명 전권대사배 태권도 국제대회를 지난 6월 1일 도르트문트 시립 체육관에서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종주국 대한태권도협회, 주독 대한민국대사관, 재독 한인 연합회가 후원한 이날 대회에는 영국과 룩셈부르크



대사배를 차지한 무사도태권도체육관팀.

에서 각 1개팀, 서독에서 32개팀이 참석하여 총232명의 선수가 출전하였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이유환 회장의 격려사(이시호 영사관 대독)가 있었다. 이어 개막식행사로 한인 어린이 무궁화 한글학교생들의 고전무용과 한국사범의 시범이 있었다.

경기를 마친후 시상식에서는 윤종현 참사관이 대사배를 증정했는데 1위는 서독 쾰른의 무사도태권도 체육관, 2위에는 서독 베를린 김 태권도 체육관, 3위에는 영국의 한유건 태권도장이 차지하였다.

한편 재독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앞으로 연중행사로 이 대회를 치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막식 행사에서 한인어린이들이 펼쳐보인 고전무용.

진리의 샘

한국인(韓國人)이여!!
부정(不正)과 부패(腐敗)와 싸우라!
국민(國民)이 되어다어<스코필드>

한국인 이상으로 한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외국인을 든다면 스코필드(石虎必: 한국명)박사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임종(臨終)하기 며칠전 병상에서 한국인에게 이 말을 보냈다.

이 말은 한국인에게 보내는 그의 간절한 기도요, 마지막 유언(遺言)이요, 엄중한 채찍질이다.

스코필드박사는 1888년 영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19세 때 큰 뜻을 품고 캐나다로 건너가 토론토대학 수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916년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는 소아마비로 불편한 몸이었지만, 3·1 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의 야만적 탄압상의 사진을 수 없이 찍어서 일제(日帝)의 만행을 세계에 알렸다. 유관순(柳寬順)양을 서대문형무소로 찾아가서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고, 총독을 방문하여 일본과 만행에 항의했다.

그는 한국(韓國)의 자유(自由)와 독립(獨立)을 위해서 싸웠다.

스코필드 박사를 3·1 독립선언의 34인이라고 일컫는 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는 1970년 4월 12일 81세로 영면(永眠)했다.

「내가 죽거든 한국땅 햇볕 따사로운 터에 묻어 달라」는 그의 소원대로 그는 제2의 조국인 한국땅에 묻혔다.

부정부패는 한국의 공적(公敵)이요, 우리 사회의 병(病)이다.

그는 풍요사회(豊饒社會)에 앞서서, 정의사회(正義社會)의 건설을 역설하였다.

부정부패와 용감하게 싸우는 국민이 되어 달라고 말한 스코필드박사의 이 말을 우리는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



〔圖〕 스코필드(Frank W. Schofield 1888~1970)

영국의 의학자·선교사. 한국식 이름은 석호필(石虎必). 1916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세균학교수로 내한한 후 3·1 운동이 일어나자 교직을 포기하고 3·1 운동에 적극 협력하면서 일제의 포악상을 외국에 알렸다. 1920년 조선총독부 당국에 의해 강제출국을 당할 때도 총독에게 청하여 옥고(獄苦)를 겪고 있는 이상재(李商在), 이갑성(李甲成), 오세창(吳世昌) 등 한국의 독립지사를 일일이 면회 격려할 만큼 한국 독립의 숨은 협력자이었다.

귀국 후 캐나다에서 대학교수로 있다가 1958년 우리나라 정부수립 10주년 경축식전에 초빙되었으며, 1969년에 우리나라에 영주하여 여생을 마친 친한파(親韓派)인사이다.



평화의 댐 건설자원을 위한 태권도인 모금운동

태권도 3개 단체인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북괴의 금강산댐 건설에 따라 위협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으로 실시하는 모금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족단합의 분위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3개 단체 간부연합회의를 12월 5일 개최하였다.

국기원에서 가진 이 회의에서는 평화의 댐 건설자원을 위한 태권도인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국제적으로는 세계태권도연맹 산하단체에 적극적 참여를 홍보하며 대한태권도협회는 각 시도 및 일선도장이 적극참여하도록 홍보하기로 하였다.

▲모금기간 : 1986년 12월 6일~87년 12월까지 1년 간으로 하되, 87년 3월까지 4개월간을 집중 모금기간으로 설정했다.

▲모금방법 :

- ① 태권도의 승품, 단심사 및 각종 경기대회 기간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 ② 일선 단위 태권도장별로 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며
- ③ 모국방문 등의 해외 사범들에게 모금운동 취지를 홍보, 적극참여토록 한다.
- ⑤ 모금함 (대형 1개, 소형 3개)을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에 비치하고 수시로 모금에 참여하도록 한다.

▲평화의 댐 건설지원 태권도인 추진위원회

위 원 장 : 김운용

부위원장 : 염운규, 홍종수, 배종호

위 원 : 강원식, 황춘성, 이장원, 김용휘,

김병운, 정관섭, 송봉섭.



전국추계종별대회에 처녀출전 큰 성과올려 실업팀 창단의 디딤돌 마련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태권도회



김재명 (지하철공사 사장)



이기동
(태권도회 회장·비상기획실장)



김영희 (사 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사장 김在明)에는 직장인들이 모여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몇 안되는 곳 중의 하나이다.

직장 체육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체력관리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아래 지하철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을 주축으로 지하철공사의 직원들이 태권도를 연마하여 오다가 1986년 8월 12일을 기해 600여명의 회원이 모여 태권도회를 창단하였다.

회원은 직장인들 모두가 직업을 떠나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데 주로 격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비번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심신을 단련하기도 하며 한자리에 모여 태권도를 수련하여 동료들 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다.

태권도회가 창단된지 오래지 않은 시일에 금년 국가원에서 실시한 승단심사에서 110명이 유단자로 공인을 받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하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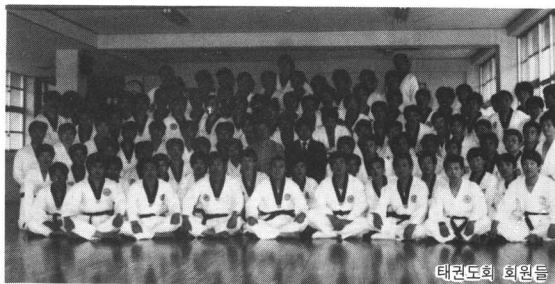
의 김재명사장의 배려가 컸다는 것이 태권도회원들의 중론.

지난 10월 14일에서 18일까지 제 1회 추계종별선수권대회가 개최된 국가원에 지하철공사에서 9명의 선수가 참가하자 이를 직접 격려하러 나올 정도로 태권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김사장은 태권도회원 100여명이 동시에 수련할 수 있는 실내도장을 지축차량기지내에 마련하여 주며 그동안 사기를 드높여 주었다는 것. 이번 대회에 처녀 출전한 지하철공사팀은 웰터급에서 금메달 1개를 딴 것을 비롯해 은 3, 동 3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올렸다.

태권도회장을 맡고 있는 이기동 비상기획실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가일층 태권도회의 발전과 전사원의 태권도붐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뻐했으며 수련생들을 지도한 김영희 사범은 「앞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명예를 걸고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를 치루고 나서 회사의 지원상황이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태권도회는 내년도 대통령기에 대비해 열심히 운동에 임하겠다고 한다.

지하철공사에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한 선수를 스카우팅하는 문제를 고려 중이라며 실업팀 창단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태권도회 회원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지난 7월 1일 본교 대학원을 졸업한 12명의 동문들이 기금 일천만원을 마련해 김종민씨를 회장으로 한 성균관대학교태권도선수단육성회의 발족을 보았다.

육성회는 장학금중 하반기분 일백만원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개원 20주년 기념일에 조좌호총장에게 전달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성균관대학교 태권도부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아래 모인 육성회는 세계 각국의 대학교와도 친선교류태권도대회 등을 가질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국내의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뒷바라지는 물론 금메달을 획득하는 선수들에게

는 격려금을 지불하는 것 등으로 선수들의 사기를 드높여 성균관대학교의 태권도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대학교 태권도팀은 지난 1948년에 한국에선 초유로 태권도 대학팀으로 창설되어 현재 8명의 선수와 60여명의 부원이 있으며 국가대표출신 선수만도 홍성천, 노수상, 강의성, 황용수, 김상천, 유종만 등 10여명이 있다.

현재 태권도팀 부장으로 현 체육실장인 강인섭 교수, 코우치로 김홍수선생이 있다.

학교에서는 태권도 선수를 스카웃 하는데 있어서 4년간 장학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고 선수들이 학

과선택을 자유로이 할 수 있어 자기의 적성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은 물론 타학과와의 친선경기 및 세계각국의 대학과 자매결연으로 교환경기 및 학생간 상호 교류를 도모하는데 여러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성균관대학교는 수원에 있는 자연과학캠퍼스내에 최신식 실내체육관을 마련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태권도 경기를 치루기도 했다. *

성균관대학교 태권도선수단 육성회



회장
金 鍾 旻



부회장
安 昌 南



부회장
安 昇 雨



간사
羅 南 珍



간독점이사
李 撓 貞



코치점이사
金 興 洙



재무이사
孫 二 粉



홍보이사
朴 贊 奎



기획이사
趙 康 來



성외이사
尹 吉 熙



경기이사
金 允 喆



총무이사
趙 在 煥



태권도지도자교육 현황과 개선점

- 제5기 지도자 2급 연수과정을 실시하고 -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체육부에서 전 경기종목을 대상으로 일괄 주관해 오던 2급 경기 지도자 연수과정이 태권도에 한해 국기원 지도자 연수원으로 이관되어 시행되어 온후 다섯번째의 교육을 마무리면서, 태권도 지도자들의 최고 교육과정으로 이론교육의 확립과 함께 지도자들의 자질향상에 기여도를 높여가고 있다.

금번 5기 교육은 전국에서 모여든 100명의 지도자들이 이제까지의 태권도 연수과정과 지도경험을 되돌아 보며 보다 과학적인 이론과 보다 고급의 기술을 접하고 익히기 위하여 3주에 걸쳐 열성적으로 교육에 임하였다. 오랜 시간동안 책과 멀어져 있었던, 더구나 강의나 수업과는 거리가 멀었던 태권도 지도자들은 어색함마저 보였지만 차차 분위기에 익숙해가자 오히려 젊은 교육생보다 더욱 열성을 보여 후배들의 모범이 되면서 교육 분위기를 이끌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국내 유수의 체육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된 전공과목의 강의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이 교육의 진가를 인식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체육학의 강의를 통해서 현장 지도에서 이론의 필요성과 가치를 절감하게 되었다고 토로하였다.

교육말미에서 가진 설문조사와 평가토론을 통해서 나타난 지도자들의 교육소감과 의견들은 본 교육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뜨거운 격려가 있었으며, 다양한 건의와 함께 즐거운 에피소드로 풍성하였다.

교육생들의 목소리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교수진과 강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만족한다」「최고다」「이제야 이론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등으로 극히 만족해하는 편이었으나 그속에서도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을 소화해야 함으로써 강의내용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너무 진도위주라는 지적들도 있었다.

현재 2급과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교육생들은 한결같이 실제 지도현장에서 필요성이 큰 수기법(手技法) 스포츠 맞사아지 또는 점골(接骨), 태이핑법 등에 대한 요구가 컸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현재의 2급과정의 운영체제가 체육부령에 의해 결정된 커리큘럼을 그대로 실행할 수 밖에 없는 지도상의 한계로 해서 그 요구들이 쉽게 수용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본

교육이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 교육과정 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태권도의 특성을 심본 살려 나가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현장감있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연수원의 자체교육 프로그램으로써 일선 지도자들에게 필요성이 큰 분야들을 우선적으로 특별강좌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교재의 빈약함 또는 개설된 과목중 교재에 내용이 켜지지 않은 과목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보다 충실한 교재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수강생들이 연수원에서 제공하는 교재만으로 공부하려는 단일한 자세가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연수원이 제공하는 교재는 강의의 전체적인 개요와 진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교재에 실린 과목별 추천도서를 구입하여 보다 충실한 공부를 하려는 자세가 아쉬웠다. 참고도서를 연수원내에 많이 비치해 두기를 바라는 점이나 필요한 교재들을 직접 판매해 주기를 바라는 건의들은 적극 검토중임으로 곧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론과목들과는 달리 지도자들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더욱 중요한 분야로 여겨지는 실기지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사항들이 지적되었다. 용어의 통일, 기술이론의 체계성, 과학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품세 동작의 통일성이 문제로서 지적되었다. 또 품세만으로 이루어지는 실기지도에서 벗어나 경기기술이나 보다 과학적인 훈련기법, 새로운 기술적인 흐름 등이 지도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일선 도장운영에서 중요한 유아들의 실기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도 요망되었다.

국기원이 태권도의 중앙도장 또는 최고도장으로서 몇몇한 몫을 다하기 위하여 이러한 교육내용상의 문제는 물론 전문적인 수련·교육도장의 건립을 서둘러, 국내 지도자들은 물론 중주국의 중앙도장에서 수련하기를 열망하는 많은 외국 태권도인의 바람을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어졌다.

연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비디오나 슬라이드를 이용한 시청각 기술교재의 개발과

자체의 기술이론서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그밖의 건의, 지적사항들로서 지도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보수교육이나 지방순회교육에 대한 요구와 장기적인 전문교육과정의 개설요의를 물어오는 교육생들이 적지 않았으며 지방 교육생을 위한 국기원 학습소 건립을 건의하는 소리도 있었다. 또 교육생의 구성이 연령과 학력 등이 다양해, 장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적지 않으므로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제안이 많았다.

이러한 교육을 계기로 무등록 도장에 대한 태권도 협회의 강력한 규제조치를 원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여튼 짧지않은 기간 동안 엄격한 규율에 순응하여 잘 따라주었던 수강생들에 고마움을 표하며 기동된 자리에 앉게되서 손해를 봤다는 수강생, 교육생들끼리 구기게임이라도 한번 하자는 인간적인 절규를 외친 수강생, 시험점 적게 치고 자율학습 시간을 줄여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던 수강생 여러분에게 건투를 빈다.

다시한번 제5기 수강생 모두에게 감사를 전하며 검정고시에서 전원합격을 빌어본다.

수강생들의 설문중에서

*교육은 많아야 한다. 우선 지도자가 많은 것을 배워야 후진들에게 많은 것을 전수 할 수 있고 또 심사에도 일관성이 있다. 교육이 적으면 적을수록 향상이 안된다.

*지도자나 고단자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너무 적다. 고단자심사에 응심하기 앞서 보수교육을 겸한 승단교육을 실시하자. 승단교육을 통해서 참 실력을 가진 고단자, 지도자를 국기원은 배출하라.

*지방에서 활약하고 있는 심사위원(원로사범)들에게 품세실기의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태권도 지도자연수원을 활성화시켜서 그때 그때 변화하는 체육의 과학적 방법개발과 이론을 습득하기 위하여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었으면 한다.

*첫주는 지루했고 둘째주는 바빴고 셋째주는 아쉬웠다.

거울 속의 말희

글 · 정 중 수
그림 · 박 래 후



오래 전부터 말회는 제 키보다 더 큰 엄마의 경대 앞에 서서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장난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울 속의 말회와 뽀뽀를 하기도 하고, 가위 바위 보를 하거나 유치원에서 배운 춤을 가르쳐 주는 것 따위였습니다. 거울 속의 말회는 무엇이든지 말회가 하는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너무나 똑같이 흉내를 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신경질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가위 바위 보를 할 때 그랬습니다. 한번도 거울 속의 말회를 이겨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진 일도 없진 하지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거울 속에 한 번 들어가 보고 싶다……. 들어가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말회는 그날도 거울 앞에서 거울 속의 말회와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억수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장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거실에서는 아줌마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우르르 팡! 팡!”하고 천둥소리가 났습니다. 유리창이 흔들리고, 집이 흔들렸습니다. 말회는 너무도 무서운 나머지 엉겁결에 거울 속의 말회 쪽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순간, 말회는 이상한 세계속에 와 있음을 알았습니다. 말회와 똑같은 얼굴을 한 거울 속의 말회가 앞에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말회는 말회와 쌍둥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른 것이라곤 왼쪽 볼에 난 작은 점이 거울 속의 말회는 오른쪽 볼에 난 것뿐, 모든 모습이 그대로였습니다.

말회는 거울 속의 말회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차차 알게 될 거야.”

거울 속의 말회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넌 누구지? 나와 똑같이 생겼네.”

거울 속의 말회가 말했습니다.

“나는 네 그림자란다.”

“뭐? 네가 내 그림자라고?”

말회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회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눈이 휘둥그레진 말회는 거울 속의 말회 손을 꼭 쥐고 걸음을 같이했습니다. 거울 속의 말회를 따라 몇 걸음 걸자니 어느 집에 다다랐습니다.

“여긴 누구 집이야?”

말회가 주춤거리며 거울 속의 말회를 쳐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말회는 빙그

레 웃는 낯으로 말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말희의 엄마, 아빠가 있었습니다. 말희는 자기가 거울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서 뭐해?”

말희는 엄마 품에 안겨들었습니다. 말희의 엄마, 아빠는 말희보다 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거울 속의 말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말희를 데려왔구나.”

그러면서 아빠를 향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지요?”

거울 속의 말희 아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바깥 세계의 어떤 사람도 이곳에 온 일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알면 큰일이야.”

말희는 거울 속의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말희야, 너희들 둘이서 돌아다니면 절대로 안돼. 사람들한테 금방 들킨다.”

말희의 거울 속 아빠는 말희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너를 만나니 기쁘다. 말희한테 네 얘기는 그동안 많이 들었다.”

말희는 거울 속의 말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날마다 멋진 춤을 가르쳐 주었다며?”

말희가 그렇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는 잘 계시니? 네 아빠를 본 지가 참 오래됐구나.”

아빠는 잠시 눈을 감고 나서

“네 아빠가 외국 나간다고 옷차림을 단장하던 지난 봄에 보고는 그동안 통 못 보았구나.”

“엄마, 아빠, 우리 나가서 함께 살아요.”

그러자 거울 속의 말희네 식구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단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네가 몰라서 그래.”

엄마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좀 설명해 줘요.”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아빠는 거울 속의 말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말희 너는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돼. 알았지?” 말희는 아빠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말희는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하마터면 크게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짹

꿈 인석이 바로 앞에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말회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인석이 손에는 말회가 지난번 유치원에서 잃어버렸던 리코오더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인석이 갖고 있는 리코오더는 내 거야. 찾아 줘!”

“그래?”

아빠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안된단다. 바깥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을 여기서는 찾을 수 없어.”

인석이는 흘끔 뒤를 돌아보았으나 못 본 척 그냥 달음박질로 뛰어갔습니다.

“아빠, 어떻게 인석이 여기 있어요?”

아빠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깥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여기에도 있지. 사람이란 누구나 다 제 그림자가 있으니까.”

말회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앞 못보는 장님 아저씨가 막대기를 짚고 길바닥을 더듬거리며 오고 있었습니다.

“으응, 육교 위에서 보던 저 아저씨도 여기 있네!”

말회는 아직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거울 속 마을은 참 이상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몇 마리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지만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사람들도 전혀 말소리를 내지 않았었습니다. 입술을 움직여 말을 하긴 해도 말소리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아빠,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잘 들어 보렴. 내 목소리도 안 들려지?”

“그래요, 아빠.”

“그렇지만 아이들을 수는 있지?”

정말 그랬습니다. 이곳은 아주 말짱고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처음 거울 속의 말회를 만났을 때도 거울 속의 말회 목소리는 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는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지. 무엇이든 그냥 알 수 있으니까.”

말회는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의 마음이 흰히 들여다보였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말회를 사랑하는지 그냥 알 수 있었습니다. 말회는 아빠한테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가끔 투정부리던 일이 생각나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웬찮다. 네가 나를 보고 네 아빠 마음을 알게 되어 기쁘다.”

그때 말회네 옆집 영만이 아빠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빨리 걸어가?”

“늘 마음이 급해서 그렇단다. 저 아저씨는 바깥 세상의 영만이 아빠가 큰 부자라며 자랑이 대단해. 그렇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지.”

“왜요?”

아빠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손을 들어 길 건너 쪽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니다.

“보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

아빠는 그러면서 손을 펴보였습니니다.

“아빠를 보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니? 여기서는 말이다, 무엇을 갖고 다니는 걸 몹시 부끄럽게 생각한단다.”

말희는 무엇인가 좀 알 것 같았습니니다.

“그럼 아빠는 나한테 인형도 못 사주겠네.”

말희는 조금 서운한 투로 말했습니니다.

“선물 말이냐?”

아빠는 활짝 웃음을 띠었습니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길가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푸른 코스모스 한 송이를 꺾어 주었습니니다.

“여기는 인형이 없어.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대신 이 꽃을 주마.”

아빠는 말희의 컵바퀴에 꽃을 꽂아 주었습니니다.

“말희야 잊지 말아라.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말희는 바깥 세상의 엄마, 아빠도 이곳에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니다.

“바깥 세상 사람들은 거울 앞에 설 때 제 마음을 보아야 해.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일거야.”

아빠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또 하나의 자기가 자기 마음쓰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그제서야 말희는 거울 속의 말희가 ‘난 네 그림자란다’라고 한 말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니다.

아빠 손을 잡고 말희는 커다란 광장을 지났습니니다. 광장의 시계탑은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니다.

“너무 늦었구나. 넌 밤이 되기 전에 빨리 돌아가야 된다.”

아빠는 말희의 손을 잡고 서둘러 아까 나왔던 거울 속의 말희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니다.

아빠가 거울 속의 말희를 불러 말했습니니다.

“서운하지만 할 수 없다. 말회를 데려다 주어라.”

그러나 말회는 좀더 많은 것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싫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 밤을 새게 되면 영영 바깥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돼. 어서 데려다 주어라.”

말회는 거울 속의 엄마, 아빠와 헤어지는 것이 슬퍼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말회는 거울 속의 말회에게 이끌려 거울 속의 말회를 처음 만났던 곳까지 왔습니다.

“여기야.”

거울 속의 말회가 말회 키보다 더 큰 붉은 벽 같은 것을 가리켰습니다. 말회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곳으로 나가. 그러면 바깥 세상으로 나가게 돼.”

말회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의 말회와 헤어지는 것이 영 싫었습니다. 말회는 거울 속의 말회와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전부터 해주고 싶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넌 왜 가위 바위 보 할 때 내가 내는 것만 내니?”

거울 속의 말회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무엇이든 네가 마음먹은 대로 한단다. 네가 아름다운 꿈을 꾸면 나도 아름다운 사람이 돼.”

거울 속의 말회는 말회의 손을 꼬옥 쥐면서 눈짓으로 벽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서둘러야 돼. 어서!”

말회는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움직여 눈을 딱 감고 그 벽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썩그렁!”

말회 몸에 부딪쳐서 유리 같은 것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 있던 엄마, 아빠가 방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말회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에그머니, 이 피죤 봐.”

엄마가 생채기난 말회의 이마를 닦아 주면서 말했습니다. 말회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부딪치는 바람에 거울 속에서 본 것들을 죄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웬 코스모스지?”

방바닥에 떨어진 하얀(!) 코스모스 한 송이를 주워들며 아빠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 꽃을 말회의 컵바퀴에 꽂아 주었습니다.

말회 엄마는 깨진 거울의 뒷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가약력

정중수

197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197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

동화집

「아침이 오는 길」 등

현재 중앙일보사

「문예중앙」 근무.

태권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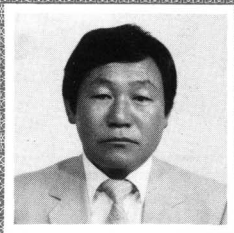
이향원





민족과 언어

구 유 서
(남북대화사무국 상근대표)



말이 역사적 문화적 산물일진데 ‘말’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 시각에서 조명되어야 하고 대중운동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 사랑의 바탕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같은 인종이 같은 자연환경 조건 하에서 오랜 기간
을 역사와 문화를 공유(共有)하는 공동운명체(共同運
命體)를 민족(民族)이라고 한다면, 민족집단(民族集團)
의 성립을 가능케 하는 내재적(內在的) 요소의 하나는
그 민족이 갖고있는 독특한 ‘문화(文化)’라고 할 수 있
다. 동일민족(同一民族)이라고 하더라도 문화를 공유
하지 못하게 되면 이민족화(異民族化) 하는 것이며 한
민족이 자기 문화를 상실하고 타민족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同化)되어 버렸을 때 그 민족 자체가 소멸(消滅)
되어 버린 사례(事例)도 우리 주변의 역사 속에서 허
다히 발견할 수가 있다.

가까이는 청(淸)이라는 대국을 세워 한족(漢族)을
지배한 바 있는 만주족(滿州族)이 한문화(漢文化)에
완전히 동화되므로 해서 역사 속에서 밀려나 사라져 버
린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오늘 중국 내의 소수민족(少
數民族)이 한반도(韓半島)를 지배 한 36년간 우리를 자
기네 문화에 동화시켜 민족을 멸절(滅切) 시키기 위하
여 우리 민족문화 말살정책을 집요하게 추진했던 사실
도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문화’란 인간이 갖고 있는 상징행위(象徵行為)와 상
징물(象徵物)등의 총화(總和)로서의 상징성(象徵性)과

가치판단력(價値判斷力)을 포함한 의미부여성(意味賦
與性)이라는 인간특성(人間特性)에 기초하고 있으며
한 인간집단이 공통적으로 창조, 소유, 전승하는 체
계화된 지식(知識), 사상(思想), 규범(規範), 신앙(信
仰), 예술(藝術), 법률(法律), 제도(制度) 등을 총체
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하나의 문화라
고 하더라도 나타나는 형태(形態)는 다양하다고 하겠
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양태(文化樣態)를 창조하는 근
원은 인간이 갖고 있는 상징(象徵) 할 수 있는 능력,
상징하려는 본성에 있는 것이므로 민족문화 간의 차이
는 그 민족이 특유하게 갖고 있는 독특한 상징성에 바
탕을 두고 그 민족이 살아온 역사와 환경, 나아가 주
어진 환경과 역사에 대응하는 민족특성에서 연유한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먼저 체득(體得)하는
인간 특유의 상징이다. 또한 ‘말’이란 그 집단의 역사
적 문화적 전승(傳承)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것이기
도 하다. 따라서 한 민족이 시대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고 이를 전승하며 또한 현재에도 다양한 문화적
양태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민족문화로서의 근원적 특
색은 그 민족이 과거에 사용했었고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말’의 독특성에서 찾을수 있을 것이다. 고유한

‘말’을 갖고 있는 민족은 상징형태(象徵形態)와· 사고 구조(思考構造), 나아가 이들을 기초로 하는 철학과 사상(思想)을, 그리고 고유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때 민족언어를 갖고있고, 그 민족언어에 대해 긍지를 느껴며 이것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것은 민족문화에 대해 긍지를 갖는 일이며, 민족문화에 대한 긍지를 갖는 하는 일은 바로 민족에 대한 자존(自尊)을 회복하는것이며 민족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그간 독특한 ‘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민족이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도 남다른 ‘말’을 사용해서 상징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남파는 다른 ‘문화’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 삼국시대 중기에 한자(漢字)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말’속에 한자말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사실의 하나는 신라시대에 사용되었던 이두문(吏頭文)이다. 이두(吏頭)가 어느 때부터 사용되었으며 어느 때 사라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고증(考證)은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말을 한자를 이용하여 표기했던 이두문(吏頭文) 시대에는 아직도 우리말이 대접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두가 사라졌다는것은 한자말이 우리말보다 우위(優位)를 점하기 시작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두문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말에 대한 민족적 비하(卑下)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하나의 ‘말’ 체계속에 다른 ‘말’이 끼어드는 것은 문화교류(文化交流)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말’ 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다른 ‘말’의 유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흘러들어온 ‘남의 말’이 ‘자기말’보다 더 우세한 지위를 차지한다거나 더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단순한 문화교류(文化交流)의 차원이 아니고 문화의 우열(優劣)이라고 하는 가치판단이 수반되는 일이며 민족성원 전체가 이것을 묵시적(默示的)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민족의 문화적 자기비하(自己卑下)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두개의 상이(相異)한 문화가 접촉하게 되면 어느 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또는 문화적 요인에 따라 우세(優勢)한쪽의 문화요소(文化要素)가 열

오늘의 우리사회를 되돌아 보면
‘우리말’의 현주소를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정치, 학문, 교육, 산업, 예술, 체육,
대중매체 그 어디를 보아도
너무나 심화된 ‘우리말’ 낯춤과
‘남의말’ 높임을 볼 수 있다.

세(劣勢)한 쪽으로 대량 이입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이입 또는 이전(移伝)되는 문화요소가 수용(受容)되는 과정에서 수용하는 문화의 자주성(自主性)이 확보되느냐 방기되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한 문화이전의 과정만으로는 볼 수가 없다. 자기 문화에 대한 자존을 스스로 포기하고 외래문화를 무조건 숭배 추종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자기문화에 대한 자 을 유지하면서 외래문화를 발전요소로써 창조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맹목적 추종과 창조적 수용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외래어의 사용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외래어를 자기말로 고쳐서 사용하는 것과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의 사이에는 위에서 말한 두가지 유형 즉 맹목적 추종과 창조적 수용이라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자말’에 대한 ‘우리말’의 낯춤, ‘일본말’에 대한 ‘우리말’의 낯춤, ‘영어’를 비롯한 ‘서양말’에 대한 ‘우리말’의 낯춤은 바로 ‘우리문화’에 대한 ‘남의문화’의 높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남의문화’에 대한 맹목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사회를 되돌아 보면 ‘우리말’의 현주소를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정치, 학문, 교육, 산업, 예술, 체육, 대중매체 그 어디를 보아도 너무나 심화된 ‘우리말’ 낯춤과 ‘남의말’ 높임을 볼 수가 있다. 이 ‘우리말’ 낯춤이 ‘우리문화’의 낯춤을 의미하며 나아가 ‘우리민족’ 낯춤 이라고 하는 민족자존(民族自尊)의 상실임을 발견할 수가 있으며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외래어가 난무하는 대학생의 공책장.

-우리가 주최하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우리말을 들을 수 없는 것-요즈음 같이 동시통역 시

설이 완벽한데도 말이다.

-우리말 교육은 밀려나고 외국어교육이 활개치는 국민 기초 교육.

-젓 떨어진 갓난아기에게 영어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영어공부시키는 젊은 잘난 엄마들.

-상품의 이름은 물론이고 점포 이름, 심지어 농약(農藥)이름까지도 외래어로 표기해야 팔린다는 사실.

-외국방송으로 착각할 정도의 운동경기의 중계방송.

-방송. 이름의 반 이상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대중매체.

이와같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혼란은 우리 시대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문화적 혼란과 자기비하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그대로 방치되어 나갈 때 우리의 사고 구조는 어떻게 변형될 것이며 우리의 사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를 돌켜 보면 옛날에는 지배층과 지식인들 중심으로 외래어가 통용되었고 외래어 사용이 특권층의 권위를 인정하는 한 방법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사의 기조(基調)를 형성한 일반대중은 소수에 편중된 교육으로 인해 외래어 습득의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해서 오히려 '우리말'을 지키고 전승하는 위치를 견지할 수가 있었다. 이와는 달리 현대적 상황은 판이하다. 대중매체의 일반화, 교육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 우리말의 보존자이며 전승자로서의 대중의 존재가 소멸되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일대 자각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말'의 유지 전승은 더욱 어렵게 되고 말 것이다. 여기에 국민적인 차원에서의 '우리말'과 '우리문화' 나아가 '민족'에 대한 자존회복운동(自尊回復運動)의 역사성이 있는 것이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상징력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대중적 합의에 근거할 때에만 비로서 '말'로서의 기능을 갖게되는 물론이다. 어느 한사람이 아무리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말'로서 쓰여진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말'에 대한 '자존회복'은 바로 민족전체의 '자존회복'과 직결되는 것이다. 민족자존회복에 대한 대중적 합의가 전제

되지 않고서는 '말'에 대한 자존회복은 힘들것임은 틀림없다. '말'이 역사적 문화적 산물일진데 '말'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 시각에서 조명(照明)되어야 하고 대중운동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 사랑의 '바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중적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민족의 문화적 자존을 회복하며 우리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자,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층의 민족의식 회복이다. 전문가들은 자기들의 영역에서 쓰이고 있는 외래어에 해당하는 적절한 우리말을 만들어내고, 또한 잊혀졌던 우리말을 찾아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각성이다. 대중매체가 갖는 국민교육적 성격을 깊이 인식하고 외래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지양하고 적절한 우리말을 찾아서 쓰는 노력에 힘을 일이다.

세째, 교육계 및 문화교육의 대오각성이 있어야 한다. 각급학교의 교과서는 물론이요 교육현장에서 스스로 자기문화를 낮추고 있는 민족비하적인 사고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것이다.

네째, 자발적 시민운동의 결집과 확산이다. 대학생들의 소규모 우리말 찾기 모임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말'이 갖는 문화적 의미와 우리문화에 대한 자존의 회복이 민족발전과 직결되어있음을 깨닫는 깨달음이 일어나야 하고 이러한 모임들이 서로 연결되어 한 가닥으로 엮여져서 더욱 큰 사회적 바람으로 일어나야 한다.

끝으로 정부당국은 국가적 사업으로서 외래어의 번역사업을 실시해야 할것이며 민간번역사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수많은 국민이 외래어를 해독하기 위해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음을 바로 알고 그러한 낭비가 없이도 정확한 우리말로 번역된 외국서적을 많은 국민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부 유학한 학자들이 학문을 독점하는 귀족현상을 방지할뿐 아니라 우리말을 제대로 보존함으로써 해서 우리 문화가 창조적으로 발전한다는 원리를 깨닫기 바란다. *

김진중 사범 한국문단 진출

소설 「방패연」 월간문학 신인상 수상

일선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우리 태권도 가족인 김진중사범이 한국문인협회(이사장: 김동리) 제정 제50회 월간문학 신인상에 소설「방패연」이 당선되어 정식으로 한국문단에 작가(소설가)로 데뷔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 태권도인의 또다른 면모를 과시한 점으로서 참으로 높이 평가를 받아 마땅한 쾌거로 인정된다.

김사범은 약관의 시절부터 태권도에 입문하여 현재는 국기원 7단 보유자로서 경기도 성남시에서 대호문 체육관을 개설, 15년동안 줄곧 후진을 지도하고 있는 일선사범으로서 우리 태권도계의 중진이다.

태권도와는 다소 생소한 느낌과 인상을 주는 소설작가로 변신한(?) 김사범은 문(文)과 무(武)를 겸비한 그의 탁월한 재능과 함께 그동안 꾸준히 기울인 노력의 결실인성 싶다. 그는 일찌기 학창시절부터 태권도를 수련하는 도중에도 연극연출에 몰두한 바 있고 아울러 문학수업에 진력하여 79년봄 순수연극「패거인생」을 11회 연출작품으로 내놓았고, 79년 가을 장편소설「모래성」을 쌓는 아픔을 출간하여 이듬해 80년 제 1회 성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본지를 통



해 연재소설「비오는 계절」을 2년에 걸쳐 집필했다. 그후 지방문예지와 동인지를 통해 단편소설을 발표하는 등 문학적인 업적을 착실히 쌓아 올렸던 것이다. 이런 김진중사범의 문학가로서의 자질과 노력이 금번 월간문학 신인상이라는 문단의 주목을 받는 화려한 관문을 통하여 찬란하게 빛나게 된 것이니 우리 전 태권도 가족의 경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소설가로 등단하는 길에는 세가지의 방법이 있다. 순수문학지의 신인상 당선, 추천작가의 추천완료(2회) 또는 신문사의 신춘문예 당선인 그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얼마간의 유보기간이 지나 한국문협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김진중사범이 이번에 거친 월간문학 신

인상 당선은 한국문인협회 기관지이므로 당선과 동시에 기성문인으로 대우하는 특전이 따르므로 그상의 권위는 더한층 확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번에 당선되어 수상의 영광을 누린 소설「방패연」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자의로든 타의로든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환경에 대한 또는 적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주인공(나)의 눈에 비친, 누나의 인생관과 죽음을 통해 인간애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생의 아픔과 굴절을 원숙하고 깔끔한 필치로 표현된 이 소설은 문학적 향취와 함께 진한 공감대를 갖게 되는 수작이라는 것이 작품을 읽은 이들의 한결같은 평이다.

우리 태권도계가 전 세계에 웅비의 날개를 펴고 있는 시점에 태권도의 정신과 철학을 문학적으로 정리하고 표방할 수 있는 소설가가 태권도인 중에서 나온 것은 우리 태권도인의 자랑이다.

태권도인의 불굴의 투혼을 간직한 김진중사범의 활약에 앞으로 우리 태권도의 심오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을 믿으며, 김진중 사범의 전도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스포츠·노동·노동시장

김 범 식

(서울대·성균관대 강사
스포츠 사회학)

I. 머리말

현대스포츠를 다루고 있는 많은 연구물 중 스포츠를 단순히 자기육구 충족을 위한 신체활동으로 보는 일반화된 가정은 스포츠론에 대한 모든 대안들을 오직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어지는 부수적인 것으로 전락시키곤 한다.

그러나 후기산업주의(後期産業主義)의 대두와 함께 스포츠의 이상주의(理想主義)에 대한 허구성이 백일하에 드러남에 따라 <스포츠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적 차원이 아닌 스포츠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스포츠론의 정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경쟁, 전략, 승리라는 내재적 특성을 가진 스포츠가 물질만능주의에 젖어있는 일반대중에게 어떠한 목적도 가지지 않은 단순한 오락으로 치장되기에는 사회, 경제적 변수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프로스포츠를 태동케 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나 순수한 오락적 기능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스포츠 활동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선수, 코치, 감독, 과학자, 관리자들은 "인간은 노동의 생산 속에서 존엄과 존재를 의식하며 창조적 과정을 통해서 자유로운 인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중략) 인간의 노동은 개인의

발달과 사회과정을 보장받는다." (H. Popitz, 1972, 7)라는 표현처럼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진정한 삶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글은 산업 또는 기계문명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스포츠의 노동적 특성을 살펴본 뒤 이를 생활수단으로 삼고 있는 운동 선수를 중심으로 임금결정구조 또는 임금불평등, 법적문제와 노동운동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스포츠와 노동의 관계

스포츠와 노동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간 행위라 할 수 있는데 양자의 역사적 기능과 행동적 특성에 비추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분리설(分離說)과 실제 생활에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다는 융합설(融合說)로 대별할 수 있다.

분리설은 스포츠와 노동이 신체활동 또는 신체행위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활동자체의 동기나 목적이 근본적으로 상이하여 스포츠가 오직 자신의 기쁨을 위해 행해지는 성취 경험과 관련을 갖는 반면 노동은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과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분리설은 Max Weber의 Ideal Type을 이용한 스포츠의 특성분류에서 명확히 구분되어지는데 Cail-

lois의 놀이론으로부터 출발한 J. Santomier의 진화론적 스포츠론이 대표라고 할 수 있다.

Santomier는 스포츠의 특성을 (1)허구성 (2)비생산성 (3)분리성 (4)미확정성 (5)규칙성 (6)경쟁성 (7)전술 (8)신체적 기량 등을 들고 특히 경제적 생산적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프로 스포츠는 스포츠의 활동이 아니라 직업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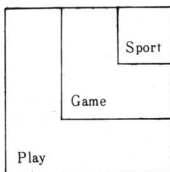
이러한 견해는 주로 W. J. Morgan, A. Guttmann, Suit와 같은 기능주의자들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있다.

융합설은 스포츠의 다원론적 성격에 비추어 공적 입장에서는 스포츠의 본질을 추구하지만 사적 입장에서는 직업과 상임주에 흐르는 경향이 있어 현실생활에서 노동과 똑같은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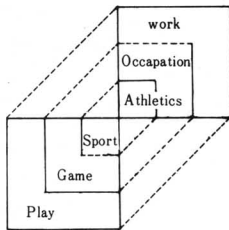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볼 때 운동선수가 운동경기를 통하여 금전의 보상을 받은 것은 고대 그리스의 문헌 뿐만 아니라 중·근세를 지나 현대에 이르러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고 스포츠를 생활수단으로 인기직업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Lüschen은 Santomier의 진화론적 특성 분류에 의한 스포츠 개념 도식(그림·1)에 의문을 제기하고 “스포츠란 목적적이고 합리적이며 노동과 같은 행위의 패턴을 모방하는 신체활동이다.” (A. Guffmann, 1981 : 103) 라고 주장한다. 그는 비록 스포츠가 놀이와 노동의 연장선상에서 중간단계에 있는 신체활동이지만 놀이는 노동쪽으로 노동은 놀이쪽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띠고 있어 오히려 스포츠는 놀이와 노동의 성격을 다 포함하는 융합적 관계 도식을 제시하였다(그림·2).

이에 대해 Leonard도 “선수의 경우 운동행위 자체로 본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마추어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은 공히 다 포함하고 있다.” (Leonard 1980 : 13) 고 주장한다.



(그림·1) Santomiere의 진화론적 Sport, Game, Play와의 관계도식



(그림·2) Lüschen의 스포츠와 노동의 관계도식

왜냐하면 만약 동기가 내적보상에 있다면 그 운동행위는 게임으로 규정해야하고 만약 외적보상에만 있다면 그것은 노동의 형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Leonard 1980 : 13).

III. 스포츠의 노동적 특성

노동은 인간이 자신과 자연의 물질대사를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매개하고 규제하며 제어하는 즉 인간과 자연과의 한 과정으로서 인류의 생존을 위한 생산성과 관련을 갖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은 규정적·정의적 개념을 떠나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해 보면 단순한 물질적 재생산 과정 뿐만 아니라 가치를 지향하는 능동적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적 재화가 아니라도 특정한 가치를 창출해 내는 행위—즉 미, 진리, 정의, 자유 등—도 노동의 적극적인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의 5대 특성으로 성취성, 기술성, 훈련성, 상품성, 관료화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스포츠장에서도 발견되어진다.

1. 성취성 (Achievement)

스포츠와 노동은 인간 성취를 기초로 한다. 운동기술을 금지시키기 위한 현대스포츠의 목적은 현대산업사회에서 노동자가 제공해야 하는 각종 기술의 발달에서 보는 것과 같이 노동의 과업 달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명백히 스포츠나 노동은 똑같은 업적의 수준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프로 스포츠의 경우는 기술과 전략에 대한 과

업 성취가 임금 계약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일반 노동에서와 같이 스포츠에서도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보상을 받는다.

2. 기술성(Technology)

현대스포츠는 처음엔 비경제적이며 경쟁적인 행위로 구성되었으나 자본주의 시장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체계로부터 유인되는 기술성은 노동으로서의 인간 계약을 가능케 하였다. 따라서 운동기술은 경제적·물질적 수준과 연계를 갖는데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상품이냐 성격보다 그가 생산해 내는 상품의 양과 질에 관심을 나타내듯이 스포츠에서도 선수의 개인적 성향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기량과 능력에 달려 있다.

운동 성취 목적은 C-G-S System (Centimeter-Cram-Second System)의 틀이나 심판의 물과 판정에 의한 점수제에 의하여 구성된다.

3. 훈련성(Training)

스포츠는 운동행위의 발전단계로 볼 때 단순히 노동의 세계를 모방하는 것 뿐이다.

이에 대해 J. Habermas는 “스포츠는 오랜 기간에 걸쳐 노동의 이상화의 한 단면이다.” (J. Habermas : 227 Guttman 譯 1981 : 39에서 재인용)

따라서 현대 스포츠의 첫단계 훈련은 생산의 수공업적 단계와 유사한데 수공업적 노동 기술은 스포츠의 훈련과 교육과정에 있어 초기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의 가장 이상적인 트레이닝 계획은 1)분업의 원칙 2)반복의 원칙. 3)부하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상품성(Commodity)

인간의 노동은 모든 상품에 있어 교환 가치의 기초 즉, 본원적 구매화폐(Driginal Purchase-money)가 된다. 따라서 일정량의 노동을 함유하고 있는 상품은 이것과 동일한 양의 노동을 함유하는 상품과 교환된다.

운동선수의 성취목적은 상품으로 변화되어 돈으로 표시되는 적절한 가치를 시장에서 교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환 행위는 프로와 아마를 불문하고 프로는 운동행위를 통하여 계약에 의하여 적당한 수입을 받게 되고 아마도 운동수행 중에 일어난 각종 개인비용을 보상받는다.

5. 관료화(Bureaucratizing)

Caplow는 스포츠 조직의 발전 단계를 (1)초보적 단계 (2)기술적 단계 (3)관리적 단계 (4)법적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노동을 구조로 하는 산업조직의 발달 단계와 같다.

현대스포츠는 Caplow의 법적인 단계에 들어 있어 효율적인 행정과 제도적 확산을 위한 관료화로 치달고 있다.

스포츠 관료화는 노동세계에서 존재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지위와 역할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법규, 조직, 행정, 재정 분야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어지고 각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 기능 등이 분화되어진다.

IV. 스포츠 노동시장의 결정구조

노동시장은 노동시장을 보는 기본적 시각에 따라 단일노동시장론과 분단노동시장론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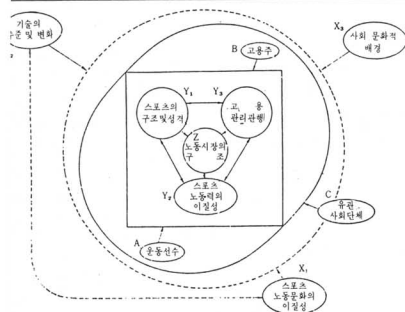
단일노동시장론은 시장원리에 절대적인 신뢰를 두고 노동력의 이질성을 인정한다 해도 노동시장을 기본적으로 국민적 단일노동시장으로 보는 이론이다.

분단노동시장론은 A. Smith의 보상원리에 대한 반론으로 나타난 비경쟁집단원리에 기초를 두고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장벽이 임금격차를 유발함으로써 임금, 노동조건, 승진의 기회, 환경 등에서 서로 다른 노동시장이 형성된다는 이론이다.

스포츠 노동시장은 스포츠가 전문화되어감에 따라 주요 공급간에 불안전경쟁을 이루어 좋은 봉급 조건, 승진의 기회, 안정된 위치등에 대한 1, 2차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경향성을 띠므로써 분단노동시장론의 적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노동시장은 일반노동시장과 다른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구조를 규정하는 제요인들을 하나의 도표로 모형화 하면 <그림·3>과 같다.

<그림·3>에 의하면 궁극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종속변수 Z는 설명변수 $Y_1 Y_2 Y_3$ 의 내생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Y_1 Y_2 Y_3$ 는 외생변수인 $X_1 X_2 X_3$ 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를 함수관계로 나타내면 $Z = L(Y_1 Y_2 Y_3)$ $Y_1 = g_1(X_1 X_2 X_3)$ $Y_2 = g_2(X_1 X_2 X_3)$ $Y_3 = g_3(X_1 X_2 X_3)$ 로 표시될 수 있다.



자료: 李孝秀, 노동시장 구조 형성요인 도표, 1984: 101 수정
(그림·3) 스포츠 노동시장의 구조

노동시장의 구조 Z는 일차적으로 $Y_1 Y_2 Y_3$ 에 의하여 특정한 유형을 지니게 되는데 $Y_1 Y_2 Y_3$ 상호간에도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들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X_1 X_2 X_3$ 와 $Y_1 Y_2 Y_3$ 는 ABC의 형태와 그들의 상호역학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A(운동선수)와 B(고용주)는 물론이거니와 C(유관사회단체)의 존재의의는 이차적 참가자로서 운동선수과 고용주와는 달리 매매 당사자가 아니면서 선수고용정책, 임금정책 및 조정역할, 대노조정책 등을 통하여 직·간접으로 스포츠시장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3)의 화살표 방향은 인간관계를 나타내는데 실선화살표는 직접적인 영향을 점선화살표는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V. 스포츠 노동시장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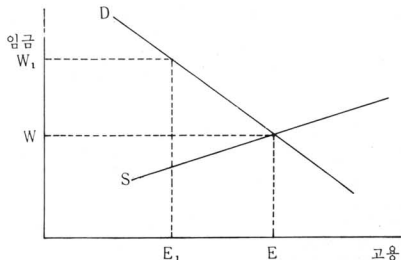
1. 스포츠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비탄력성

스포츠는 J. G. Scoville의 노동 분류 즉 전문직노동, 사무직노동, 숙련노동, 반숙련노동, 미숙련노동 5등급중 전문직노동에 속하는데 전문 자격 또는 면허, 선천적 재능을 요하는 예술가, 문학자, 교수, 판사, 검사 등과 같이 장기 훈련과 교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급상 제약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노동 수요 공급상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모든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적 시장을 원칙으로 하나 스포츠 노동시장은 불완전 경쟁화되어 이중노동시

장(dual labor market)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은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전경쟁일 경우 E점에서 W임금만을 받게 되는데 노동공급이 제한됨으로써 E₁만큼의 사람만이 직업 취업 수요곡선을 따라 W₁ 임금을 받게 된다.



(그림·4) 불완전 경쟁시장에서의 임금결정

2. 스포츠 노동시장의 임금불평등

1) 성별 임금 차별

최근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레크리에이션적 활동으로서가 아닌 각종 프로경기대회까지 참여를 확대해 가고 있는 여성만의 독점 종목이 있는가 하면 남성에 비해 월등한 기량을 보이는 종목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종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녀 차별이 스포츠 노동시장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예: 미국 테니스 순회 토너먼트경기의 상금액수와 한국 현대 배구팀의 남녀임금).

2) 개인 및 운동 종목간의 불평등

대체적으로 다른 일반 노동시장이 각 직종별로 초임부터 학력, 경력, 근무년한 등에 따라 임금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스포츠의 임금은 일정하지 않고 종목별로 개인 기량별로 천차만별이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프로선수와 아마추어선수간의 연평균소득 격차는 상당히 큰 폭으로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프로선수간에도 종목 또는 위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1)

또 같은 종목내라 하더라도 선수의 위치에 따라 평균임금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국 프로야구의 경우 투수가 44,800,000원, 유격수가 27,360,000원, 캐치가 24,170,000원, 좌익수가 17,560,000원이었다. (일간 스포츠 1980. 2. 20일자)

〈표·1〉 85년 우리나라 5대 프로 각 종목별 순위 10걸 대비표

순위	프 로 야 구	축구(슈퍼리그)	복싱	씨름	골프
1	8,200	3,200(+810)	15,200	5,140	4,208
2	7,200	2,900(+780)	9,200	3,930	1,708
3	7,000	2,880(+770)	7,200	3,390	1,553
4	3,280	2,880(+760)	6,000	2,020	1,209
5	3,200	2,880(+760)	4,800	1,050	1,108
6	3,000	2,880(+760)	3,600	910	996
7	2,980(+500)	2,880(+760)	2,800	905	853
8	2,980	2,640(+750)	2,700	730	752
9	2,980	2,500(+740)	2,000	720	739
10	2,800	2,240(+750)	1,600	630	680

단위: 만원, 괄호안은 광고료 및 보너스 수당

자료: 일간스포츠 1985. 10. 13일 제494호

3) 인종간의 임금 불평등

스포츠에서 흑인이 백인보다 우수하다는 증거는 실증자료로서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이유로는 (1)가족구조의 여가장제 (2)종족 특성차적 신체생리적 특성 (3)노예제도의 역사적 경험 (4)사회적 구축 등을 들 수 있다(Leonard, 1980: 178-181).

따라서 흑인이 백인보다 스포츠 세계에서는 기량이 월등하기 때문에 몇 종목에서는 평균적으로 더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

〈표·2〉 1968~1969 미국 프로야구 인종간 평균봉급 비교(분)

위	치	흑인	백인	차
외 야 수	66,000	56,900	9,100	
내 야 수	53,100	40,800	12,300	
피 처	59,900	38,400	21,500	

자료: G. W. Scully "Economic Discrimination in professional sports"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38, 1973: 76

그러나 운동능력이 흑인선수간에 똑같은 경우에는 백인선수가 흑인선수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가 발견된다(Sculley, 1973).

(3) 법적 규제

스포츠분야에서 나타나는 법적규정-유보조항, 반독점 금지법, 드레프트시스템, 계약조항-은 특히 프로

선수의 경우 운동선수로서의 법적위치를 설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경우에도 구단과 선수의 연봉 조정에 있어 상한선을 25% 묶어둔 것이나 신인선수들의 초임 봉급을 100만원 이하로 책정한 것이나 시즌중 게임 승리 수당의 일방적 폐지 또는 지역 연고제 보류 선수 규정등은 구단에게만 유리하고 선수에게는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선수는 수요·공급의 자유시장경쟁원칙에서 배제되어지고 정당한 댓가나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구단주 또는 자본가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법적, 행정적, 단체적 방어 수단이 제기되어진다.

1969년 ST, Louis의 주전 외야수 Curt Flood의 트레이드 사건이나 오하이오 주립대학 Conni Hawkins의 스카웃 사건, 1974년 축구 스트라이크, 1972년 야구 스트라이크, 1978년 심판 스트라이크, 1979년 NASL 스트라이크 등은 봉급 조정과정과 자유로운 이적 등을 얻기 위한 노동운동의 예가 될 것이다(Leonard, 1980, 298)

이러한 스포츠 노동운동은 일반 노동쟁의의 대상과 같이 적절한 봉급과 특별 급여를 받으며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운동선수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4) 사회 이동

스포츠에서의 사회이동이란 스포츠선수들이 은퇴 후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체적으로 스포츠의 사회 이동은 연령단계에서 점차 일어나게 된다(표·3)

〈표·3〉 1984년 중·고·대학교 및 일반부 대한체육회 등록선수(명)

구분	중 등 부	고 등 부	대 학 부	일 반 부
종목				
축 구	2,671	2,232	998	435
야 구	1,902	1,360	514	138
농 구	861	659	311	249
배 구	740	703	257	351
탁 구	619	417	231	127

자료: 1984년 체육연감(대한체육회 발행) 1984. 12. 31. 현재

만약 이러한 사회 이동이 자발적 또는 앞으로 계획이 있어 발생된다면 운동 선수로서의 경험과 지위가 만족스럽게 조정이 되겠지만 만약에 비자발적으로 강요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심리적인 또는 실제 생활에서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운동선수는 노동시장에서 인생 중반에 직업을 바꾸어야 하는 그룹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프로선수나 아마추어선수를 불문하고 사회 이동이 일어날 경우 그들의 동년배가 일반 직업 현장에서 안정을 얻었을 때 다시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해야하는 위험을 갖고 있다.

〈표·4〉 남자선수의 참가년대별 직업(%)

연대별 직업구분	1940	1950	1960	1970	1978~1980
교수(교사)직	4.3	2.3	11.1	8.1	8.1
교 차 직	10.6	20.9	16.4	12.1	15.1
개 인 사 업	38.3	34.9	29.4	13.3	6.9
공 무 원	2.1	5.4	7.0	6.9	6.3
회 사 원	8.5	10.9	19.0	44.5	23.3
이 민	8.5	21.7	13.0	1.2	11.3
무 직	4.3	0.8	1.6	1.2	9.3
사 망	19.1	2.3	1.6		
기 타	4.3	0.8	1.6	1.2	

자료: 李學來, 韓敬熙, “韓國國家代表出身들의 就業傾向에 대한 調査研究” 1980: 88에서 참조.

물론 최근에는 운동선수 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이나 항구적인 직업을 찾기 위한 설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 이동의 범위가 다른 직업인에 비해 대단히 좁고 활동 기간(직업 내용선수)도 매우 짧으며 전문가로서의 연결도 곤란한 계약성을 지니고 있다.

VI. 결 어

스포츠는 개인의 기쁨과 체력 발달을 위한 생활 스포츠, 기술과 전문화를 향한 엘리트 스포츠, 이를 생활수단으로 삼는 직업 스포츠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순수한 오락적 기능을 수행하던 스포츠는 점차 생활수단 또는 인기직업으로 전환되어가는 경향을 띠고 있다.

혹자는 스포츠가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 인간의 존엄

과 자존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레저로서 레크레이션적 스포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일 뿐 노동행위로서의 스포츠는 소수의 부유층과 한가로운 사람들을 위한 광대로 전락되어진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스포츠 장면에서는 오직 기록의 갱신, 경기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부단히 신체적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고 지적이며 정서적 극복을 구하는 전략적 노력이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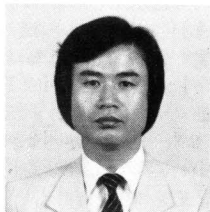
따라서 스포츠의 노동화를 주장하고 있는 스포츠 - 노동의 융합론자들은 스포츠와 노동이 원래 다르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스포츠가 대중에게 명백한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인 경우 경제적인 효용성과 함께 인간적인 공리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피력한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인간에게 순수한 이상과 가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자본을 제공하는 이중적 효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金相九, 金凡植, “現代스포츠와 經濟倫理” 『성공관대학교논문집』 제36집 1호, 성공관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1985.
2. 大韓體育會, 「체육연감」 대한체육회, 1981.
3. 李東夏譯, D. 미킨著, 「人間과 노동」 한길사, 1981.
4. 李孝秀, 「勞動市場 構造論」 법문社, 1984.
5. 李學來·韓敬熙, “韓國國家代表出身들의 就業傾向에 對한 調査研究” 『체육학회지』 제19호, 한국체육학회, 1980.
6. 한마당 편집부역, 清水正德著, 「노동의 의미」 한마당, 1985.
7. Coakley, J. Sport in Society-Issues and Controversies 2nd ed. St. Louis; Mosby, 1982.
Kennedy, R. and N. Williamson, “Money in Sports” 『Sports Illustrated』 49(3), 1978.
8. Leonard, D.P. “Tournament Earning and Performance Differentials Between the sexes in Professional Golf and Tennis”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7(1) Winter-Spring; 1983.
9. Mogull, R. G. “Football Salaries and Race: Some Empirical Evidence” 『Industrial Relations』 12. 1973.
10. Mogull, R. G. “Salary Discrimination in Major League Baseball” 『Review of Black Political Economics』 5, 1975.
11. Nulty, D. J. “Difference in Pay between Men and Woman Workers” 『Monthly Labor Review』 December, 1967.

마음을 비우고...

-이 가을에 서서-



세계 태권도 연맹 사무국
경기부장 최 만 식

어느덧 저물어가는 가을 저녁에 제법 옷깃마저 여미게 하는 계절이다.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스산한 겨울 바람에 나뒹구는 낙엽 조각들이 차라리 울썩년 스럽게만 느껴진다.

공공언 대지 위에 파랗파랗 노란 풀잎이 돌아 난 것을 본 것이 바로 잊 그세었던 것 같은데 세월의 무상함이 새삼스럽기만 하다.

불경(佛經)에 「생야일편 부운기(生也一片浮雲起)요, 사야일편부운멸(死也一片浮雲滅)」이라는 말이있다.「삶」이라는 것은 허공에 떠도는 한 조각 구름에 불과할 뿐 그 구름이 자취도 없이 소멸되어버리는 것은 곧「죽음」이라 했던가.

누구나 한번쯤은 느껴봄직한 이 말의 의미가 웬지도 모르게 내게는 더욱 더 허허한 마음 한 구석에 진하게 와 닿는 가을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캘린더 한 장.

한 해의 막바지에 접어든 서늘한 시간의 흐름에 나는 펜시래 덧없이 흐른 세월일 수 밖에 없는 심정이되고 만다. 발 밑에 뒹그는 낙엽을 밟으며 내 삶의 마지막 단계까지 다달은 양 가을의 적막이 스스로 가슴에

와 닿는다. 덧없이 흘러 간 시간, 아니 흘러 보낸 시간에 회한을 거듭 하다 보면 내 마음은 조금씩 지고 걸잡을 수 없는 방황이 그 속에 자리 하고는 가차없이 황량한 벌판에 내 뺨개쳐 지고 만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대체 무엇을 갈망 하였으며 무엇을 향해 발버둥 치고 있는가?’

그러나 결국은 내 자신의 합리화의 수렁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자가당착(自家撞着)의 되풀이에 치부를 드러낼 뿐이다.

가을이 저물어 갈 때 찢이면 내 작은 마당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자꾸 쌓이는 낙엽이 흐트러 지고 그 날을 난 혼자 가을이 남긴 자연의 승화를 위해 매끔한 내음을 피운다. 그리하여 가슴 속 깊이 한 아름 낙엽의 의미를 마시고 가을을 듣는다.

흘러 가는 시간과 변화하는 공간 속에서 순간순간의 내 삶은 과거의 시간 속으로 흘러가 버리고 그 수 많은 지나간 시간의 물 줄기가 한데 어울려져 추억의 강물을 이룬다. 그 속에서 일렁이는 갖 가지 빛깔의 영상들, 슬픔과 창백한 회색 빛깔....., 때론 투명하게, 때론 희미하게 떠오르는 무수한 추억의 빛깔 들은 희뿌연 안개 속에 잠긴다.

크나 큰 공허가 너무 위에 서리고 바람이 부는 데로 잊 썩이어 떨어진 나뭇잎 들이 길 한 톨기에서 향내음을 속삭인다.

하어 지금은

타오르는 주변에 매여 있는 동안

내 머리 속에도 여름을 지나지

못했던 이 시기로운 마음은

황금같은 황홀로 속절없음을 퍼뜨리고

풍성했으나 이미 사라진

계절을 기억한다.

또 가을이면 영감이 떠올라

여름은 하나 가득

제 것이 되어

푸른 나뭇 가지는 눈동자의

가 없는 후원에서 떠오르고

영혼은 따사로운

사념(思念)의 호수에 몸을 담근다.

.....

향그런 대기의 흐느낌과 풀내는

간곡한 라일락의 향기를 그리며
짧은 잎이 햇볕 받아 솟아 나오고
푸른 물이 샘에서 솟아 나옴을
못해 그린다.

「월버」의 「푸른계절」에서

가을이 깊어 낙엽이 쌓일 때면 색동이 구르고 흩날리는 맑게 개인 어느 오후의 시골길을 걸어도 좋다. 그리고 내 마음의 청정(淸靜)을 찾기 위해 동(動)적인 것에서 정(靜)적인 것으로 옮겨지면 그런 순간 단순하여지고 진한 감동을 맛보게 된다.

무릎까지 빠지는 태고의 숲 속에 섰노라면 환상과 꿈의 세계에서 방황하는 피안의 세계에 옮겨 온 듯 나의 마음은 돌연 엄숙해 진다. 이러한 순간을 맞이 할 때 마다 신비로우며 표현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연약한 인간은 위대하고 신성한 조물주 앞에 경건함으로 무릎 꿇는다.

요즈음은 무슨 계절의 미련때문인지 때 늦은 곳은 비가 자주 내린다. 이럴 때 나는 진한 커피 한 잔의 유혹을 받는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벼이 있으면 더욱 좋다.

문득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게 하는 친구를 생각 한다.

「K」

그는 대학 시절 나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고 우린 서로를 이해했다. 지방 명문「K」고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였던 그는 유달리 남다른 데가 있었다. 워낙 뛰어난 수재 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남아다운 기상에 사자후를 토해 내는 기백이 있었다느니, 누구에게나 호감이 가는 인상을 가졌다느니 하는 따위 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친구였다. 그는 성격이 과팍했다. 그의 생김새는 유난히도 광대뼈가 돌출되어 있고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조차 남이 볼 때는 무엇에 단단히 비껴어 있는 사람처럼 눈가가 치켜져 올라가 싸늘한 빛을 띄곤 했다. 그는 자칭 여자 혐오가였다. 세상의 온 여자란 여자는-그의 어머니 만은 제외로 하고-한 톨의 가치도 없이 잘못 빚어진 조물주의 실책작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해댔다. 이런 그의 태도는 3류 소설에서나 흔히 보듯 어떤 여자로부터의 첫 사랑에 버림 받아 여러날의 쓰라린 가슴을 짓누르며 웅글 웅글 울분을 못 참아 하는, 그런 시답잖은 연유로 해서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의 말대로라면 자고로 여자는 결코

안된다는 충고를 내게 일러주곤 했다. 그는 여자 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사실에 대해 역행했다.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적인 부정을 알 세우고는 그 부정의 정당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득하려 했다.

이런 그를 주위 친구들이 「히스크리프」라 불렀다. 영국의 처녀작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에 나오는 괴팍한 성격의 주인공 이름이다.

「히스크리프」는 배신당한-사실은 배신당한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배신을 한 장본인 이기도 했지만-사랑의 아픔을 영원한 숭고미로 승화할 줄 모르고 끝 없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결국은 파멸의 국면에 접어들고만, 그러면서도 지극히 인간적인 자연인의 「나(我)」로 되돌아 가려는 양면성에 괴로와 했던 인물이다.

그런 K를 모두가 경원시 했지만 나는 그를 이해했다. 그를 「히스크리프」로 보는 것은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허울을 보는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그의 밑 바닥에 요요히 흐르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극히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진실을 행하려 노력하고 있었으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험구는 자기 방어적인, 아니 차라리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의 표출을 강조하려는 수단에 불과 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어이, 「히스크리프」”

어느 늦은 가을 오후 교정 벤치에 앉아 그는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지 한 곳 만을 지그시 응시하고 있었다.

“You are more myself than I am!”

-친구여! 그대는 내가 내 자신이기보다 더욱 더 당신 내 자신시오!-

낙엽이 쌓인 「미네르바 동산」에 오르며 우리는 서로의 우정에 즐거워 했고 먼 훗날의 관포지교(管鮑之交)를 확인했다. 그가 한 말처럼 지극히「더욱 더 내 자신인 우리의 우정」을 나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가을이 저문다.

이제 나도 내 모든 허울을 털어 버리고 새로운「나」를 찾아 보고픈 마음이다. 한 여름 밤의 꿈과 같은 생의 영육에 연연하지 말도록 노력해야 겠다고 다짐해 본다.

요즈음 세간에 자주 오르내리는 알맞은 말이 있어 다행스럽다.

「마음을 비우다」

나는 이 가을에 서서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해 본다.

의미있게 사는 길



문석경 / 문무종합체육관 관장
(경남 창녕군 고암면 상대동 1070-10)

이곳은 경상남도에 자리잡은 창녕군 고암면 십
씨 75℃인 동양 최고의 유향인 부국유향은천장이 있어
관광단지로 유명한 곳이다. 또한 깊은 역사의 유래를
지니고 있는 우뚝 솟은 하왕산성이 있다. 이 하왕산성
아래 사시사철 오곡이 물들어 가는 고암면 소재지에 문
무종합체육관이 있다.

새벽 5시면 이곳 면소재지에 있는 창녕공업고등학교(교장 김희철)의 기숙사생 150여명이 기상과 동시에
운동장에 모여 새벽공기를 가르며 태권도를 수련하기
시작한다. 태권도의 기합소리에 놀라서 잠이 깬 주민
들과 체육관 수련생들의 아침 새마을 조기청소를 시
작으로 면민들의 하루일과가 시작된다.

이곳에 체육관이 들어선 것은 1978년 10월이었고 창
녕공고 태권도부를 창설하여 지도를 시작한 것은 1979
년 3월이었다. 학교에서는 특별활동시간에 태권도반

이 편성되어 매주 1시간씩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으며,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수련생 150명과 군(軍) 기술
의탁 장학생 50여명의 수련을 지도하고 있다.

군의탁장학생은 학교 전수업료가 면제되며 졸업 후
6개월간 군교육을 마치면 하사관(5년복무)이 되어 군
대 생활에서도 의무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하기 때문에
정복을 입은 학교 선배들이 수시로 학교를 방문하여 후
배들과의 대화에서 태권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태권도에 더더욱 열성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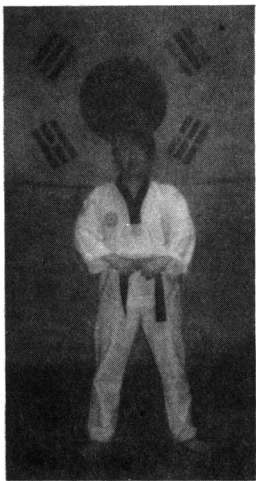
창녕공고의 교무과장 김규원 선생님은 태권도 유단
자로 학생들의 태권도 수련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 하든 학교 교기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고암국민학교와 고암중학교에서
는 1983년도에 태권도를 학교교기로 하여 운동회 및
체육대회, 군대 행사 등에서 시범학교로 시범을 보이고
있으나, 농촌의 경제사정상 체육관의 운영은 물론, 학교
운영도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행사시에만 시범연습 등
을 지도하기 때문에 안타까움도 크다.

그러나 태권도를 지도하는 사범으로 지역사회에 조
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1985년 10월 10일에는 본 체육
관에서 수련하고 있는 창녕공고 수련생 40명이 학교와
고암지서(지서장:김영찬)의 협조를 얻어 새마을 조기
청소 및 학생들의 탈선행위를 학생들 스스로 막는다는
취지아래 「학생자율선도대」를 조직해 발대식을 가진 후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경찰관 1명, 지도교
사 1명, 학생방범대 5명으로 조를 짜 자취학생들의
집을 방문해 면학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 비행을 사전
에 예방, 청소년 선도에 주력하고 있다. 이로써 학생
들의 각종사고가 현격히 줄어들고 면학분위기가 조성
되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좋은 반응
을 보이고 있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1986년 5월에는 불우청소년 위안의 날을 맞아 반용
호 경남경찰국장님으로부터 감사장과 부상을 받고보니,
상을 받았다는 기쁨보다는 작은 일에 부끄러움이 앞서
며 더욱 더 큰 책임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무도인의 한 사람으로 체육관 수련생의 지도뿐만 아니
라 사회 지도자로서 지역사회발전을위해 무엇인가 헌신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성의를 아끼지 않는다면 작으나
마 의미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
라는 신념에 많은 태권도인들에게 부끄럽지만 이 글을 쓰
게 된 것이다.

태권도는 나의 진정한 친구요 보배



이순단/상주체육관
경북 상주시 계산 1구 259번지

벽에 걸려 있었다.

체육관 수련생 중에 여자는 단지 나 하나로 홍일점이었지만, 태권도를 배우겠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들어선 태권도 수련의 길이었기에 부끄러움이나 창피한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

입관해서 1주일이 지나면서 기본동작을 정확하고 절도있게 익히기 시작하여 점차 백대에서 청띠를 뺏으며 입관한지 8개월 후에는 홍띠를 허리에 맬 수 있었다.

오직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정진하는 기분으로 나날을 보내며 친구 한명을 입관시켰다. 그러나 그 친구는 하루 하루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수양시키는 것이 아니었는지 2달째 되던 어느날 체육관을 그만 두어 섭섭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다.

나는 홍띠를 매고 나자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고, 대련을 하고 싶은 마음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하기도 했다.

나의 태권도 수련은 발전되어 가고 있었고 승단을 눈앞에 두어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을만큼 기뻛으나 한편 어려움도 없지 않았다.

부모님께서 「여자는 항상 미덕을 갖추어야 한다」며 여자가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다니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학교수업을 마치고 체육관으로 가서 7시30분까지 운동을 한 후 다시 학교로 가서 야간학습을 하였다.

나에게 태권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어치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진정한 친구이자 보배가 되었다.

지금은 1단이라는 단증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다. 앞으로 태권도와 관련있는 체육대학이나 경찰대학에 가고 싶은 심정을 누가 알아줄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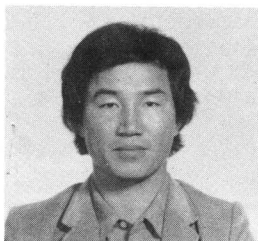
체육관을 처음 다닐 때는 발걸음이 가벼웠지만 지금은 선배가 되어 행동과 마음가짐에 본모기를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선다.

이제 태권도는 영원히 나와 떨어질 수 없는 친구가 되었다. 나이가 들더라도 나는 태권도를 가까이 하며 몸을 단련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체육관의 류봉수 관장님의 따스한 보살핌과 자상하고 엄격하게 지도해 주시는 송상희 사범 및 관원 여러분에게 감사사를 드리고 싶다.

나는 1985년 10월 17일 상주체육관에 입관했다. 체육관은 오래된 건물이어서 체육관 내부는 초라했지만 깊은 역사와 무궁한 발전을 상징하고 있는 듯 각종 대회에 출전해 우승해 온 것을 증명하는 상장과 상패가

예멘인들에게 태권도를 알리며



김광수/ 북예멘주재
삼환기업도목부근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꼭 생소한 나라이며, 자원이
라곤 전혀없는, 그래서 생활의 거의 모두 (99%)를 수
입에 의존하는 북 예멘에 건설회사(삼환기업) 직원의
일원으로서 이곳에 온지도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렀
다.

첫 입국 때만 하여도 미수교국이었던 관계로 태권도
보급이 불가능하게만 여겼던 나 자신이 이번 86아시안
게임에 예멘 선수단을 참가시킨 것을 보면서 가능성은
있 보았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나라의 수
도인 사-나에 근무처를 옮기면서 야간을 활용하여 현
지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로 협소하나마 창고에서 약 20
명의 인원을 확보하여 태권도에 대한 호응도를 관찰하
게 되었고 또 어떤 가능성을 읽을 수 있었다.

난 이곳의 예멘인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태권도의
전면목을 알게되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까지 나
의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새벽에는 기술연마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때로는 외로움에 마음이 여러지지만 난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겠노 라고 다짐했다.

특히 내가 확신을 갖고 태권도 보급에 힘쓰게 된 동
기는 지난 9월 26일 이나라 최대 행사인 혁명 기념일
행사에 초대를 받아 일본의 가라테 시범 경기를 보고
난 뒤 하면 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서였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계로 치닫는 태권도의 뿌
리를 내릴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며 난 조금 두
근 거리고 한편으론 어깨가 무거워 지는 듯 했다.

내가 살고있는 북 예멘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가지를
소개해 보면

이곳 북예멘(YEMEN ARAB REPUBLIC)은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나라로서 남·북으로 갈
라져 있으며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적은 국토와
750만명의 인구로서 해안 지대는 고온다습하며 수도인
SANA'A는 중동이라는 느낌이 들지않을 정도로 지내
기엔 좋은 기후다(해발 2,200M).

그리고 85년 까지만 해도 천연자원이라곤 없던 예멘
이 86년부터는 산유국으로 바뀌면서 지난 여름엔 우리
나라와 정식 외교수립이 되어 금명간 대사관 설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우리보다 북한이 먼저 외교수
립을 하였고 공관도 설치하여 불안하기도 하였다.

미 개발지 치고는 또 약간 모순이 있는것 같지만 이
곳은 세계각국의 인종이 모여살고 고위층은 매우 고급
스런 문화생활을 즐기고 서민은 꽤 궁색한 살림들을 하
고있다.

내가 살고있는 예멘은 미개와 현대가 공존하는 ,
마치 동화속의 얘기처럼 베일에 싸인 나라라고나 할까.

체육회와 3년전에 설립된 육군사관학교와 이나라
대통령(현역 대령)인 알리 압둘라 살레(ALI ABDU
LLA SALEH)의 출신 학교인 경찰학교에 태권도
를 보급 하도록 최선을 다 할까 한다.

제3회



제 1 장 용마산(龍馬山) 기슭

3. 해동(解冬)이

그렇게도 심한 물난리가 마을의 전답(田畓)을 할
퀴고 지나간 여름의 뒤로 가을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
다.

가자가 찢겨나간 가로수에도 여인의 홍조땀 뺨같은
채색이 내리기 시작했다.

수마(水魔)가 핏켄 상흔은 구락부 아이들의 점심
도시락에도 깊이 남겨졌다.

가을마다 구락부 친구들의 쿵북음이나 껏묵조각을
간식으로 얻어 먹던 현욱은 그 가을에는 구락부 아이
들이 학교에서 급식하는 옥수수가루 빵을 줄서서 받
아 먹는 것을 보아야 했다.

「PL480」(필자주: 해외무상원조의 근거를 마련한
미국공법 제480조)이란 말을 현욱은 대학입시를 준

비할 때 알았지만, 그것은 그 해 가을의 옥수수빵이
나 우유가루와 밀가루를 떠 올리고는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

여름을 뒤로 하고 가을이 일찍 다가온 것처럼 겨울
도 가을을 재촉했다.

11월 중순이 지나면서 내린 눈은 띄시루 같은 군청
색의 관악의 암반에 백설기의 고물을 뿌린것처럼 덜
어버렸다.

약속은 깨트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던가? 국회의원
선거철부터 들먹이던 구부락의 전기불은 그해 겨울이
저물도록 밝혀지지 않았다. 등유 그을음이 호롱에 끼
어있던 구락부 친구들네의 어두운 건넌방에서 날 고
구마를 이빨로 깎아 먹던 기억은 차라리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그곳 친구들은 어른들의 비난보다 더 깊숙
하게 배신(背信)의 저열함을 동심에 새기고 있었다.

카이젤 수업의 위엄만으로는 순진무구한 동심 속에

서 배신에 대한 경멸의 색이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전력 수용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홍수를 뒤집어 쓴 농가에서 부담할 수 없게 되자 구부락의 전기불은 공약(空約)이 되어버렸다.

국도(國道) 저편과 이편은 밤이면 전등불빛의 유무(有無)로 확연히 구별되었다.

일제의 찬탈로 부터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서 일제(日帝)의 잔재로 남은 길 이편의 가옥이 전기의 혜택을 받으면서 밤을 밝히고 있고, 길 저편에서는 초가집과 호롱불 아래에서 순박한 이웃이 웅크린 채 있는 이 마을의 현실에 리건호씨는 못 견뎠다.

박사장이라는 아버지의 친구가 오는 날은 현옥과 동생들이 술상 앞에 불러나가서 노래 재롱을 부렸다. 박사장은 리건호씨와 중국에서부터 광복군 동지였다.

특히 그는 스물 일곱명 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OSS 대원으로 한·미(韓美)연합특수작전에 같이 참여한 전우였다.

“네 아버지 별명이 뭐 줄 아니?”

눈만 반짝이며 쳐다보는 삼형제에게 박사장은 물었다.

“한국 호랑이야 이놈들아! ……”

현옥이 열살되던 해였다. 효창공원의 백범 선생 묘역에서 있는 기념식장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현옥이 들어설 때도 “호랑이가 찾아 오셨구먼!”, “이놈은 새끼 호랑이인가?”하면서 방명록에 서명하는 리건호씨의 필적 옆에 “네 이름도 써넣어라”고 껄껄 웃는 소리를 들었었다.

리건호씨는 돈과는 담을 쌓았노라고 어머니 계여사는 현옥이 대학시절에 뉘드리를 했다. 하지만, 그런 계여사도 현옥의 어린 시절에는 그저 리건호씨의 “재물이 애초에 내 것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지론(持論)에 다소곳할 뿐이었다.

리건호씨 친구 중에는 남루한 행색으로 그저 안광(眼光)만 험형한 분들도 많았다.

보름이고 한달이고 집에서 묵어가는 지방에서 상경한 친구들에게 웃이고 신변용품이고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아버지의 처신을 현옥마저도 이상하게 생각

할 정도였다.

현옥이 동생들과 고장난 장난감 하나도 서로 갖기 위해 싸우던 일이 많았던 그 당시에도 아버지는 입던 옷까지도 신신히 벗어 주는 것이었다.

제다가 반아가는 친구들 역시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현옥이 중학교 3학년일 때에 가서야 리건호씨는 추석 제례에서 어릴적의 궁금증을 풀어 주는 것이었다.

“내가 중국에서 조국 광복을 위해 일할 때, 우리는 아무런 소유욕도 없었던단. 우리는 그저 나라를 되찾겠다는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나누었지!”

중국 사람들은 우리 망명투사들의 순수한 열정에 감동되어서 하루 빵 몇개와 배추국 몇 그릇을 나누어 주었다. 우리는 아무도 ‘배 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춥다’, ‘덥다’, 이런 의지 약한 얘기를 하지 않았단다.

모두 배고프고 혈 벗었지만, 조국광복을 위한 전장(戰場)에서는 앞서기를 다뤘었던단. 우리는 모자라는 배급 빵을, 동지들 중에 병든이나 식물을 거느린 사람에게 거두어 줄 정도로 「자기」보다는 「우리」를 믿고 살았던단.

그러니 비록 반 토막이지만 해방된 조국에서 나만 잘먹겠다고 아우성치는 일을 해서는 되겠니?”

……………

그리고 리건호씨는 당시에는 들려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현옥이 「R. O. T. C」에 입단 한 후에야 들려주었다.

“그 때에도 투쟁하는 우리들 만큼이나 동포의 피와 살을 등쳐 먹는 흡혈귀같은 악덕인들이 일본놈 앞잡이로 있었단다.”

“그 놈들은 공산당아래에서는 조상 때부터 공산당을 했다고 달라 붙을 수도 있는 간악한 놈들이지 -”

“그렇지만 뜻을 세운 올바른 분들은 소련이나 중국, 일본이나 미국을 막론하고 외세(外勢)에 빌 붙어서 개인적인 출세나 영달을 꾀하지는 않았었지…….”

고대광실의 청자화병이나, 수반(木盤)에 꽂혀 눈요기로 전락하는 화단의 꽃 보다는 가을 찬서리를 견디고 서서 첫 눈이 올 때까지도 이듬해 다시 피어날

것을 기억하는 들꽃이 되리라고 동지들은 다짐했다.”

실제로 그들은 옛날의 우리 터, 광활한 대륙, 그 길게 누인 몸체의 비옥한 머리를 마음껏 휘젓고 야생화(野生花)의 질긴 목숨줄을 곳곳에 잔류시켰다는 말이었다.

현옥은 통일신라가 나라터의 남녘으로 한껏 오그라지고 궁벽한 때깔로 그려져 있던 것에 대해 분개한 표정으로 설명하던 역사선생을 생각했다.

그 때 현옥이네들은 통일 신라의 여왕들과 얽힌「에로틱」한야담(野談)에도 솔깃해 했지만 발해국의 대조영이 지배하던 대만주, 큰터를 황홀하게 동경했었다.

아름든 당시 리진호씨는 유산으로 대(代)물림한 한옥(韓屋) 세 채를 처분해서 구부락의 전력수용사업을 추진했다.

“조국 강산에 낙하(落下)해서 산야(山野)의 한줌 흙으로 산화했을 목숨이 이제 아들 삼형제나 두고 살아 있으니 무슨 욕심을 더 부리겠나!”

그리고 이듬해 봄부터 구부락의 처마 낮은 초가집들에서는 창호문에 백열등의 명멸이 배어나왔다.

전기공사가 있는 그 겨울에 검은「콜타르」가 묻어 날 만큼 시커먼 전봇대가 쌓여진 구부락의 낮은 언덕길에서는, 겨울해가 낮게 드리워진 양치녘을 찾아말타기의 긴 열(列)을 엮으려 짓는 현옥 또래의 아이들이「가위, 바위, 보」의 결과에 따라 지르는 함성으로 추위를 이기고 있었다.

아무도 그들 어린이들이 벌이는 놀이의 약속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들 사이의 놀이의「물」에 맹신(盲信)했다. 아이들은 본능에 가까우리만치 규율의 공정함을 체득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부락의 전기불은 카이젤 수염의 국회의원이 켜게 해준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아이들이 자라서도 이야기 할 것이라고는 당시에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물론 자라면서 놀이의 규율이 점점 복잡해지고 또 그 규율들이 어겨지고, 어기고 때론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을 체득하는 과정이 어른이 되기 위한 할례(割禮)인 것도 알게 되었다.

대방동의 봄은「해동(解冬)」이와 함께 매년 훌연히 찾아왔다.

봄의 해는 배어놓은 듯한 관악의 서쪽 산자락에서 드린 겨우내의 습관을 점차 용마산의 둥굴레 호선을 그런 말잔등 같은 능선의 둔부 쪽으로 옮겨갔다.

「해동」이는 현옥이 신작로를 건너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던 때보다 훨씬 전부터 아이들의 건넌목을 지켰었다.

아니「해동」이의 교통정리가 언제부터인지는 대방동에서 제일 오래된 방앗간 아저씨도 모른다고 했다.

「해동」이의 나이, 집, 가족, 그리고 이름조차도 정확히 알려진 건 없었다.

대개는 풍문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비밀은 그 불가사의한「배일」을 벗곤 하지만「해동」이는 예외였다.

그저 대방동 사람들은「해동」이가 약간 머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해동」이를 미친사람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미친 상태가「해동」이 같다면 세상 사람들 모두 미쳐 마땅하다고 리진호씨가 말하는 것을 현옥은 듣는 적이 없었다.

아이들이 건넌목을 건널 때 건네는 겨수경례에「해동」이는 손바닥을 앞으로 해서 뺨을 하늘로 꺾어쓴 모자 끝에 갔다대는 것이었다.

입은 항상 병긋거리면서 길 건너는 행인들과 차량들을 향해 온 몸으로 하는 교통정리는 봄부터 한가위 명절 뒤 끝의 늦가을까지 대방동의 풍속도였다. 그런「해동」이의 눈물은 아이들에게 뜻 밖의 사건이었다.

누군가 건네 준 호각을 잃어버린 날은 온 종일 울면서 교통정리를 했고 그날 대방동의 신작로를 사이에 둔 온 마을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러나「해동」이는 꼭 필요한 만큼의 재화(財貨)를 아무 가게에서나 집어 갈 수 있는 불문율이 시장 통에서는 보장되었다. 해동이 지불하는 것은「차렷, 열중쉬어, 경례」의 세 동작 뿐이었다.

결코「해동」이는 필요한 이상의 양(量)도 질(質)도 집어가는 법이 없었다.

그가 필요한 것은 허기를 면하고 몸을 가리고 그리고 교통정리를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그런 것들이었다.

육학년이 되면서 현옥은 그를 꼭 「해동이 아저씨」라고 부르게 되었다.

5학년 겨울방학 때 삼대독자인 성철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서울공고 앞 길에서 사고를 당하고 죽자 이듬해 봄의 건널목에 현선이 그려지고 그 자리에 「해동」이의 낫 익은 호각소리가 다시 들려오자 고마움을 깨달은 것이었다.

육학년 때의 「해동」이는 훨씬 가깝게 현옥이네 들의 화제 속에 들어 있었다.

「해동」이네 집은 인천에도 손 꼽히는 부자집인데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았다. 부인은 대단한 미인인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아이와 함께 잃게 된 「해동」이는 정신이상이가 되어 길에서 교통정리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대방동 길가의 방앗간 아저씨가 떡도 나누어 주고 잠자리도 방앗간 안에 꿀방을 비워 주니까 해마다 봄이면 대방동에 오게 됐다. 그리고 시장통 상인들이 「해동」이의 천진한 성품과 낙살의 대가로 무엇이든지 공짜로 주는 인정에 끌려 대방동의 「해동」이가 된거야

아이들은 그 말을 믿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오성(悟性)에는 맞나보다. 아이들이 만들어낸 「해동」이의 삶의 편린 역시 「멜로드라마」였다.

국방색 작업복 상의에 검정 바지, 그리고 색바랜 「카키」색 모자에 호각을 문 「해동」이의 끊임없는 웃음은 대방동의 명물이었다.

현옥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부터는 그런 해동이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시장통에 살았던 성환의 후일담에 의하면 「해동」이는 새장가를 들어 교통정리하던 웃을 벗고 한복차림으로 새색시와 새아기를 거느리고 그가 봉적하던 대방동의 정음사약국 앞 건널목을 가로지른 육교위에서 거의 한나절이나 지나는 행인에게 인사를 했었다. 예전의 그 맑은 웃음이 그 한나절 사이에 대방동 신작로 이편과 저편 어디에서나 온통 퍼져나갔었다고 성환이는 제 일처럼 자랑했었다.

「해동」이가 퇴환 이후의 대방동은 겨울이 더욱 길어졌다.

언젠가 리건호씨는 현옥에게 전등불이 대방동을 밝히고 있지만 교통정리를 하던 「해동」이의 웃음보다

밝을 수 없다고 말한적이 있었다.

4. 기러기 엄마

사자암으로 오르는 오솔길이 아지랑이로 아른거리는 봄날이었다.

성당의 첨탑이 보이기 시작하는 언덕반이에 새로 지은 양옥들이 늘어선 오르막 길녘에서 어린 현옥의 눈에도 곱게만 비치는 젊은 여인이 서있었다.

그 여인은 한복 매무새의 가녀린 자태로 눈물 흔적을 감추지도 않고 망연히 서있었다.

그녀는 후에 기러기엄마라고 부르게 된 외삼촌의 첫사랑이었다.

현옥이네와 언덕을 사이에 두고 이사온 작은 외삼촌은 통역장교 출신의 소령이었다.

대학을 다니다가 그는 6·25 전쟁으로 군복을 입었다.

외삼촌은 문재(文才)가 뛰어난 몇장이었다고 제어사는 현옥에게 말하곤 했었다.

부산 피난시절에 군수지원부대에 배속된 계중위는 그 곳에서 기러기 엄마를 만났다. 그녀의 빼어난 미모는 못 사관(士官)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아푸레·게르」와 젊은 문인의 만남이라고 리건호씨는 일축했지만 제어사의 설명에 따르면 연인들은 몹시 사랑했다고 했다.

전쟁은 연인들을 운명속에서 만나게도 또 헤어지게도 하는 데 아무런 당위를 제시하지 않는 법이다.

그저 숙명이었다는 체념이 태고(太古) 이래 인간이 저지른 전쟁에서 배운 예지인지도 모른다.

누구에게나 불행이지만 전쟁은 연인들에게 극렬하게 사랑할 수 밖에 없는 만큼의 고뇌를 잔인하게 퍼붓는다.

두 사람의 약속은 쉽게 깨졌다…….

계중위의 내면에서 이글거리는 문학애의 열정은 화약냄새가 배인 군복과 묘하게 대조적이었나 보다.

타이피스트로 근무하던 그녀에게 몇 날을 두고 연시(戀詩)를 띄어 군복의 야만성을 벗어보였었다.

당시에는 군인 밖에는 사랑의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군복에서 풍기는 강철의 처

연합에서 죽음과 이별의 선택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 속에서 맺어져 갔다.

죽음, 이별, 이산, 이런 불확실한 비애가 예고없이 닥쳐든다는 것을 도처에서 확인한 시절이었다.

결국 인생에 슬픔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데 있다.

아름든 연인들은 내일(來日)의 불확실성이라는 도 화선으로 말미암아 쉽게 인화되고 또 앞당겨 폭발했다.

훗날 외삼촌의 유품으로 현옥이 물려받은 노트에는 당시의 아픔이 고즈넉히 남아있었다.

“운명의 가학성에 대항하려는 인간의 유일한 무기는 망각이다.

사랑은 망각으로 가는 여정의 한 부분이었다.”

계여사의 동정으로 기러기 엄마는 외숙모 몰래 대성관(大盛館)의 방에서 계소령과 만났다.

그리고 리건호씨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언덕길을 내려오다가 현옥과 조우한 것이었다.

현옥은 외삼촌의 첫사랑 여인이 외숙모보다 맘에 들었다.

눈물을 흘리는 인간의 모습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인가?…….

눈물이 많은 현옥은 길가에서 눈물을 닦아내는 여인의 까닭 따위는 아랑곳 없이 편들고 싶었다.

계소령이 논산훈련소에 근무하면서 만난 외숙모는 성격이 팔팔한 것으로 해서 리건호씨나 계여사에게 호감을 얻지 못했다.

어른들의 감정 전이는 아이들에게 금방 영향을 끼친다.

외할머니는 기러기 엄마가 외숙모가 되었으면 외삼촌이 훨씬 행복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뉘드리한 적이 있었다.

결론 약속을 한 두사람이 헤어진 것은 「오끼나와」로 전속명령을 받은 계중위의 돌연한 출국 탓이었다.

인전 상륙작전을 위한 한·미 합동훈련과 작전시행을 위한 준비 때문이었다.

비밀리에 차출된 계중위 역시 전속을 알고 있지 못했다.

통역장교로 한국군 상륙연대와 맥아더 사령부의 연

락을 맡아 근무하면서 작전이 시작될 때까지는 사신(私信) 한 장 띄울수가 없었다.

단지 떠나면서 “기다리라”는 애절한 한마디만으로 설혼하나의 미혼모로 기러기엄마는 인종(忍從)의 시간을 보낸 것이었다.

계여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오후 내내 함께 눈물을 흘렸다.

현옥 역시 자기방에서 아무런 문명도 모른 채 쓸쓸해 했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눈물 샘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이었다.

결국 기러기 엄마는 외삼촌의 변함없는 연정을 의지 박약인 그의 너절한 변명으로 둘러싸는 리건호씨의 설득으로 부산으로 내려갔다.

“어쩌다가 우리들이 이 지경이 되었나?” -

기러기 엄마와 외삼촌을 위해 리건호씨는 술상을 내어 만취해서는 좀처럼 부르는 일이 없는 노래로 목청을 돋구는 것이었다. “울 밑에선 봉선화야 -”

그런일이 있고나자 외숙모는 현옥이네 출입을 딱 끊었다.

상륙작전 후에 가벼운 부상으로 후방 병원으로 후송된 계중위가 휴전이 임박한 때에 논산지구로 전속

되어 중전 후에 맺어진 사람이 외숙모였다.

몇 번이나 리건호씨의 도움을 받아 대방동에 집까지 마련해 준 고마움도 있고 리건호씨가 어려운 시절에는 쌀을 빌려서 간 현옥에게 단지 한 양재기를 퍼 준 그런 여자였다.

리건호씨는 외숙모에게 「화냥기」가 있다고 싫어했다.

결국 외숙모는 군복을 벗은 외삼촌이 문학에 미쳐 돈벌이를 소홀히 하자 이혼하고 곧 재취를 했다.

외삼촌은 결국 기러기엄마도 외숙모도 그리고 각기 배 다른 두 딸도 다 잃고 말았다. 그럼에도 그는 책과 펜과 원고지로 위안을 삼았다.

물론, 술과 담배는 그의 고갈되어가는 행운의 샘을 흐리게만 했다.

용마산의 봄은 빠꾸기의 울음으로 다시금 생기를 찾았다.

이내 술개는 창공 높이 춘궁기의 반전원(半田園),

대방동을 살피면서 관악산맥의 기류(氣流)에 유영하곤 했다.

해마다 현옥이네를 찾던 기러기 엄마로 하여 현옥은 전쟁의 와중에서 태어났어도 결코 그 잔해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동쪽상잔의 비극의 씨앗이 민들레꽃씨처럼 산하(山河)에 널려있는 것을 반추했었다.

기러기 엄마의 젖은 얼굴과 슬픈 몸매무새 그리고 그 봄날의 아지랑이는 전쟁이라는 음절의 혼란한 심상(心象)과 항상 일치하는 것이었다.

외삼촌이 폐결핵 발작과 간경화증에 시달리면서도 남긴 마지막 노트에는 "기러기 엄마"라는 회오의 념(念)이 남아 있었다.

「봄마다 각혈이 행방되어 동토(冬土)에 철쭉이 진다.

작은 딸 경이의 목에 감긴 전기줄의 망령이 훑날린다.

부어오른 소주잔의 깨어진 이 파리가 굳어버린 혀에 씹힌다.

사금파리 같던 노정(路程)에 떨구던 사정(射精)이

기러기를 날렸다.

이 가을에는 안향의 항해를 내 지켜보리라.」

대방성당의 언덕길을 고인(故人)의 사진들을 안고 오르면서 비껴선 소복(素服)차림의 기러기 엄마의 젖은 눈에서 현옥은 아지랑이를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사 기다림이 끝났음을 적시고 있었다.

성모 유치원의 미끄럼틀에서는 줄지어 낮은 곳으로 미끄러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기러기 엄마의 소식은 그 후로는 들려오지 않았다.

현옥이 전쟁의 잔영에서 헤어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외삼촌의 영정을 들고 성당문을 들어 설 때 바라본 기러기 엄마의 목시적인 제시, 이후였다.

그 때 그녀는 통곡을 깊숙히 말리면서 현옥에게 끄덕였다.

“이제 기러기 엄마의 전쟁은 끝났다.”고

현옥은 사춘기의 미망(迷亡)에서 막 벗어날 시기였다.

☐다음호에 계속

謹



吊

정 건 응 선생 (제주도 태권도협회 부회장)

제주도 태권도 부회장인 정건응씨가 86년 11월 21일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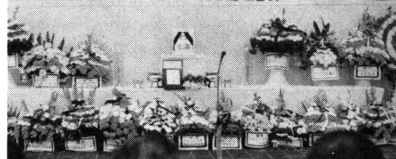
고인은 제주대학 재학시 총학생회장으로 학생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1965년 제46회~1968년 제49회 전국체전에 제주도 대표선수로 출전하여 입상한바 있다. 72년부터 74년까지는 모교인 오현고교의 교사로 재직하며 교육일선에서 후진을 양성하였고, 제주도 협회 총무이사, 전무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1984년부터 제주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였다.

이에 제주협회에서는 제주태권도협회장으로 장례를

치루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謹 故 鄭健雄 副會長 永訣式 (弔)



김운용총재 IOC위원장 겸 GAISF 회장선임

President Un-Yong Kim, elected as the president of GAISF and a member of IOC as 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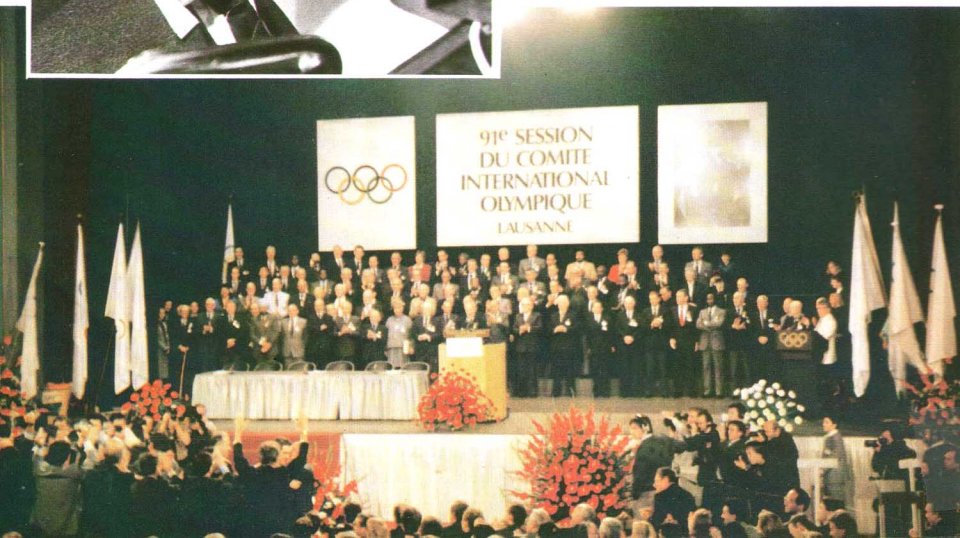
▲서울에서 개최된 IOC집행위원회에서 김운용총재는 사마란치 IOC 위원장에게 태권도 명예 10단증을 수여했다.

President Un-Yong Kim awarded a honorable certification of 10th degree of T.K.D. to Antonio Samaranchi, President of IOC, on the occasion of IOC executive Committee held in Seoul.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IOC총회에서 김운용총재는 만장일치로 IOC위원으로 피선 되었다. 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김총재.

President Kim who elected unanimously a member of IOC at the General Council held in Rozan, Swiss, is taking an inaugural oath.





▲김운용총재의 IOC위원권 GAISF회장 피선을 축하하는 리셉션이 대한올림픽위원회 주최로 지난 11월 5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있었다. (왼쪽으로부터 김중하KOC 위원장, 이세기 체육부장관, 김운용 총재)

Reception Ceremony celebrating President Un-Yong Kim, who elected GAISF President and a IOC member, was held at Hotel President by KOC, on 5th, November.
(from left Chong-Ha Kim, President of KOC, Seki Lee, Minister of sport, President Un-Yong Kim)

▼김운용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태권도가족이 마련한 축하리셉션이 11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졌다. (김준철 부회장이 태권도가족을 대표하여 축하인사말을 하고 있다).

A grand celebrating reception, prepared by TKD family, was held at the Press Center on 17th, November, with many domestic and foreign guest. (KTA Vice president Joon-Chul, is greeting in the represent of TKD family).



▲대형 방명록에 싸인하는 박세직 SLOOC위원장.

Se-Jik Park, President of SLOOC, is Putting a signature on a big guest book.





▲꽃탑에 새겨진
아시안게임 휘장 과 호돌이
Emblem of Asiad and Hodori, decorated
on the flower t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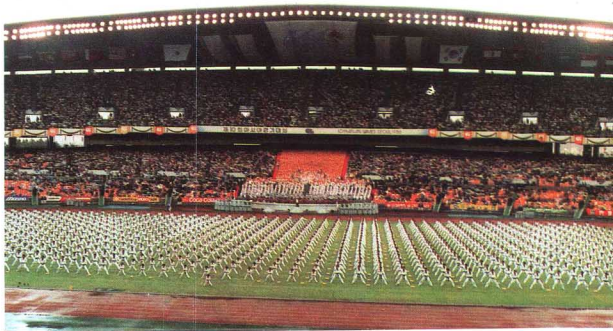
▶ 개막식공개행사에서
펼친 태권도시범 「악동」은
관중들의 극찬을 받았다.

TKD demonstration of 'STIR', operated
in the Opening Ceremony
of ASIAD was applauded.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태권도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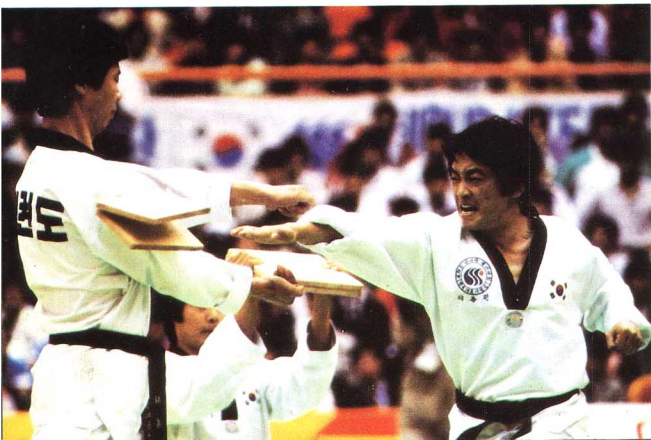
9. 30~10. 3. 성균관대 체육관

TaeKwondo Competition of 10th ASIAD
at Sungkyunkwan Univ. Gym.



▼ 태권도 경기장 전경

A panorama of TKD Competition.



◀성인 태권도시범단이
보여준 격파시범이
일품이다.

A adult group of
TKD demonstration is presenting
the best show.

▶ 많은 국내외 인사가 방문.
태권도경기를 참관했다. 오른쪽부터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태섭 과학기술처 장관.
이상주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Many a domestic and foreign guest are
presented at the TKD Competition.
(Un-Yong Kim, President of WTF Tae-Sub, Le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Sang-Joo Lee, president of ATU)



▲플라이급 김영식선수가
당당하게 입장. 일본선수에게
K.O승을 거두고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선수를 차례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
말레이시아의 술바무츠·아미사미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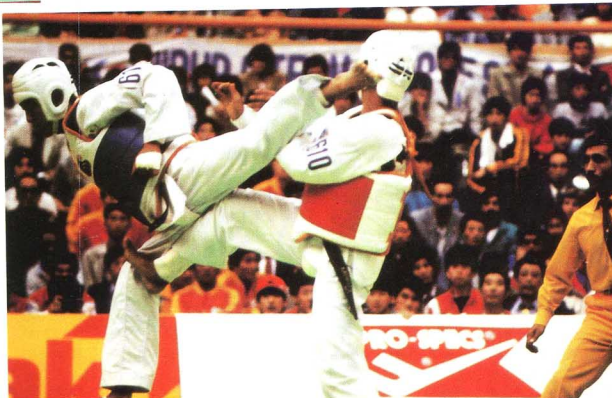
Young-sik, Kim, a player of fly weight, appeared
proudly, beat a Japan player by K.O, get the
game from Saudi Arabian player and Thailand
player, and gained a victory over Selvamuthu
RamaSamy Malaysian player.

▶ 웰터급 문종국선수가 절묘한 뒷차기를
성공시키고 있다.

Jong-Kook Moon, a player of welter weight, is
attempting a fine "Due-tcha-Ki, which means a
Kind of attempt Skill with the foot.



▲태극기의 물결과 애국가의 합창이 어우러진 경기장.
페더급 한재구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Jae-Koo Han, a player of the feather weight, is waving his hand to the
audience waving Taekeuggi(Korean national flag)
and Singing a nation anthem, with a gold medal around his neck



▶ 승리의 포옹
Embrace in joy of victory.



▼ 열광하는 관중들
Enthusiastic Spectators.



▲ 핀급의 이종선이 대회 첫날
패조의 금메달 행진을 시작했다.

Jong-Sun Lee, a player of fin weight,
won a gold medal on the firstday of competition.



▲ 이란은 밴텀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의 태권도를 위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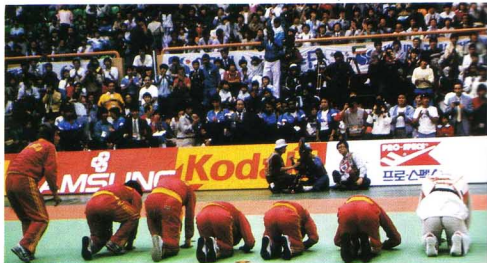
A Iran player thretened Korean players through
winning a gold medal.



◀ 아시아 태권도계의 왕자가 된
강승우선수의 당당한 승리의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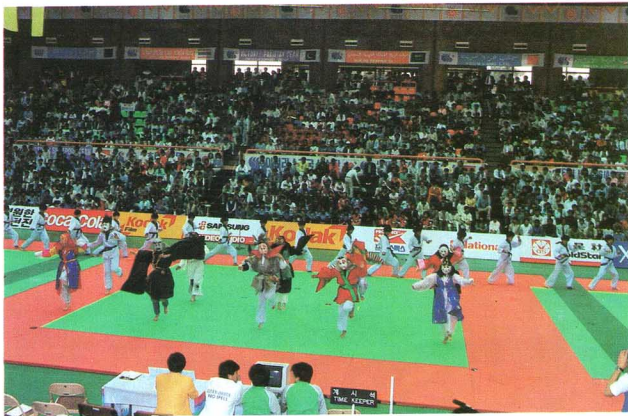
Seung-Uh Kang, a player of heavy wight, became
a champion in Asian TaekwonDo.

▶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처음 참가
7개의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큰절을 울리며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
Seven gold medalist were greeting the audience and
thankning for nation's support, those who had
participated in the TKD Competition, of ASIAD.



- ▶ 은광여고생들이 펼친
태권무는 흥겨운
가락과 율동으로
관중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 했다.

Taekwon Dance performed
by Eun Kwang girls high School
won popularity.



- ▶ 대회기간 중 수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참가증서를 수여하는 김운용총재
(대표 최고령자 이병주씨)

President Un-Yong Kim presented participation certification
to Volunteers who had made a effort during ASIAD.



- ▲플라이급 시상식에서 메달과 꽃을 수여하는
샤라드 찬드라 샤하 OCA부회장장과 이종우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

At the reward Ceremony of fly weight, Sharaad Chandre
Shara, vice president of OCA and Jong-uh Lee, vice
president of W.T.A rewarded medals and flowers to winners.

- ▶열띤 취재경쟁도 태권도 경기장의 열기를 더해 주었다.

Reporter's hot struggle to cover increased
the heat atmosphere of the competition.



'86년도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

11. 4~6. 국기원

'86 National Tournament
for Selection Best Players.



▲심상일선수(한성고)의 선수대표선서.

Representative player's oath by Sang-il, Sim(Han Sung High School)



◀전반적으로 뛰어난
경기력 향상을 보여주어
신중하고 정확한
심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

Referee's role is greater
than even before because
of increasing a
ability in g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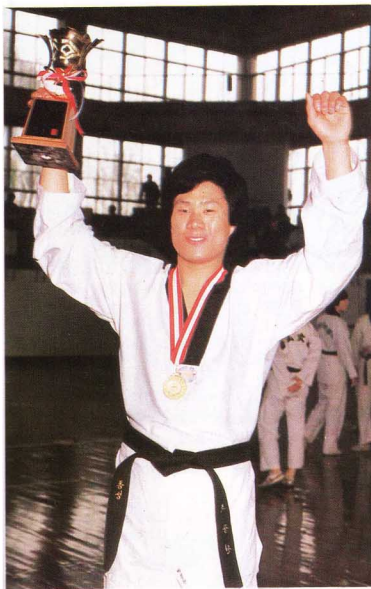
▶남자 각체급 우승자
(우승자 명단 67 페이지)

Winners of male division
(name list 67 page).



▶태권도 명문고의 전통을 자랑한
동성고등학교 태권도부,
김세혁교치는 지도상을 수상했다.

Sae-hyuck, Kim, a Coach of
Dong Sung high school TKD team
proud of its tradition as
a famous school in T. K. O, received
the prize for the best leader.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박봉권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웰터급 1위를 차지,
올해의 최우수 선수상을 타는 영광을 누렸다.

Bong-Kwon, phak, a gold medalist of Asian game, won the
Championship of Welter weight, and
received the best player prize.

▶여자 각체급 우승자
(임상자 명단 67 페이지)

Winners of female division
(name list 67 page).



▲신인으로 두각을 나타낸
미들급의 연기호선수에게
메달을 걸어주는 황춘성 전무이사.

Ki-ho, Youn, a lookie of middle Weight, was presented a medal from
Chun-Sung, Hwang, an managing director of K. T. A.



국기원에 오신 손님들

Visitors of Kukkiwon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위원들이 국기원 방문
(중앙이 김운용총재와 셰이크파하드OCA 회장)

OCA members visit at kukkiwon(President Un Yong Kim and president SHEIKH FAHAD AHMED AL-SABAH in Center).



◀독일IOC체육부 인사인 바르하르드 슈나이더씨가
국기원을 방문하고 김 총재로부터 명예회원증을
수여받고 있다.

Mr. Bernhard Schneider, German IOC Athletis bureau member, visits at kukkiwon and rewarded the honor of membership from president Kim.



◀내무부 인사들이
국기원을 방문,
김운용 총재와 면담했다.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member visits at Kukkiwon and talks with president Kim.

1986년도 추계종별 선수권대회 10. 14~18. 국기원

1986 Fall Classed
Championship Tournament

▶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하는 출전선수들

The players who oaths the fair play.



▲ 그동안 쌓아올린 기량을 맘껏 펼쳤다.

Players played the ability in game that they had trained.



▲ 권경옥 기술심의회 의장이
우승자들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kyeng-uk Kwon, the chairman of the Technical Council KTA,
is awarding medals to winners.



◀ 지하철공사
태권도회 선수들이
대회에 처녀출전,
김재명사장을 비롯한
직장동료들의 응원에 힘입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TKD team players of Seoul metropo litan sudway Corporation entered the tournament for the first time and obtain good results
by means of cheering of a head, Jae Mang Kim and Colleagues.

제12회 연맹회장기타기 전국국민학교 태권도대회

11. 2~3. 국기원

The 12th National Primary School TKD Tournament for the flag of the president of the Primary TKD Federation.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술을 펼치는 태권도 꿈나무들.
Players performing their best skill trained.

▼학년별 품새대회 입상자들 (입상자 명단 76 페이지)
winners in "Poomsae" contest
(which means a contest of basic form)
classified by grades.



▲선수를 격려하는 이상빈 국교연맹회장
Sang-Bin Lee, the president of the primary TKD Federation
encouraged to players to do their best.

▼겨루기 대회의 입상자들 (입상자명단 76 페이지)
Winners in "Kye-lu-Ki" Contest (which means a contest of real fighting).





▲대한 남아의 기개를 펼쳐보이는 선수들.
Players showing Korean manly performance.



▲최우수선수에게 시상하는 송수안 부회장.
Soo-Ahn, Song, vice president, presented
a prize to the best player.



◀충북 주성국민학교 학생들이
대회 우승기를 차지하고
승리의 기쁨을 맞보고 있다.
The winner's flag of the Competition was won by
Joo-Sung primary school in Chung-Buk.

제10회 연세대총장기쟁탈 전국남녀고교 태권도 선수권대회

10. 7~9. 연세대 체육관

The 10th National male and female High School Tournament for the flag of the president of Yun|Se Univ.



고흥환지도교수의 개회사

Opening speech by a guidance teacher, Hung-Hwan, Ko.



▲쌓아온 기량을 펼치는 선수들.

Players showing good skill.



▲남자 각체급 우승자

Winners of male division



▲여자 각체급 우승자

Winners of female division